

양보경 교수지도  
박사학위청구논문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연구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강순돌

#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연구

양보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강 순 돌

# 인 준 서

강순돌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과 서구 및 일본의 근대지리학이라는 지리적 맥락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에 관한 지리서와 지리교과서, 즉 朝鮮地誌의 성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 지지 중에서 事例를 선정하여 고찰하는 문헌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 조선지지는 민족별·시기별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먼저, 일제강점기를 1910·1920·1930·1940년대 등 4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조선지지를 각각 1권씩 모두 8권을 선정하였다. 조선인의 지지는 1910~30년대까지 각 시기마다 1권씩 수집된 것을 그대로 선정하였고, 1940년대의 것은 일제의 영향을 담고 있는 1946년 발행의 지리교과서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일본인의 지지는 조선인의 지지발행시기에 준하여 수집된 자료 중에서 선정하였고, 서구인의 지지로는 1900년과 1945년에 발행된 두 권의 지지를 비교대상으로서 포함시켰다.

이러한 사례지지 선정방법은 기본적으로 조선이라는 동일한 지역을 두고서 기술한 조선지지의 성격을 민족별·시기별로 비교하여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민족과 시기에 따라 나누어 고찰하는 방법(분할 고찰)과 이렇게 분석했던 것을 전체로 통합하여 지지의 성격을 고찰하는 방법(통합 고찰)을 통해 조선지지의 총체적인 특성을 밝히려고 하였다. 조선지지의 성격이란 구체적으로 조선지지의 저술 목적을 밝히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의 체재와 내용을 정리하며, 지리개념과 기술방법론을 도출하고, 그림 자료와 지역구분 지표의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연구 결과는 조선지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지지는 시대적 맥락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강점

과 동시에 지지적 맥락으로서 서구 근대지지학의 영향을 받아 기술되었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조선식민지 강점에 대한 각 민족의 입장에 따라 조선지지의 저술 목적에 차이가 있었고, 체재와 내용, 기술방법론과 지역구분의 지표에서는 각 민족의 모든 조선지지에서 서구 근대지지학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지’라는 틀로 짜여져 있는 조선지지의 수록 내용은 리히트호펜 이후 정립된 근대지지학의 지지체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는 위치·지형·기후·천산물의 자연지리, 산업·교통·문화·인구의 인문지리, 그리고 지역구분과 處誌의 지방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조선지지의 주요 지리개념으로는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입지, 지역의 변화 등의 지리학의 기본개념이 응용되고 있었다. 위치는 조선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분포는 특히 지도화 작업과 병행하여 산물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리개념이었다. 자연과 인문의 관계는 인종이나 민족의 특성과 각종 산업의 경제활동과 관계하는 자연을 언급할 때, 입지는 발전소, 근교원예농업, 공업지역 등 산업 활동을 기술할 때에 주로 응용된 개념이며, 지역의 변화는 일제의 조선강점 전후의 지역 변화를 설명하는 지리개념이었다.

넷째 조선지지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지리적 현상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記述하는 방법과 지리적 현상 간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자연지리나 인문지리를 기술할 때에는 특별히 지역 간의 지리적 현상을 비교하는 기술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술방법은 지지학적 맥락에서 밝힌 서구 지지학의 지지 기술방법론과 동일한 것이었다.

다섯째 조선지지에 나타난 지역구분의 유형은 행정구역이나 자연지역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초기에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던 지역구분이 1930년대 이후에는 자연지역(예, 지리구)에 의한 지역구분법으로 그 추세가 변화하였다.

여섯째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림 자료의 활용도가 낮았다.

결국 조선지지의 체제, 내용, 지리개념, 기술방법, 지역구분 등 지지의 내적인 측면인 학문적인 요소는 민족에 상관없이 서구 근대지리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의 속내에 감춰진 조선지지 저술목적이나 일부 내용에 대한 기술방법에 있어서는 민족 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조선지지의 외적인 측면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에서 파생된 것으로 조선이라는 동일지역을 두고서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의 연구방법으로서 분할과 통합의 방법은, 첫째 민족간 비교연구를 통해 이와 같은 민족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초한 조선지지의 저술목적에 고찰하는데 유용하였고, 둘째 시간단면을 통한 시기별 고찰을 통해서 짧은 기간의 일제강점기였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른 조선지지의 미묘한 성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남긴 과제로는, 첫째 지리서나 지리교과서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조선지지 자료를 발굴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전체모습을 연구하는 일이며, 둘째 근대 지역지리와 현대 지역지리를 잇는 가교로서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의한 전통지역지리학을 고찰하는 일이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목적 .....	1
2. 연구 방법 .....	4
(1) 조선지지 관련 용어 .....	4
(2) 연구 방법 .....	6
3. 연구 대상 .....	8
(1)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발행 환경 .....	8
(2) 일제강점기 발행 조선지지 .....	10
(3) 연구 대상 사례지지 선정 .....	13

## 제1부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맥락적 이해

II.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시대적 맥락 .....	16
1. 제국주의와 식민지 .....	16
2. 일본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	18
(1) 일본제국주의의 형성 시기와 성격 .....	18
(2)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정책 .....	19
3. 일제강점기의 조선 공간 .....	23
(1) 청과 조선의 점이지대: 間島 .....	23
(2) 조선 공간에 관한 표상 짓기 .....	24

(3) 공간 통합이라는 허상: 무너진 울타리 이론 .....	26
(4) 조선 공간 구조의 변화와 조선 공간 인식 .....	27
III. 일제강점기의 지지적 맥락과 조선지지 .....	29
1. 지지기술의 기초: 地誌學 .....	29
(1) 지지학의 연구 방법 .....	29
(2) 지지학의 연구 대상 .....	30
2. 근대 지지학의 공간적 맥락 .....	32
(1) 거리의 축소 .....	32
(2) 국가의 영토 팽창 .....	34
3.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지지적 맥락 .....	35
(1) 서구 근대지지학 .....	35
(2) 일본의 지지학 .....	46
(3)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지지적 맥락 .....	52

## 제2부 사례로 본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IV. 조선지지의 개관적 이해 .....	54
1. 조선지지의 일반적인 특징 .....	54
(1) 텍스트의 저자 .....	54
(2) 텍스트의 제목 .....	60
(3) 텍스트의 발행 양식 .....	61
(4) 텍스트의 사용 문자 .....	62
2. 조선지지의 계보 .....	64
(1) 조선인: 실학적 지리학의 계승과 舊學과의 구별 .....	64

(2) 일본인: 서구 근대지리학의 모방과 토착화 .....	67
(3) 서구인: 서구 근대지리학의 조선에의 적용 .....	68
(4) 통합 고찰 .....	69
3. 조선지지의 체재와 저술 목적 .....	70
(1) 조선지지의 체재 .....	70
(2) 조선지지의 저술 목적 .....	78
4. 조선지지에 포함된 그림 자료 .....	84
(1) 지도 자료와 그 특징 .....	84
(2) 사진에 나타난 경관 .....	91
(3) 도표 자료와 조선지지 .....	95
(4) 통합 고찰 .....	97
V. 조선지지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	99
1. 영역 기술에 나타난 국토관 .....	99
2. 자연지리의 내용과 기술 방법 .....	105
(1) 자연지리에 관한 분할 고찰 .....	105
(2) 자연지리에 관한 통합 고찰 .....	132
3. 인문지리의 내용과 기술 방법 .....	136
(1) 인문지리에 관한 분할 고찰 .....	136
(2) 인문지리에 관한 통합 고찰 .....	155
VI. 조선지지의 지역구분과 지방지지 .....	159
1. 조선지지의 지역 구분 .....	159
(1) 지역 구분의 지표 .....	159
(2) 지방지지의 지역 기술 순서 .....	164

2. 지방지지의 내용과 기술 방법 .....	165
(1) 지방지지에 관한 분할 고찰 .....	165
(2) 지방지지에 관한 통합 고찰 .....	186
VII. 요약 및 결론 .....	188
1. 조선지지의 발행 배경 .....	188
2. 조선지지의 체재와 수록 내용 .....	190
3. 조선지지 기술에 있어 지리개념의 응용 .....	191
4. 조선지지에 적용된 기술 방법 .....	193
5. 지역구분의 지표 .....	194
6. 결론 .....	196

참고문헌

ABSTRACT(영문초록)

감사의 글

## 표 목차

표 1.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 .....	11~12
표 2.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조선지지 .....	14
표 3.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표상 .....	25
표 4. 바레니우스 특수지리학의 세 가지 속성 .....	71
표 5. 조선지의 목차 내용 .....	72~73
표 6. 조선지의 서문 내용 .....	79~80
표 7. 조선지에 수록된 지도 자료 .....	85~86
표 8. <최신조선지리>의 사진 경관 .....	92
표 9. <조선향토지리>의 사진 경관 .....	93
표 10. 조선지의 자연지리 내용 .....	106
표 11. 암석층과 토양·농업·분포지역 .....	107
표 12. 남북 기후 차이의 원인과 결과 .....	108
표 13. 해안선의 연장과 문명 발달과의 관계 .....	108
표 14. 조선의 지형구(1946년 조선인) .....	110
표 15. 조선의 지형구(1912년 일본인) .....	112
표 16. 3면 해안선의 범위·특징과 이용 .....	114
표 17. 기후대와 인문 활동 .....	118
표 18. 산지의 지질적 주향 .....	119
표 19. 주요 하천의 가항 구간(돛단배) .....	124
표 20. 연간 강수량의 백분율 .....	126
표 21. 조선의 기후지역 구분 .....	131
표 22. 조선지의 인문지리 내용 .....	137
표 23. 도로의 등급 .....	144

표 24. 공업 지대와 그 입지 요인 .....	148
표 25. 지역 구분 기준 .....	160~161
표 26. 라우텐자흐의 지역 구분 .....	163
표 27. 지방지에서의 지역 기술 순서(민족별) .....	165
표 28. 지방각론의 주요 내용 요소 .....	166
표 29. 각도의 주요 내용 요소 .....	168
표 30. 간도와 훈춘에 관한 지지의 주요 내용 요소 .....	169
표 31.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조선지리>) .....	170
표 32.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중등조선지리>) .....	171
표 33. 지방지의 소지역 구분 .....	172
표 34. 각도지리의 주요 내용 요소 .....	172
표 35.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신편조선지리>) .....	174
표 36. 지리구의 주요 내용 요소 .....	176
표 37.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조선신지리>) .....	177
표 38. 道와 都市의 주요 내용 요소 .....	180
표 39. 여러 지역의 주요 내용 요소 .....	181~182
표 40. 산지고도에 따른 풍화 및 침식지형 지대 .....	185

## 그림 목차

그림 1. 경선 .....	87
그림 2. 위선 .....	87
그림 3. 경위도 .....	87
그림 4. 혼용식 .....	87
그림 5. 고등식 .....	87
그림 6. 인구증감도 .....	89
그림 7. 군별 인구밀도 .....	91
그림 8. 기후구(淺香幸雄, 1943) .....	121
그림 9. 기후 구분 .....	130
그림 10. 식생 지리 구분 .....	130
그림 11. 세계의 자연지역 구분(허버트슨, 1905) .....	195
그림 12. 일본의 지리구(田中啓爾, 1927) .....	196
그림 13. 지리구(정홍현 외, 1946) .....	196

# I. 서론

## 1.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조선지지,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조선지지는 어떤 성격이었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이 시기는 전통시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는 과도기로서, 19세기 후반 제국주의의 세계정세 속에서 개항과 더불어 서양의 근대 문물을 도입하고, 부국의 깃발을 휘날리며, 강병의 함성을 목청껏 외치고 있던 자주 독립 국가 조선은 외세의 간섭을 극복하고 부국강병의 국가로서 존립하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에는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아 조선인의 삶의 터전이 일본인에 의해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기이다.

현대인문지리학사전(한국지리연구회 역, 1992)에서는 지리학을 ‘인류 집단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의 지표면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조선지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시기의 조선민족이 거주하는 조선반도라는 지표면에 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삶의 터전에 관한 인간 집단의 관심은 인류의 출현 때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의 자연 또는 토지에 대한 영역이 지리적으로 확대되면서 그 터전에 관한 정보는 더 중요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지리정보는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을 수도 있었던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체계적으로 엮을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만큼 그 집단 또는 국가가 강성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지리정보는 지도로 그려지고, 지지(또는 지리지)로 기술되었다.

지도와 지지에는 특정 지역의 지리를 제작 또는 저술하는 주체의 어떤 목적이 개입되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조선지지가 저자<sup>1)</sup>의 학문적인 객관성에 기초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주관적 관점과 그들을 둘러싼 시대적 맥락과도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 강점기의 경우에도 민족별로 조선의 지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저자마다 다를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내용도 달랐으리라 추측된다. 즉 저자들의 민족<sup>2)</sup> - 일본인(식민지 지배자), 조선인(식민지피지배자), 서구인(제3국민) - 에 따라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는 크게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식민지 지배자인 일본인 학자와 교육 관료에 의한 저술, 식민지피지배자인 조선의 지식인에 의한 저술, 마지막으로 제3국민인 서구 학자들에 의한 저술에 따라 조선지지의 성격과 내용에 차이가 날 것으로 전제를 하는 것이다. 그 전제를 조금 더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이들 세 종류의 조선지지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첫째는 한민족의 민족정기를 빼앗고 인재와 물자를 수탈하는 등 식민통치에 도움을 주는 지리, 즉 철도건설, 러일 또는 청일 전쟁터를 언급하는 등 일본인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지리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시대정신을 일깨우고 독립 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지닌 지리로서, 남상준(1992)은 영토를 미화하고 실지회복을 언급하며 애국지사과 국난극복을 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 지리를 ‘민족지리학’이라고 불렀다. 셋째는 근대화의 우월적 지위에서 바라본 학문적 호기심의 지리, 즉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또는 제국주의적 관점에서 조선을 연구한 지리라고 하겠다.

---

1) 여기서 저자란 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기관 또는 국가 등을 포함하는 범 저술 주체들을 말한다. 저술 주체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하여, 예를 들면 발행자, 편찬자, 편집자, 저작권자, 저작자, 저자 등, 이하 본 연구에서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은 저술 주체들을 저자로 통일하여 부르기로 한다.

2) 서구인은 조선인, 일본인과 같은 민족범주의 개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상 서구의 여러 민족을 통칭하는 의미에서 서구인을 민족으로 대비하였다.

그 동안 일제시기에 발행된 지지 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조선이라고 하는 동일 지역을 서로 다른 민족의 관점에서 기술한 조선지지를 비교 연구한 예가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자료에 관한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지지 기술의 밑바탕이 되는 각 지역의 읍지 문헌에 대한 연구<sup>3)</sup>가 있다. 읍지의 항목을 자연지리·인문지리로 분류하여 시대별·지역별로 분석하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항목을 비교하여 연구한 예가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지리교육과 관련한 연구<sup>4)</sup>가 있다. 다양한 문헌을 이용하여 지리교육과정의 특징과 교과서의 내용분석, 그리고 더 나아가 국학으로서의 지리교육의 말살이라는 부분까지 해명하고 있다. 셋째 특정 인물의 지리사상과 방법론을 밝힌 연구<sup>5)</sup>가 있다. 「조선지리소고」에 나타난 김교신의 지리사상과 방법론을 연구한 예가 있다. 넷째, 지리학사의 일부로서 일제강점기의 지리학을 정리한 연구<sup>6)</sup>가 있다.

이렇듯 조선지지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는 아직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정해 보았다. 즉,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sup>7)</sup>를 저자들의 민족적 배경과 시기별 시간단면에 따라 그것의 저술 목적, 지지 체재, 지리 개념, 지지 내용, 기술 방법, 그림 자

3)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읍지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pp.89~115.

4) 장보웅, 1971, 일본통치시대의 지리교육, <군산교대 논문집> 4, 군산교육대학, pp.83~117. 권혁재, 1982,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한국교육사연구와 새 방향>, 집문당, pp.248~262. 남상준, 1986, 일제의 대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지리교육 :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17-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pp.1~21.

5) 이은숙, 1996, 김교신의 지리 사상과 지리학 방법론-조선지리소고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37~51.

6) 이찬, 1968, 한국지리학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681~734. 권혁재, 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193~235.

7) 본 연구에 도입된 조선지지에 관한 정의는 '연구방법'을 참조하시오.

료, 지역구분 지표를 고찰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우리나라에 관한 숨겨진 지지 자료를 발굴하였다는 데에 일차적인 의미가 있으며, 또한 그 자료를 기초로 개별 민족의 조선지지를 서로 비교 연구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총체적인 성격 규명을 시도하였다는 데에 의의를 둔다.

그러나 연구대상으로서의 사례지지를 지리서와 지리교과서로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채널, 즉 읍지나 기타 여행기류 등의 지지를 포함시키지 못한 점, 지리서와 지리교과서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취급하였다는 점과 서구인에 의한 조선지지 자료의 부족은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이며, 동시에 보완해야 할 점이다.

## 2. 연구 방법

### (1) 조선지지 관련 용어

#### 1) 조선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우리나라를 ‘한국’보다는 ‘조선’이라고 부른다. 조선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지칭했던 이름이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지지 관련 자료들이 조선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역사지리학의 연구에서도 고구려, 신라, 백제, 발해, 고려 등을 ‘한국’ 또는 ‘우리나라’라고 고쳐 쓰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 불필요하

게 발생할 수 있는 용어 혼동을 없애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선반도, 조선민족 등의 용어도 조선과 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국지>와 <코레아>의 내용을 인용하고 설명할 때에는 번역서의 용어, ‘한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2) 조선지지

지지는 보통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지’로 구성되어 있는 지리서나 지리교과서를 지칭한다. 기술 순서에 상관없이 이 세 가지 구성요소가 들어가 있으면 된다. 지지에 따라서는 자연지리를 지문지리라고, 인문지리를 경제지리라고, 또 지방지지를 각도지리라고 부르고 있다.

지방지지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지역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지역구분에는 조선의 8도 내지 13도라는 행정구역을 따르는 정치적 구분과 지세나 하천 등의 지형과 기온, 강수량 등의 기후를 기준으로 한 자연지리적 구분이 있으며, 정치적 구분도 대체로 자연지리적 구분을 준거로 결정된 지역구분이다. 이렇게 조선을 각 지방이라고 하는 하위지역으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조선지지가 식민지 조선이라는 전체지역 뿐 아니라 지방이라는 부분을 이해해야만 조선이라는 지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지란 지지를 기술하는 공간범위, 즉 지역 스케일(scale)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지방지지의 단순한 집합이 전국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작은 규모의 스케일에서는 지방지지라고 하는 체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필자는 조선지지를 전국 규모의 계통지리(자연지리·인문지리)와 지역구분이 포함되어 있는 지방지지로 구성되어 있는 조선에 관한

지지 문헌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어떤 지역을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는 문헌 - 예를 들어 여행기, 여행안내서와 같은 경우 - 이나 조선 전체를 다루고 있지 않은 지지문헌은 이와 같은 정의의 조선지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 (2) 연구 방법

### 1) 문헌에 기초한 사례 연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분석 대상이 되는 1차 자료로서의 조선지지 문헌과 그것의 시대적·지지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문헌을 고찰하게 된다. 이에 도서관을 비롯한 각종 채널을 이용해 조선 지지 자료들을 찾아 정리하고 분류하였으며, 시대적 맥락과 지지적 맥락에 관련된 자료들을 분석·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발굴된 조선지지 문헌 중에서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저자의 저술 목적을 찾아내고, 지지의 체재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들어있는 지리개념과 기술방법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분 지표를 고찰하고, 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그림 자료도 분석하였다.

이 연구 방법은 당시 사람들에게 의한 기록을 주된 자료로 삼아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문헌역사지리학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고지도, 고지지, 토지대장, 고문서, 여행기, 문예작품 등의 자료에 의해 과거의 지리를 복원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고, 당시 지역주민이 지역을 형성한 동기, 목적, 이유까지도 확실하게 밝혀내는 방법이기도 하다(윤정숙 역, 1994:19). 그러나 여기서는 당시 지역으로의 복원이나 지역형성동기 등

에 관해서는 연구하지 않고, 오직 지지 문헌 그 자체가 담고 있는 조선지지의 성격고찰에만 머문다.

## 2) 동일지역 대상 지지문헌에 대한 민족간 비교 연구

이 방법은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방법으로서 조선이라는 하는 동일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민족(조선인·일본인·서구인)이 발행한 지지문헌을 비교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성격을 연구하는 것이다. 필자는 앞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동일한 시대적 맥락이어도 그 시대적 맥락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민족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선지지에 나타난 특성도 서로 상이할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풀어내는 유용한 방법으로서 이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민족에 따른 시대적 인식과 장소적 인식이 서로 상이하게 나타난 조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조선지지를 통해 고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3) 시기별 시간단면 분석

이 분석 방법은 역사지리학의 방법론으로 시계열적 연구 방법이며, 시기별로 비교하여 고찰한다는 점에서 시기별 비교연구라고도 볼 수 있다. 우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간 단면에서 조선지지를 고찰하는 연구이지만, 더 나아가 일제강점기는 36개년 간에 걸친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어, 전 기간을 통틀어 조선지지의 성격을 한마디로 특징짓기보다는 몇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그것의 성격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 판단하여 시간 단면을 시기별로 세분화하였다.

현재까지 역사학계의 일제강점기에 관한 세부 시기구분을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고 있다. 즉 3·1운동과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하여 나눈 1910년대(1910~1919년)·1920년대(1920~1930년)·1930년대(1931~1945년)라는 시기가 그것이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두 사건이 그 발생시기를 전후해서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식민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1910년대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합병한 직후로 더욱 거세진 항일독립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던 무단통치기이며,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는 좀 더 세련된 통치술책을 펼치던 문화통치기이고, 마지막으로 1931년에서 1945까지는 대륙침략전쟁을 위한 병참기지추구기로 나누고 있다(유성희·박은경, 1998:141~157). 필자는 마지막 시기를 다시 두 시기, 즉 태평양 전쟁 발발 시점(1941년)을 기준으로 1931~1940년과 1941~1945년으로 나누어 모두 네 시기의 시간 단면에서 조선지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상에서 민족간 비교연구나 시기별 시간단면 분석은 조선지지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방법이므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게 다시 통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분할의 방법과 전체로 모아 고찰하는 통합의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3. 연구 대상

#### (1)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발행 환경

책은 맥락까지 읽어야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환경과의

끈임 없는 소통의 산물이기 때문이다(강유원, 2004). 이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지리 - 지리서와 지리교과서 - 를 읽으려면 일제강점기의 정치·경제·문화라는 맥락을 동시에 읽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책은 독자들을 변화시키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권위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특정 환경 속에서 더욱 빛을 발휘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일제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은 배제한 반면, 일제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노골적으로, 더 나아가 왜곡이나 과장을 해서라도 선택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독립정신을 드높이는 교과서를 포함한 도서에 대한 발행·발매금지는 당연한 결과였다. 발매금지당한 교과서에는 <대한지지>(현채, 1899), <대한신지지>(장지연, 1907년), <문답대한신지지>(박문서관편집부, 1908년), <최신고등대한지지>(정인호, 1909년), <최신초등대한지지>(정인호, 1909년) 등과 같은 조선지리 교과서 관련 도서가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는 식민정부의 정당성을 고착시키기 위해 통감부가 했듯이 총독부 설립과 동시에 관보를 비롯한 조선에 대한 많은 연구서와 현장 안내서 그리고 역사·문화에 대한 입문서 등을 발행하여 일선동화에 필요한 지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또 생산하였다(최정태, 2001:123).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두었던 관심은 정치적으로는 조선 영토를 일본에 통합시키고, 경제적으로는 근대 문명으로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며, 문화적으로는 조선민족을 일본에 동화시켜 말살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일본인이 편찬한 조선지리 교과서는 일본을 선전하는 내용, 즉 조선의 후진성을 부각시키고 일본의 우수성과 선진성을 보여주어 조선민족에게 열등의식을 심어주려는 의도까지 담겨 있었고(박봉배, 1995:14), 반면에 조선의 애국적인 교사들은 일제의 탄압 하에서 합법적으로는 민족적 자각을 갖게 하는 애국교육을 쉽게 행할 수 없었으므로, 많은 간섭·탄압을 받으

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학생들에게 애국사상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경식, 1986:149~154).

이런 일제의 식민정책 가운데서도 그나마 발행허가를 받은 도서들도 문학 관련 서적이 주류였고, 학술 관련 서적은 그 출판이 매우 저조하였다(방효순, 2001:34 ~39).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이 발행한 단행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족보 책이었는데, 이렇게 족보가 가장 많았던 것은 특이한 현상으로 나라를 빼앗긴 민족으로서 조상의 내력을 알고 전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정진석, 1990:394)고 한다.

## (2) 일제강점기 발행 조선지지

조선지지에 관한 자료로서 지리서, 지리교과서, 읍지, 여행기, 여행안내서, 신문, 잡지 등의 여러 자료 중에서도 일제강점기에 단행본으로 발행된 지리서와 지리교과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표 1). 표는 민족별·유형별·시기별로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를 정리한 것이다.

도표에 나타난 민족별·시기별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발행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의 지지 자료로는 1910~30년대 각 1권씩 총 3권의 조선지지를 수집할 수 있었다. 1910년 이전, 특히 1907~1909년 사이 3년간에 지리교과서 총 9권을 발행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어 소위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였지만, 국학으로서의 지리학도 침체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940년대에는 일제강점기가 막 끝난 광복 이후에 발행된 지리교과서(1946)와 지리서(1947)가 있었다. 따라서 1940년대의 일제강점기에는

한권의 조선지지도 발행되지 않았던 것이다.

표 1.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도

민족	유형	연대	표제	저자	발행처	발행연도	소장처(영인본)
조선인	지리서	1910	新朝鮮全誌	南宮濬	唯一書館	1912	영인본(한국인문과학원01)
		1920	결				
		1930	朝鮮地理	申明均	常識普及會	1931	서원대도서관
		1940	新朝鮮地理	朴魯植	同志社	1947	국립중앙도서관
	지리교과서	1910	大韓地誌	玄采	光文社	1899	영인본(경인030)
			大韓新地誌	張志淵	微文館	1907	국립중앙도서관
			新編大韓地理	金建中	普成館	1907	국립중앙도서관
			問答大韓新地誌	編輯部	博文書館	1908	국립중앙도서관
			初等大韓地誌	조종만	사동漢陽書館	1908	연세대도서관
			初等大韓地誌	安鍾和	光學書鋪	1908	국립중앙도서관
			柳瑾				
	最新高等大韓地誌	鄭寅琥	普成社	1909	국회도서관		
	最新初等大韓地誌	鄭寅琥	普成社	1909	국회도서관		
	初等本國地理(1-2卷)	朴晶東	同文館	1909	고려대도서관		
初等大韓地理	安鍾和	廣德書館	1909	고려대도서관			
1920	最新朝鮮地理	尹和洙	永新中學校	1924	연세대도서관		
1930	결						
1940	中等朝鮮地理	鄭洪憲 李富星 李箕燮	正音社	1946	서원대도서관		
일본인	지리서	1910	朝鮮新地理	地理研究會	田中宋榮堂	1910	영인본(경인019)
			朝鮮新地誌	足立栗園	積善館本店	1910	영인본(경인221)
			朝鮮誌	吉田英三郎	町田文林堂	1910	영인본(경인002~3)
			韓國誌(제4판)	山林局	東京書院	1910	일본 학습원대학
			韓國地理(제6판)	田淵友彦	博文館	1910	국립중앙도서관
			最新朝鮮地誌	編輯部	日韓書房	1912	영인본(경인001)
			最新朝鮮地誌	朝鮮及滿洲社	朝鮮及滿洲社	1918	국립중앙도서관

		(1-3권) 最新朝鮮地理	洲社 藤戶計太	出版部 巖松堂京城店	1918	영인본(경인116~7)	
		朝鮮地理誌	藤戶計太	京城日報社	1920	영인본(경인108~9)	
		1920 新編朝鮮地誌	日高友四郎	代理部 朝鮮弘文社	1924	영인본(경인201~2)	
		朝鮮地誌	朝鮮弘文社	朝鮮弘文社	1926	정신문화연구원	
		1930 表解朝鮮地理	朴玄寔	漢城圖書株式會社	1937	국회도서관	
	1940 朝鮮新地誌	淺香幸雄	恆春閣	1943	영인본(경인019)		
	지 리 교 과 서	1910	결				
		1920	결				
		1930	朝鮮郷土地理	豊川善曄	日韓書房	1935	국립중앙도서관
		1940	결				
서 구 인	지 리 서	1910 KOPEI 韓國誌(본문·부록)	러시아대 장성 崔璇 金炳璘	S-Petersburg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00 1984	<KOPEI>(1900)의 번역본	
		1920	결				
		1930	결				
		1940 KOREA 코리아(I-II)	H.Laute nsach 김종규 강경원 손명철	K.F.Koehler Verlag 민음사	1945 1998	<KOREA>(1945) 의 번역본	
		지 리 교 과 서	1910	결			
	1920	결					
	1930	결					
	1940	결					

주) 본 자료는 필자의 조사와 홍경희(1994)·장보웅(1971), 경인문화사(영인본)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1910~1945년의 기간을 벗어난 조선인과 서구인의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다.

둘째 일본인의 지지는 1910년대에 다수 발행되었는데, 이는 1876년 개항 이후부터 쌓여온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가 식민지 강점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단행본으로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조선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은 1869년 東京에서 발행된 染崎延房의 <朝鮮事情>이었고, 이후로 지지체재를 갖춘 지리서<sup>8)</sup>뿐만 아니라 지리정보를 담은 다른 유형의 책들이 1910년 이전까지 거의 매년 발행되다시피 하였다. 때문에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는 풍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리서는 일제강점기 후기로 가면서 현격하게 지리서의 발행 책 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지리교과서는 1930년대에 1권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지리교육이 일본지지 속의 한 지방으로서 조선이 다루어져 단행본으로서 조선지지의 발행이 드물었기 때문이다.

셋째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서구인의 조선지지는 1권의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1930년대에 조선을 답사하고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1945년에 발행한 독일인 라우텐자흐의 <KOREA>를 1998년 대우학술번역서로 발행한 <코리아>였다. 1910년 이전에 발행한 지지로서는 1900년의 <КОРЕИ>(러시아대장성, 1900)를 1984년에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韓國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저조한 서구인의 조선지지 발행 권수는 이미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된 조선에 대한 서구의 여러 제국들의 관심이 소원한 탓이기도 했거니와, 혹 관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답사나 지리정보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연구 대상 사례지지 선정

각 민족과 일제강점기에서의 세부시기를 감안하여, 앞에서 제시한 단행본 조선지지 중 10권의 조선지지를 본 연구의 사례지지로 삼았다(표 2).

8) 이에 속하는 조선지지는 <朝鮮地誌>(坂根達郎, 1880), <鷄林地誌>(宇津木貞夫, 1883), <朝鮮八道誌>(小松運, 1887), <新撰朝鮮地理誌>(大田才次郎, 1894), <朝鮮地誌>(學部編輯局, 1895), <韓國新地理(제3판)>(田淵友彦, 1905), <韓國地理(제6판)>(矢津昌永, 1906) 등이 있다.

표 2. 사례연구의 대상이 된 조선지지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비 고
조선인	서명 新朝鮮全誌 1912년	最新朝鮮地理 1924년	朝鮮地理 1931년	中等朝鮮地理 1946년	朝鮮地理는 조선청년상 식총서(4)
	저자 南宮濬 편자	尹和洙 편집겸발행인	申明均 저작겸발행인	鄭洪憲·李箕燮 ·李富星 공저	
일본인	서명 最新朝鮮地誌 1912년	新編朝鮮地誌 1924년	朝鮮郷土地理 1935년	朝鮮新地誌 1943년	朝鮮新地誌 는대일본향 토지지(48)
	저자 日韓書房編輯部 저작자	日高友四郎 저작겸발행자	豊川善曄 저작자	淺香幸雄 지	
서구인	서명 KOPEI(韓國誌) 1900년	결	결	KOREA(코레아) 1945년	KOPEI와 KOREA는 번역본 이용
	저자 러시아대장성			라우텐자흐	

일제강점기를 통틀어 발행된 조선인의 조선지지 3권을 중심으로 연구 시기의 범위는 조금 벗어나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라고 판단되는 <중등조선지리>를 포함시켜 조선인의 조선지지 4권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조선인의 각 시기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조선지지 4권을 선정하였는데, 1910년대와 1920년대의 책은 조선인의 사례지지 발행연도와 동일한 日韓書房編輯部の <최신조선지지>(1912)와 日高友四郎의 <신편조선지지>(1924)를, 1930년대는 <표해조선지리>와 <조선향토지리 > 중에서 전자의 지지가 요약본으로 발행된 지지여서 서술이 생략되어 있는 관계로 후자의 지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1940년대는 일본인의 유일한 지지인 <조선신지지>를 사례지지로 선택하였다.

서구인의 조선지지는 라우텐자흐의 <코레아>를 1940년대에, 1900년에

발행된 러시아대장성의 <한국지>를 1910년대 배치하여 다른 민족의 지지와 비교하였다. 비록 <한국지>는 19세기 말의 조선을 기술하고 있어 일제강점 이후의 지역변화를 담고 있지 않다는 결함이 있지만 조선지지로서의 손색이 없어 사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서구인에 의한 조선지지로서 확인 가능한 지지가 2권 밖이었다는 사실도 이와 같은 사례지지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

사례 텍스트(text) 조선지지는 지리서와 지리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두 종류의 지지는 처음부터 의도한 도서의 발행목적이 서로 상이하나, 지지라고 하는 하나의 체재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분석 대상으로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선인 윤화수(1924)의 <최신조선지리> 및 정홍헌 외(1946)의 <중등조선지리>와 일본인 도요가와(豊川善曄, 1935)의 <조선향토지리>는 지리교과서로 이용된 것이고, 나머지는 지리서이다.

## 제1부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맥락적 이해

### II.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시대적 맥락

조선은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약 35년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다. 그러므로 식민지 조선에 관해 편찬된 지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일본제국주의’라는 외부 세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제국주의의 이익을 위해 조선을 침략하여 각종 정치·경제·문화적 정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식민지 조선의 국토 공간에 미친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이것을 기초로 지지가 편찬되었기 때문이다.

#### 1. 제국주의와 식민지

유럽인들의 동양과 무역하고자 했던 열망이 신항로를 발견하게 하고 또 신대륙을 발견하게 하였다. 이를 계기로 무역이 발달하고 식민지가 개척되었으며,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는 식민지 본국이 식민지를 영속적으로 시장화하고 또 富源地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이것은 결국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근대 식민정책의 기원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생산된 대량의 상품을 판매할 新市場과 그 상품의 원료를 매입할 新富源地를 획득하려는 경제적 조건과 또 필연적으로 신시장과 신부원지를 차지하고 보호함에 필요불가결할 정치적 조건(즉 중앙집권적 정치적 조건)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그들은 미개지와 약소국을 강탈하며 보호간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활동하였다(朴衡秉, 1926a:48 ~49). 특히 19세기 후반부터는 적극적인 정책, 즉 제국주의적 식민정책<sup>9)</sup>으로 변하여 급기야는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윗글, 53).

이와 같은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은 앤드류 포터(석화정 역, 2001:28)가 내린 ‘제국주의’에 관한 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정치적, 경제적으로 발전이 미미하거나, 또는 정치, 경제 중 어느 한 부분의 발전이 미미하거나 기술적으로도 선진화되지 못한 민족이나 국가에 대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세한 영향력이나 직접적인 통제를 이룩하는 것’을 제국주의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정복자인 본국이 피정복자인 식민지의 부를 착취하려 하며 또 이 착취를 영속하고자 함에는 식민지에 대해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여 식민지민으로 하여금 본국의 정책에 순종 - 형식적이라도 외면상이라도 - 케 하려 할 것인데(朴衡秉, 1926b:18),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정책의 주요 골격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는 식민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나아가 통제를 가하여 제국주의 국가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 제국의 힘은 식민지를 변동시키고 그 지역을 제국의 질서 속에 편입시킨다. 여기서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실상을 단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예가 하나 있다. 즉 ‘다른 어떤 대륙에도 아프리카처럼 수천 킬로미터 이상이나 직선으로 곧게 뻗은 국경선은 드물다. 이것은 지리적인 또는 종족적인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멋대로 갈라놓은 선이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식민지의 지리는 제국의 목적에 근거하여 규정되고 재편되기 때문에 그것을 책, 즉 지리서나 지리교과서로 엮는 일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

---

9) 영어권, 특히 영국에 있어 ‘제국주의’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1870년대이다(박지향, 2000:17).

나지 못하게 된다.

## 2. 일본제국주의와 조선 식민지

### (1) 일본제국주의의 형성 시기와 성격

일본제국주의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해외 식민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시기, 다시 말해서 일본이 주변 국가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증거인 지리적 영역에 대한 통치를 개시한 시기를 그 형성시기로 본다. 그 시기는 대만 領有시기(1895)이다(길승흠, 1985; 김경태, 1985; 김운태, 1999 참조).

이후 일본은 러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을 보호국으로 삼아 사실상 식민지화하고, 南樺太와 관동주 그리고 滿鐵附屬地를 영유하였으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 南洋群島를 확보하고 만주사변을 계기로 만주 전역을 지배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동남아시아까지 점령함으로써 1945년까지 광범위한 영토를 지배하고 있었다(김경태, 1985:124).

이와 같은 일본의 식민지 침탈은 자본주의의 내적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불안정과 외부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침투에 대한 대응 결과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일본제국주의는 서구와는 다른 성격의 특수한 제국주의를 형성시켜 나갔으며, 하나는 천황제이고, 또 하나는 군국주의였다(박태준, 1999 참조).

한편 식민지 획득의 동기와 과정, 그리고 식민주의의 작동 속도에서 본 일본 제국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조선 지배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정치·군사적인 동기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둘째

조선을 향한 일본의 침투는 신속하고도 분명하였고, 셋째 조선을 읊아맨 일본제국주의의 밭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히 조였다. 즉 일본은 식민통치 초기부터 갖고 있던 식민지에 대한 관점과 식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었다(이옥순, 2002:29~32).

1895년 일본이 청·일 전쟁의 종결로 서구 식민국의 대열에 합류했을 때 아시아·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지역은 서구 식민국이 이미 점령한 상태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일본은 인접한 나라들을 합병하였는데 이와 같은 식민지와는 지리적 근접성은 일본과 식민지와는 교통과 통신을 신속하게 하고, 본국에서 일본인의 식민지 이주를 용이하게 하였다. 식민지 조선은 면적이나 인구에서 일본보다 열세였고, 무엇보다 두 나라 사이에는 영국과 인도의 관계와 달리 상당한 문화적·인종적 유사성이 있었다. 이러한 조건은 일본이 조선을 직접 통치할 수 있는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했다(윌글, 33).

## (2)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식민 정책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동양에 관한 강대국으로 도약하여 세계적 강대국을 향해 진군을 시작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적극적으로 그 보다도 노골적으로 조선반도를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 희생시키려고 여러 가지 권모술책을 사용하였다(朴衡秉, 1926a:56). 이에 일본은 친일적인 조선인들을 동원하여 조일수호조약·한일신협약을 맺음으로써 결국 1910년에 한일합방을 실현시켰다.

이와 같이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고 정치적·경제적·문화적으로 전제적인 동화정책을 실시하였다(강만길 외, 1994; 김운태, 1990; 이이화, 2004). 동화정책이란 조선민족의 주체의식을 빼앗고 일본

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민족 말살정책을 말한다(김운태, 1990:48).

일제는 일관되게 조선반도를 일본에 동화시키려는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시기별로 맥락에 따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달랐는데, 그것을 네 시기로 구분하여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0)</sup>

#### 1) 1910년대 억압과 수탈의 무단통치정책

일제는 조선을 합병하고 나서 그 지배기구로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는 한편, 조선민족의 광범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강력한 헌병경찰력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왜냐 하면, 일제는 군사력으로 조선에 대륙진출의 전진기지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일제의 침략에 대한 우리 민족의 격렬한 저항으로 군사 통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식민지 지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강만길 외, 1994:112).

1905~10년 사이에 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데에는 격렬한 저항이 따랐기 때문에 일본 식민지 개척자들은 조선을 통치하는 첫 10년 동안 고압적인 ‘무단정치’를 감행했다. 총독부는 조선 사회 위에 군림하여 위압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권을 행사했으며(김동노 외 역, 2001: 215~216), 군인·헌병·경찰만이 아니라 문관까지도 권위의 상징으로 칼을 차고, 남자 교사는 소학교에서 여학교에 이르기까지 검을 찼다(박경식, 1986:52~53).

---

10) 시기별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변화는 주로 강만길 외, 1994, 한국사 13, 한길사를 참고하였다. 앞글의 세 시기 중 세번째 시기를 둘로 나누어 네 시기로 만들었다.

## 2) 1920년대 문화정치를 내건 분열통치와 수탈의 강화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제는 그 때까지의 식민지 지배정책이던 무단통치를 문화정치로 전환하였다. 일제가 통치정책을 전환하게 된 일본의 국내적인 배경으로는 우선 일본자본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시 경기로 미증유의 공업발전을 이루었으나 대전이 끝나자 일대 불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일본 국내 정치의 변화도 통치정책을 전환시킨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1918년 쌀 소동을 계기로 정국이 전환되어 정당내각의 하라 다카시가 수상이 되었으며 국민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조선합방 이후 끊임없이 계속된 한민족의 항일독립운동과 그 집약으로서의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3·1운동 후 조선총독부는 이른 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3개의 조선인 발행 민간신문 - 朝鮮日報(1920.3.5), 東亞日報(1920.4.1), 時事新聞(1920.4.1)을 허가하였다.

문화정치란 경찰제도나 지방제도 등의 제반개혁을 통하여 헌병 중심의 노골적인 무단통치를 보다 세련된 모습을 갖춘 경찰 중심의 정보정치로 바꾸고 친일세력을 육성해 탄압과 회유를 강화하는 한편, 개발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통하여 수탈과 지배를 심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일제로의 동화를 달성하고자 한 것이었다(강만길 외, 1994:159).

## 3) 1930년대 민족말살의 皇民化정책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초에 걸친 경제공황, 특히 장기적인 농업공황에 의한 식민지 조선 농업의 황폐, 농민의 경제적 몰락의 심화와 조

선민족 해방운동의 고양에 따른 조선인과 일본제국주의와의 계급적·민족적 모순의 격화는 일본제국주의 지배자에게 지배정책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1931년 9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중국대륙 침략이 시작됨에 따라 조선은 종전의 産米수탈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로서 뿐만 아니라 전쟁수행을 위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군사적 파쇼체제를 확립하고 內鮮一體·황민화정책을 강화하여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이와 동시에 대륙병참기지, 日·鮮·滿 블록경제, 농공병진정책의 구호를 내걸고 군수물자 자원 확보를 위한 군수산업의 개발을 통하여 조선의 식민지적 예속화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조선민중을 착취하고 자원을 약탈하는데 광분하였다(박경식, 1986:334).

#### 4) 1940년대 병참기지정책의 극한

만주와 중국 그리고 동남아까지 점령한 일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일본의 대제국으로의 비상을 견제하는 미국과의 일전을 벌여야만 하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내·외지를 불문하고 전쟁총동원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다.

동화정책은 합방 이후 시종 일제지배의 기본방침이었으며 전쟁동원이라는 절박한 목표 하에서는 더욱 극단화되어 이른바 황민화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즉 일본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침략하던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의 태평양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15년 전쟁 하에서 조선은 전쟁수행에 불가결한 대륙병참기지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적·물적인 전쟁동원체제의 구축이 진행되면서 조선에서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는 한편 정신생

활까지도 지배하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행되었음은 일제식민주의 동화정책의 당연한 귀결이었다(김운태, 1990:50).

### 3. 일제강점기의 조선 공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조선강점으로 나타난 조선 공간의 특징과 지리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청과 조선의 접이지대: 間島

국가의 영역은 한 국가의 지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획정하고 넘어가야하는 요소이다. 그러나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항존 만큼이나 영역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의 주변국과의 끊임없는 갈등은 영역 획정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의 영역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역사적으로 변천을 거듭해 왔다.

고구려와 발해가 자리 잡았던 만주는 새로운 영역 획정을 기다리고 있던 땅이었다. 그러나 청과 조선은 이 땅을 자기 영토로 영속화시키지 않고 두 나라 사이에 끼인 섬이라는 의미에서 ‘간도’라 부르고 있었다. 이처럼 청과 조선이 변경을 간도로 인식한 것은 생생한 역사적 삶의 체험에서 우리나라의 것으로 곧 유의미한 相生의 공간으로서 인식한 것이었다(임지현, 2004:24~27).

그러나 일제강점기를 맞아 일제는 이 간도를 청의 영토로 귀속시키고 말았다. 간도를 相生의 공간으로 여겼던 청과 조선과는 달리 일본에게서 간도란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하나의 흥정거리에 불과했던 것이다. 전

쟁이 영토 때문에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화도 가능한 한 그 땅에 정착한 공동체의 영토적인 '만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은 영토에 대한 야욕 때문에 간도라고 하는 상생의 공간을 허물고 말았던 것이다.

## (2) 조선 공간에 관한 표상 짓기

일본제국주의는 조선반도에 대한 인식을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sup>11)</sup>의 시각에 두고 있다. 국토의 강점, 정치의 장악, 경제적인 착취, 문화적인 동화의 필요성에서 일본은 문명국이요, 조선은 야만국이라는 표상구분이 이루어졌다.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양식이며, 서양에 비추어진 동양이라고 하는 세계가 서양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성'으로부터 생겨난 것(박홍규 역, 1999:역자의 말)처럼 일본은 바로 이 오리엔탈리즘에서 빌려온 것으로 조선을 지배하고 위압했으며 표상을 부여했다. 그래서 조선반도가 어떤 지역성을 가졌느냐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성이 어떤 표상으로 조선지지에 스며들어 있는가도 따져보아야 한다.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표상을 '조선군사령부'에서 조선인의 성격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대신한다(표 3). 일제는 일본민족의 우월성과 조선민족의 상대적 열등함을 줄곧 설파하면서 '동화'를 주장해온 입장에서 일상적으로 아래 내용을 선전하는 경우가 많았다.<sup>12)</sup>

11) 에드워드 사이드(E. Said)에 의하면(박홍규 역, 1999), 오리엔탈리즘이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실체이기도 한 동양과 서양이라는 장소, 지역 또는 지리적 구분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이란 우리들의 세계와 다른 점이 일목요연한(또는 우리들의 세계와 대체될 수 있을 정도로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지'나 '목적의식' 그 자체이다.

12) 田中徳太郎, 1943, <朝鮮人ノ思想ト性格>, 朝鮮軍司令部를 변은진, 2004, 일제 식민통치

표 3.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표상

일본인	조선인
<p>정직 · 성실. 사상이 단순. 관찰이 천박.</p> <p>동정심 많음.</p> <p>의협심 풍부.</p> <p>감사 · 보은의 생각이 강함. 충군애국의 생각이 치열. 희생봉공의 마음이 왕성.</p> <p>의무 관념이 강함. 悠久性 풍부. 천황에 대한 신념. 공공을 위해 私를 버리고 단결로 목적달성에 노력. 양기. 명랑 · 정직. 허세가 없음. 겸양 · 분수를 앎. 公私구별. 공정 · 청렴. 敬信의 생각. 神의 실재 인정.</p> <p>우월감. 對者 연구에 노력치 않고 獨善心이 강함. 일반적으로 강하며 비밀을 누설하지 않음.</p>	<p>부정직 · 불성실. 사상 복잡. 인심의 기미를 살핌. 파악 · 조종이 교묘.</p> <p>동정심 결여.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친절을 다하지 않음. 타산적. 강자에 아첨 · 영합하고 약자는 고려치 않음.</p> <p>감사 · 보은의 생각이 희박. 충군애국 · 희생봉공 결여.</p> <p>의무 관념과 책임 관념이 박약함. 영원에 대한 생각이 없고 일시적 · 고식적. 단결심 결핍. 모임 안에 모임을 만들어 상호압투. 음기. 책모적. 허세적. 겸양의 미덕이 적고 오만함. 공사 혼돈. 기강문란의 풍습. 경신의 생각 희박. 오로지 유교에 심취하여 형식을 좇음. 신앙심 없고 정신적 道義 관념 결여. 대자의 성격 · 신념을 알려고 노력함. 비밀을 과장하고 누설하기 좋아함. 의논을 좋아하는 性癖. 의혹감 있고 시기심 강함(유언비어).</p>

출처: 변은진(2004:449)

의 성격과 조선인 군사동원,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비교>(강만길 외), 선인, p.449에서 재인용

### (3) 공간 통합이라는 허상: 무너진 울타리 이론

조선반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 귀속시키고자 했던 일제의 동화정책은 다른 한편 우리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말살하여 민족의식을 마비시킴으로써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었다(강만길 외, 1994:112)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간에 반영된 일제의 식민지 정책도 역시 일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토 공간구조로 전환시키는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로의 개수, 철도의 부설, 항만의 설치 등을 통해 교통을 발달시키고, 일본인의 집단거류지를 조성하고 우편국, 전화국 등의 통신시설을 정비·설치하여 중심(일본)과 주변(조선)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또한 학교를 세워 언어, 문화,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동질화함으로써, 결국 일본과 조선이라는 경계선을 허물고 內地와 外地라고 하는 하나의 영역적 통일체, 즉 일본과 조선의 공간 통합이라는 결과를 도출해 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통합의 시도는 테일러(Taylor)가 제국주의를 중심과 주변간의 지배관계라고 한 정의(이재하, 1993)에 위배되는 공간논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중심-주변 관계가 강화될 뿐이지 그것이 통합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공간 통합의 논리는 일본의 이익을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일제는 일본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의 수탈에도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식민지’라는 정치적·경제적 용어 대신 법적·행정적으로는 ‘외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외지란 일국의 영토 중에서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전국적인 보통 통치방식의 주요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외적 통치가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지역을 말하며, 이러한 예외적 통치하에 있는 ‘人域’, 즉 외지에 본적을 둔 일련의 臣民을 ‘외지인’이라 규정했다. 외지인도 조선·대만 등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신분상의 취급이 달라졌

는데, 법률상 ‘조선인’이란 조선에 본적을 둔 제국신민으로 규정했다.<sup>13)</sup> 이 용어 규정에 의하면 일본과 조선의 공간통합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자국의 국경 밖에서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독일인을 포함하는 국경선의 재획정, 즉 독일 민족의 문화적 공간을 단일하게 만드는 자연적인 생활공간의 확대를 기획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공동의 원칙으로 결합된 대규모의 영토 집합체, 즉 ‘汎 이념’(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범아시아주의)을 추구하여 민족국가(제국)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세우기를 원했다. 이와 같은 생활공간의 확대와 대규모 집합체의 형성은 자민족 중심의 공간통합에 주력하여 타민족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오히려 공동의 안녕이 파괴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이 내건 대규모 영토 집합체, 즉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공간 통합도 그야말로 환상에 그치는 기획이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 (4) 조선 공간 구조의 변화와 조선 공간 인식

일본제국주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약소국이던 조선을 식민지로 삼고 그 이익을 영속적으로 누리기 위해 정치·경제·문화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였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완전하게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무단으로 조선을 다스렸으며 또한 조선인을 차별하였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조선의 부와 이권을 철저히 수탈하기 위해 조선을 식량공급지, 독점적 판매시장, 병참기지, 노동력 공급기지로 만들었다. 셋째 문화적으로는 조선어와 한글, 조선역사와 지리, 조선의 전통과 풍습을 말살하

---

13) 松岡修太郎, 1944, <朝鮮行政法提要(總論)>, 東都書籍, pp.5~11를 변은진, 2004,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과 조선인 군사동원,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비교>(강만길 외), 선인, p.438에서 재인용

려고 하였다(김운태, 1990; 최유리, 1997; 신용하, 1998).

대륙과 해양의 교량적 위치라는 이점을 가진 조선반도를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삼았던 것을 비롯하여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량과 광물과 기타 공업원료의 공급지, 농업·공업·전쟁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지이자 동시에 일본 제품의 소비지, 언어·종교·제도 등의 문화 이식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일제강점기 조선의 공간구조는 그 이전의 조선시대 공간구조와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자본주의는 자신만의 독특한 공간성(spatiality)을 발달시키는데, 이는 자본주의에 의해 확립되고 팽창되는 자본주의화 과정의 필수요소이기도 하다. 자본 축적은 이윤을 창출케 하는 생산에 의해 가능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새로운 공장과 광산, 새로운 교통체계,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 건설을 필요로 한다.<sup>14)</sup> 즉 경제적 수탈을 위한 자본의 투입은 조선반도에 새로운 공장과 광산, 새로운 교통체계를 발달시키고 기존의 조선인 거주지와 분리된 새로운 일본인 거주지를 건설함으로써 조선의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조선공간은 일제의 독점자본주의의 영향을 고스란히 간직한 조선만의 독특한 공간구조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공간 구조의 변화를 두고서 일제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하였고, 그 도구 중의 하나가 지리서나 지리교과서였다. 이렇게 조선지지에 기술된 조선의 변화된 공간 구조는 이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많은 독자들에게 조선에 대한 편향된 혹은 왜곡된 인식을 심어 주었던 것이다.

---

14) Hudson Ray, 1990, "Re-thinking regions: some preliminary considerations on regions and social change," in R. J. Johnston, J. Hauer, G. A. Hoekveld(eds), *Regional Geography: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London and New York, p.78를 손명철(1994:138)에서 재인용

### Ⅲ. 일제강점기의 지지적 맥락과 조선지지

본 장에서는 조선지지의 내적인 측면이 되는 학문적 배경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지학을 간단히 정리하고 일제강점기의 지지적 맥락을 서구와 일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것의 조선지지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 1. 지지기술의 기초: 地誌學

##### (1) 지지학의 연구 방법

지지학이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라는 이원적인 연구경향을 한데 묶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연구하는 지리학의 한 방법론이다. 계통지리학이 지역의 공통성에 주목한다면 지지학은 지역의 특수성에 주안점을 둔다(菊地一郎·北島潤一, 1992:1 ~2). 한편 지지학의 대가인 라우텐자흐(H. Lautensach, 1886~1971)는 지지학을 지리학의 핵심으로 보고, 지지학적 일반화의 두 가지 과제 중에서 하나를 지역을 분류하는 것에서 찾았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지리학자 후지오카(藤岡謙二郎, 1914~1985)는 지지의 궁극적 목적이 지역구분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지지학은 지역의 특수성을 연구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역을 구분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지지학은 지역의 특성을 지리 요소별로 분석하고, 이것을 지역 구분된 각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체지역에 관한 지지를 구성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이에 덧붙여 세부적으로는 일반지리학과 지지학의 공통적인 연구방법이긴 하지만, 지역간의 상호비교와 자연·인문의 상호관계를 기술하는 연구방법을 공유한다(菊地一郎

· 北畠潤一, 1991:2).

## (2) 지지학의 연구 대상

### 1) 지역: 지역구분의 전제조건

地域이란 어원상 경계에 의해 구분된 일정한 범위의 지표면을 말한다. 경계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에서 지역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지역구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지역을 정의하는 것은 지역구분의 전제조건이 된다.

영어로 지역(region)이라는 용어는 원래 권위나 권력과 관계가 있다. ‘정치권력은 분명하게 지리적 공간을 조직한다. 공간조직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기관은 지표의 어딘가에 입지하고, 그 권력은 어떤 공간적 범위에 대해 행사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森川 洋, 2004:143). 또 전통지리학에 있어 지역은 중간 스케일을 가진, 특정 지표에 의해 특징 지워진 실재하는 지표 공간 단위이며, 지리학은 이 공간 단위를 기술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독일어권에서도 실재하는 지표 개체의 내용에 일치하는 지표면의 경계설정을 통하여 구분된 개개 지역의 개성을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인문지리학의 목적이었다(윗글, 144).

또 한편으로는 지역은 실재하는 공간 단위일 뿐 아니라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개념이기도 하다. 하트슨의 지역 개념이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즉 지역은 지표면을 인식하는 수단이며, 그 경계는 특정 기준에 의해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 2) 지역구분의 지표

지리학은 지역구분을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지의 白眉라고 한다. 지역구분을 하고서 선정된 지역 전체에 대한 지지를 기술하든지, 또는 전체지역을 하위지역으로 세분하여 그 각 세분된 단위 지역에 대한 지지를 기술하든지 간에 지역구분을 통해 지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單位地域에 따라서는 지역구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역을 구분하려는 인간의 심성과 정치의 효율성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지역이 구분되어 왔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근대의 독일과 프랑스의 지리학자들은 다양하게 지역을 구분하여 지표현상의 지역적 변이와 그 요인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였다(권용우·안영진, 2001:169).

지역구분에 사용된 지표를 정리해보면<sup>15)</sup>, 자연적 요인, 정치적 실체성, 문화적 특성, 경제적 상황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지역구분의 기초로서 지표면의 자연적 특징을 지표로 이용하여 구분한 자연지역구분이 있다. 이것은 지역체계를 구축하는 가장 유용성이 높은 지역구분이다. 지표면의 자연적 특징은 비교적 그 현상이 가시적이고 명백하여 그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자연적 지역체계는 어떤 문화나 경제활동의 분포 등을 배열하고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지지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 정치지역구분이 있다. 정치지역(주로 행정구역)구분의 경계선은 자연지역이나 경제지역의 구분선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선은 인위적

---

15)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 pp.427-429를 참고하였다.

으로 결정된 경우 - 특히 제국주의의 식민지 분할 - 는 자연적·문화적 구분선과는 다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및 기타 지역자료들이 주로 정치적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집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 요인에 의해 지역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문화지역구분이 있다. 특히 종교, 언어, 인종의 지표는 문화를 토대로 하여 지역을 구분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요소로 인식되어 자주 이용되어 왔다. 정주패턴도 문화지역구분의 복합문화요소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의 분포를 지표로 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경제지역구분이 있다. 자원의 분포와 농업 활동들을 지표로 하여 지역 간에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공업과 도시 사회에서는 좀 더 복잡한 요소를 계량적 기법으로 설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 2. 근대지리학의 공간적 맥락

본 연구는 현 상황의 지역에 대한 지리학이 아니라 과거에 써졌던 지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지를 저술할 당시의 공간적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거리의 축소<sup>16)</sup>

1873년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이 나온 이후에 실제 서구에서는 1892년 60일로 세계일주 시간이 단축되었다. 여행 여건의 개선, 세계표

---

16) 박성관(역),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를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준시간의 도입, 철도·전화·자전거·자동차의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교통과 통신이라는 文明利器의 발달에 신속하게 익숙해지면서 실제로 거리의 소멸, 즉 시간(사회적) 거리의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생활공간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엄연하게 따져보면 생활공간의 확대란 것은 과학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공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거리의 축소로 인하여 사회학이 붐비는 도시생활의 근접성을 조사하였다면, 지정학은 제국주의의 엄청난 팽창과 분리에 대해 연구하게 되었다.

국가간 거리의 축소는 유럽의 많은 사람들, 약 3천만 명을 그들의 식민지로 이민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민에도 불구하고 1890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 인구는 3억 7천만에서 4억 8천만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과학기술에 의해 한층 쉬워진 교외로의 팽창은 인구증가와 인구의 도시집중에 의해 이제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열차라는 더 빠른 교통수단에 의해 거리가 줄어들고, 인구밀도가 점점 더 높아졌던 것이다.

사회에 있어서 개인 사이의 ‘실제적 거리’의 축소는 인구증가, 도시의 형성, 통신수단과 교통수단의 수 및 속도의 증가가 낳은 것이다.<sup>17)</sup> 근대는 새로운 거리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이 창조하고 도시화와 제국주의가 중재한 것이었다. 통신과 교통이 전례 없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까지 연장되고,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널리 퍼뜨리면서 동시에 일찍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깝게 했다.

19세기 내내 먼저 유한 계층에게와 다음으로 모두에게 지리학적 지평선이 확대되었다. 기차와 증기선 덕분에 점점 멀리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관광 안내 책자가 나와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도 미리 지적된 표식을 가지고 여행하고자 하는 ‘평범한’ 여행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었

---

17) Durkheim, E., 1893, *The Division of Labor in Society* 의 내용을 (박성관 역, 2004:535)에서 재인용

다. 개인의 지리적 인식은 먼 나라를 접해 볼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수단, 즉 책, 신문, 연재소설, 만화, 사진, 영화 등을 통해 먼저 유럽에서 눈을 뜨고 변화되었다. 미지의 세계였던 것은 이제 이국적인 것이 되었고, 이국적이었던 것은 덜 이국적인 것이 되었다(이대희·최연구 역, 1997:30~31).

## (2) 국가의 영토 팽창<sup>18)</sup>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학자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 독일의 지리학자 라첼(F. Ratzel, 1844~1904)은 그의 책 <인류지리학>의 ‘작은 공간에서 큰 공간으로의 진전’이라는 章에서, 전 세계에 걸쳐 과연 어떤 것이 제국주의의 윤리적 불문율이 되었나를 분명히 단언하고 있었다. 그것인즉 ‘공간은 크면 좋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국가의 공간적 성장법칙’(1896)이라는 글에서, “한 국가의 성장은 좀 더 작은 단위들의 혼합에 의해 진행된다. 국경은 국가의 주변 기관이다. 성장하는 국가는 해안선, 하상, 천연자원 같은 값진 부분들을 취하기 위해 애쓴다. 영토 팽창에 대한 최초의 자극은 외부, 즉 더 고등한 문명에서 하등한 국가 쪽으로 가해진다. 영토를 확장하려는 경향은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거쳐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강화된다.”고 하였다.

라첼은 넓은 영토가 갖는 몇 가지 단점, 즉 인종적 갈등, 창조적인 교화의 빈도 수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을 찬양하였다. 이런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시점까지 독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지정학자들이 지녔던 공간에 대한 태도였다. 물론 팽창과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정학자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경향이 엄

---

18) 박성관 역,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 휴머니스트, pp.542~572를 주로 참고하였다.

존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크기를 국가의 정치적 강대함과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대담함, 개방성, 멀리 내다보려는 경향 같은 개인적 특성과 동등시하였다. 영토의 확대는 국민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정부의 참견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기술이 방대한 제국의 진출과 수탈을 크게 촉진시켰고, 영토 공간의 지배는 국가적 위신에 필수적이며, 그런 지배는 도덕적으로 옹호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전제와 가치관,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간의 쟁탈전은 결국 전쟁으로 귀결될 것이고, 특히 ‘處女地’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때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각국은 공유하고 있었다.

각국의 정치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행동방식과 그에 대한 합리화 방식도 서로 달랐지만 근본적인 가치관과 장기간의 목표는 같았다. 모든 나라는 유기체처럼 성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영토 팽창에 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정책들이 공간의 지배라는 공통의 가치관 속에서 형성되었다. 당시에는 성장과 국력 강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서는 어떤 지도자도 권좌에 오르거나 권력을 유지할 수 없었다. 물론 제국주의에 대한 반대는 존재했지만, 반대자들은 국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으며 제국은 그대로 성장해 갔다.

### 3.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지지적 맥락

#### (1) 서구 근대지지학<sup>19)</sup>

---

19)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안영진·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pp.554~567;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법문사를 참고하였다.

1870년대 독일의 대학에서 지리학 전문 강좌가 개설되면서 서구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자들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시대를 일컬어 신지리학(New Geography)의 시대라고 한다. 당시의 지리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 현상들 간의 상호 연관된 통일체로서의 지표면에 관한 연구’였다. 이후 이런 정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세분화된 현상을 연구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자연적인 현상들의 집합체로서 지구를 연구하는 것과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지구를 연구하는 것으로 분리가 일어났다.

따라서 지리학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라고 하는 분야로 양립하여 독립된 학문분야로서의 정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두한 개념이 바로 ‘지역’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런 지역 개념의 등장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를 지역에서 통합시키려는 지리학<sup>20)</sup>의 부활을 의미하였다.

지리학은 독일에서 1877년에 <중국연구> 제1권을 간행하고, 1883년에는 라이프찌히(Leipzig)대학 교수취임 연설에서 지리학의 과제와 방법론을 밝힌 리히트호펜과 1906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 대학에 정교수로 취임하여 1920년대 지리학의 기초가 되는 주요 저작을 남긴 헤트너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의 비달의 지역(pays) 개념에 의해 크게 발전하였다. 이에 이들을 비롯한 관련 지리학자들의 연구관점을 정리함으로써 서구 근대지리학을 서술하고자 한다.

#### 1) 리히트호펜(F. von Richthofen, 1833~1905)

독일에서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리히트호펜이 지리학(Landeskunde)의

---

20) ‘지역학’이라고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용어의 통일상 지리학이라고 하였다.

기초를 닦았는데, 이는 특히 훔볼트의 자연의 관찰, 즉 자연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관한 연구 틀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리히트호펜의 견해에 따르면, 지리학의 뚜렷한 목적은 지표면상에 상호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며, 지표면상의 어떤 지역에 관심을 두든지 간에 지리적 연구가 유용하고 믿을만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적 특징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그 다음 지표면상의 다른 특징들과 기초적인 자연적 배경과의 관계를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지리학의 최상의 목표는 인간과 자연계, 그리고 자연적 특징을 고찰하고 또한 연관되어 있는 생물적 특징과 인간과의 관계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리히트호펜은 발견의 시대를 거치면서 지리학에 부여된 과제는 세계 각지에 대한 풍부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가공하고, 점점 증가하는 다양성 속에서 이를 통일적이고 과학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학문 원리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리학의 대상을 자료에 의거하여 구분해야 한다는 많은 학자들과는 달리 ‘지표면’을 지리학의 중심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지리학을 ‘지표면과 또 그것과 인과적으로 관련된 사물과 현상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하였다.

이렇듯 리히트호펜은 지리학의 기본과제로 우선 각종 계측 및 관찰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두 가지 서로 다른 정리체계를 도출하고 있는데, 그 하나는 지식을 지표면에 의거하여 나누고 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거나 기술하는 ‘특수지리학’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식을 대상과 현상에 따라 구분하고 계통적으로 연구하는 ‘일반지리학’으로서 분석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그는 이 두 관점을 통합한 제3의 방법으로 코롤로기(chorologie)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지표면상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들을

일정한 영역에 의거하여 분류해 정리하고, 지표면과 영역들 간 및 영역들 상호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현상의 6가지 요소로서 지형, 물, 대기, 식물계, 동물계, 인간을 언급하였고, 이 중 인문에 해당하는 인간에는 인구, 인종, 언어, 취락, 산업, 종교, 무역중심지, 생산품 등의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문화뿐 아니라 역사적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다.

## 2) 헤트너(Alfred Hettner, 1859~1941)

헤트너는 리히트호펜이 주장하였던 코롤로기의 개념을 더욱 발달시켰으며, 두 권의 지지도 저술하였다. 1907년에 유럽에 관한 지지를, 1924년에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 관한 지지를 발행하였다.

헤트너의 지리학은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 연구란 단지 지역을 記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방법론을 이용하든지 또는 종합적인 방법론을 이용하든지 간에 지역에 관해 說明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는 지리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지역을 구분하여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야외에서의 관찰이 지리적 연구의 가장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헤트너에 있어 지리학은 단위지역을 정의하고 기술한 후 귀납적인 비교방법에 입각하여 지역들을 비교하는 학문으로 지표면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호연관성에 대한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여, 이르기를 개별적인 현상의 분포자체는 그 지역의 특성을 결정짓는데 중요하지 않으며, 다른 현상들과의 상호관련성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지지연구는 단위지역(raum)을 결정해 놓고, 자연이 인간생활

을 규제한다는 전제하에서 지지의 연구방식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자연 현상을 분석하고 난 후 인문현상을 고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위치, 지질, 지형, 기후, 식생, 천연자원, 취약발달과정, 인구분포, 경제형태, 교통로, 정치적 구분 등의 주제 순으로 전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들은 인과관계의 연속적인 형태 속에서 검토되었다. 그러나 실제 그의 지지에서는 각각의 주제들을 자연적 배경과 연관시켜 고찰하였지만 개개의 주제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으로써 이 지지는 후에 본질적으로 너무나 기술적이었고, 지표공간의 모든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받게 되었다. 지리학은 어디에서 어떤 산물이 나는가를 알려주는 분과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이런 현상은 20세기 중반까지 계속되었다.

헤트너는 20세기 첫 30여 년 동안 독일지리학계를 주도하는 인물이었다. 만 큼, 그의 지지학적 연구는 실제로 리히트호펜과 함께 많은 지지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가운데 가장 전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뉘른베르크 대학 교수였던 그라트만(Gradmann, 1931)<sup>21)</sup>의 남부 독일에 관한 지지였다. 이는 6가지 기본요소 - 지형, 수문, 기후, 식생, 동물, 인간 - 을 중심으로 한 지역 분석에 기초하고 있었다. 헤트너는 이와 같은 地誌圖式을 지역분석적 지지연구의 준거로 제시하였다. 즉, 자연적 특성에서 출발하여 인공으로 끝을 맺는 것이었다. 자연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에서 나타나는 지역성을 주제도로 표현하는 것이 일종의 종합을 가능케 한다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나중에 이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결국 헤트너는 지표면의 제현상 상호간의 인과관계와 개별 지역 상호간의 결합·조립관계를 코롤로기적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을 地誌라고 보

21) 그라트만은 헤트너의 제자이었지만 남부 독일의 지지 연구 이후에는 오히려 슐뢰터의 영향을 받아 경관론에 심취하였다.

고, 지지의 완성이 곧 지역의 본질(wesen)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이런 지지학의 방법과 본질은 리히트호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 3) 슬뤼터(Otto Schlüter, 1872~1959)

1906년 슬뤼터는 지리학자들이 지표면의 가시적 현상에 의해 창출된 형태와 공간구조를 지리학의 통일적 연구주제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20세기 초반의 경관학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로부터 산맥과 하천, 초지와 산림, 도로, 운하, 농장, 경지, 마을, 도회지가 지리학자의 눈에는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실체 - 가시적 경관(visible landscape) - 으 로 이해되었고, 지리학자들이 연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가시적 경관은 자연적 조건과 그 힘의 결과이며, 인간 활동과 그 작용의 표출인 것이다. 경관 그 자체는 하나의 종합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문 및 자연 지리는 같은 대상, 즉 가시적 경관을 갖고 있으며, 또한 방법론의 관점에서도 양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인류 집단이 지표면에 남겨놓은 것, 즉 지표면에 속하는 것의 발생과 추이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슬뤼터는 독일 각 지역의 촌락을 관찰하고 그 촌락의 형태와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취락지리학을 하나의 계통적인 지리학의 분야로 독립시켰다. 그는 지표면상에 나타난 자연이란 거의 인공적인 면이 가해져 변형된 자연<sup>22)</sup>이기 때문에 자연과 인간과의 결합형태가 곧 경관이며, 그것은 취락에 응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경관은 분석되고 또 종합될 수 있는 대상이며 가시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 · 인종적 · 심리적인 비물질적인 현상들도 이들이 경관

---

22) 자연경관(원시경관)이 문화경관으로 변해가는 형태, 즉 문화경관의 형태를 말한다.

의 형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경관의 진화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고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4) 하트손(Richard Hartshorne, 1899~1992)

하트손은 자기 생각의 많은 부분을 독일지리학자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저작, 특히 헤트너의 저작을 접하면서 발전시켰으나 그의 지리학의 위상에 대한 결론은 헤트너와 상당히 달랐으며, 이는 미국지리학에 독특한 지리학적 전통을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분석에 있어 실증적 경험을 강조하는 학풍을 형성하도록 했다. 당시 사우어는 이와 다르게 경관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 인간의 역사적 역할을 보다 강조하고 있었다. 하트손과 사우어는 지리학을 공히 장소 또는 지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였지만, 사우어가 지리학에 관한 해석에서 장소의 미적 그리고 주관적 이해에 큰 관심을 가졌다면, 하트손은 이를 그렇게 객관적인 것이라 할 수 없고 과학 밖에 있는 것이라 하여 거부하였다.

하트손에게 있어서 지역차로서의 지리학은 지표상에 상이하게 나타나는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각종 현상이 구조적으로 상호 통합되어 형성해 놓은 지역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하트손은 지리학의 본질이란 개별적인 요소들로 분리할 수 없는 복합, 즉 요소-복합(element-complex)들의 중첩이 지역적 차별화(areal differentiation)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이 요소복합을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인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계통학문의 요소별 지식은 지역적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권정화, 2001:85~86).

하트손은 지지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특정한 지역에서 현상들 간의 실제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

해서는, 첫째 그 지역을 보다 더 작은 하위지역으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 지역 내에서는 국지적인 변이를 무시하고, 둘째 각 단위지역과 서로 다른 지역을 관련시켜서 더 큰 지역의 구조적·기능적 형태를 발견하며, 마지막으로 한 지역과 서로 다른 지역간에 현상들의 배열과 한 지역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다른 지역들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들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트손에게 있어 지역이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에 위하여 임시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였다. 지리학자가 일정한 영역 내에서 문제 삼고 있는 현상의 종류에 따라 그 관련 주제의 수를 선택적으로 한정시킴으로써 지역이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세계에 관한 지역 구분 방법들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특정한 요소만을 고려한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을 분류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지역이란 다양한 많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 지역구분은 다른 요소에 의해 결정된 지역구분과 일치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역구분의 지표를 선정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장소 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어야 하며, 둘째 변이가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 즉 현상들 간의 공간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한 요소의 변이가 다른 요소들의 변이와 인과적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서로 다른 현상들이 그 장소에서 서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트손은 실제 야외조사를 통해 지역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일과 단일주제지역 간의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수주제지역의 이해라는 지역연구의 핵심적 목표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또한 하트손은 지지를 한권도 기술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5) 비달(Vidal de la Blache, 1845~1918)

프랑스는 프로시아와의 1870~71년의 전쟁으로 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패전으로 알사스-로렌 지방을 빼앗겨 영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프랑스 지리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비달에 이르러 신지리학으로 발달하게 되었다.

비달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밀접하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을 인간에 대한 자연의 영향으로부터 구분할 수 없다고 보았다. 兩者의 영향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시간을 통하여 국지적 생활양식 (genre de vie)은 자연적 낯실과 사회적 씨실로 짜여진 망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자연과 인간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수세기에 걸쳐 발전되어 온 장소, 바로 지역을 형성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독특한 각 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지리학의 임무라고 주장함으로써, 이러한 견해가 그의 지리학적 연구방법론임을 알 수 있다.

비달의 지리학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인류와 자연의 제 관계를 인문지리학의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리터(Ritter)가 자연과 인류사이, 무대와 역사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리학의 주제로 삼은 전통을 계승한 것이기도 했다. 둘째로 라첼(Ratzel)의 영향을 받은 관점으로 종의 분포와 변화를 생물지리학적 방법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비달 지리학의 핵심적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시하고 이 관점에 입각하여 지역현상을 취급하는 역사적 방법을 확립한 것이다. 따라서 귀납적이고 역사적인 비달의 방법론은 주변의 세계와 다소 고립되어 있으며 농업적 생활양식이 지배적이라는 의미에서 국지적이었던 제지역을 분석하고 탐구하는데 적합하였다. 이 접근방법은 유럽에서 산업화나 도시

화의 격변을 실질적으로 크게 받지 않은 지역에 적절하였다. 반면에 19세기 이래 산업혁명을 경험한 지역을 연구하는 데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못하였다.

비달 지리학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요약될 수 있다. ① 지리학은 지표면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리히트호펜의 방법으로부터 온 것이다. ② 지리학의 독자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타과학과 구별하여 지리학을 독립과학으로 정립하려고 한 것이다. ③ 지리학이란 지적통일성(Unite terrestre)의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다. ④ 지리학은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Miliu)의 힘을 인식하는 것이다. 생물지리학의 방법을 응용하여 환경과 인류의 적응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⑤ 지리학을 연구함에 있어 인류 집단, 즉 사회 집단을 강조하였다. ⑥ 지리학에 生活樣式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⑦ 지리학을 지표면상의 다양한 결합체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학문으로 보았다.

비달에 있어 지지의 목적은 지역의 유형을 분류하면서 상호 결합되어 있는 모든 현상을 종합화하는 것이었다. ‘지역을 기술하는 지리학’은 비달리안 전통의 주축이었다.

## 6) 통합 고찰

근대 지리학 이후 지지학의 계승과 발전은 신지리학의 시대로 이름이 붙여진 전문적인 지리학자들의 몫으로 넘어갔다. 리히트호펜, 헤트너(슐뤼터)로 이어지는 독일지지학과 비달이 중심이 된 프랑스 비달학파의 지리학을 중심으로 지지학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지역 구분의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사례 지역의 지지를 기술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들의 지지학의 대상은 ‘지역’이었으며, 그 목적은 지표면 제 현상 간

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특히 거주지로서의 지표면에 관심이 많았다. 지역 개념을 이용한 지리학 연구, 즉 지리학 연구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분리되었던 지리학의 이원화 문제를 해결할 방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지역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전제하여 단위지역을 확정하고, 지역간의 비교를 통해 해당 지역의 특성을 기술할 뿐 아니라 지역의 제요소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고, 지역의 생생한 자료를 구득하는 방법으로서 야외조사를 중요하게 여겼다.

지지를 서술하는 방식은 지지 구성의 6요소 - 지형, 수문, 기후, 식생, 동물, 인간 - 를 기본으로 한 지역성에 대한 기술과 다양한 요소들 간의 인과론적 설명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부연하면, 전체 지역을 일반적인 지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기술한 후 자연과 인문 요소로 기준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하위 지역 또는 경관을 사례로 지리요소의 복합적 상호관련성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리히트호펜, 헤트너로 이어지는 지지도식의 영향을 크게 반영하여 나타난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발행된 지지는 그 발행목적에서 이전의 지지와 다른 경향이 있었다. 양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탄생한 지지는 민족의 계몽과 국가 영토의 확대라는 지정학적 관심이 증대됨으로 인해 지표면 자체에 대한 지리학적 관심보다는 그것의 정치경제적 의미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1930년대에는 ‘경관’ 개념이 또 하나의 지지전통으로 정립되고 있었다. 특히 라우텐자흐는 지리적 형태변이론을 통해 독특한 지지방법론을 기술의 관점에서보다는 연구의 관점에 접근하였다. 과거 지리학의 중심개념이었던 지표면을 새로운 중심개념인 경관으로 대체하고, 지리학의

본질은 경관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던 것이다.

## (2) 일본의 지리학

일본의 근대지리학은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서구의 그것과 아주 유사하다. 이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이 서구의 문명과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나타난 일본 근대지리학의 모습이다.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 다나카(田中啓爾, 1885~ 1975)<sup>23)</sup>를 통하여 일본 지리학의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지리학의 정의

그는 지리학의 핵심을 물리·생물학적인 천연의 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것, 즉 인류의 생태학을 논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는 지형, 기후 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시에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응과 지리적 영향, 지문적 제약에 대한 생물과 인간의 반응, 이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田中啓爾, 1933b:923). 이와 같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는 그가 지리학의 고유 임무로 본 지역성의 규명과 관계한다. 따라서 지리학에서는 지리적 현상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종합적 고찰을 조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그 조화의 도가니 가운데에는 자연성과 인문성과의 상관, 교호작용, 인지상관, 인인상관 등의 이론이 용해되어 있다고 하였다(田中啓爾, 1936).

---

23) 지리학의 대가로 불리는 다나카(田中啓爾)는 미·영·불·독에 유학하고 1923년 돌아와 동경고등사범학교 교수가 되었고, 이후 입정대학 강사 겸 동경문리과대학 교수로 활동하였다.

## 2) 일본 지리학의 진보

1923~33년 사이 일본의 지리학은 확실하게 진보하였으나 아직 외국서의 번역 수준을 탈피하지 못하였던 점(田中啓爾, 1933b:923)은 그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지리학이 서구 유학파에 의한 외국지리학의 수입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다나카는 1933년에 발표한 ‘최근지리학의 진보’<sup>24)</sup>라는 논문에서 일본 지리학의 진보를 접근법에서 찾았는데, 종래의 地人相關 접근법에서 최근의 人地相關(인문지리학적 현상과 종래의 자연지리학적 현상과의 관계) 또는 人人相關(인문지리학적 현상과 사회적·경제적 현상 등과의 관계) 접근법으로의 변화가 그것이다.

한편 이 시기에 등장한 신지리학의 특성으로서, ① 지방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인 관점으로의 확대, ② 정치적 구분을 대신하여 自然單元과 地理的地帶에 따라 사물을 표현하는 경향, ③ 인간과 주위상황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술어의 제정, ④ 지리학적 原則의 수적 증가 등을 제시하였다.

## 3) 지리구에 의한 지리학적 연구

실제로 다나카는 ‘일본의 지리구’라는 논문(田中啓爾, 1927)에서 미·영·독·불 등의 여러 학자들의 지리구를 참조하여 그의 지리구론을 전개하였다. 地理的 單元(Geographical Units=종합지리적 단위)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구별하여 고찰하는 것을 과학적 지지 연구라고 보았다. 이는 자연지리적 단위와 인문지리적 단위를 종합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자연과 인문과의 종합적 표준에 따라 지리적 경관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

---

24) 田中啓爾, 1933b, 最近地理學の進歩, <地理學論文集>, 古今書院, pp.923~926.

역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때 그는 지형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다음으로 기후구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였다.

그의 이러한 지리구는 ‘지리학적 연구에 관해서’라는 논문(田中啓爾, 1934b)에서 좀 더 구체화되었다. 지리구 분석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첫째는 지리학적 연구로서 小地理區의 全誌, 즉 소지리구를 연구 단위로 하여 자세하게 조사하고 복합적 제 현상을 분석하고 상관적으로 연구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大地理區의 單一現象誌, 즉 형성가능한 대지리구를 연구 단위로 하여 그 지리적 제 현상 중에 하나의 현상을 선택하고 압출하여 분석하고 단일하게 연구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로서 한 어촌의 모든 현상에 관한 연구와 후자의 경우로서 동해지방의 수산업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러한 대립은 대지리구의 지리학적 연구를 완성하는 방법으로서 각 세포의 중소지리구에 관한 연구를 집적·종합하여 지역성을 규명하는 것과 각 현상의 횡단적 해부의 결과를 집적·종합함으로써 그와 동일한 지역성을 규명하는 것과의 차이점이다. 이것은 등산로는 서로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 안에 정상에 오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지리학적 연구의 대상 지역으로서 어떻게 소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 지역 내에는 약간의 副地理區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상호 대비함으로써 지역성의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하천유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상류·중류·하류로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조선반도의 경우 남북성이 현저하므로 이에 합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다나까는 자연지와 인문지로 구성되는 과학적 지지를 기술할 때의 항목 순서를 언급하였다(田中啓爾, 1934b). 먼저 산업을 설명하고 그 생산의 종류·양·지역과 그 이유를 명확히 하며, 그 다음에 생산품을 유무상

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기관 망에 대해 설명하여 산업과 교통과의 관계를 명료하게 하고 나서야 그 거래 상태인 상업을 상권으로 해서 논한다.

산업의 항목순서는 먼저, 농업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목축업·임업·광업·수산업을 언급하며 최후로 공업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공업은 전기한 공업 이외의 제 산업의 생산품을 원료로서 응용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이 지당하다. 다음으로 주민이 산업, 교통, 상업 등에 의존해 취락을 영위하는 상태를 기술하고, 끝으로 제 현상의 총화인 인구의 분포·밀도·증감·이동 등에 관해 논술한다. 따라서 인구론이 끝에 오지 않는 기술방법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또 인구론이 없는 지지는 결말이 없는 논문과 같다.

그러므로 지지는 인문현상의 지역적 형태의 양식을 인식하고 이것을 분류하는 것도 하나의 임무이지만, 각각 서로 다른 현상을 생기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지형 및 기후 등과의 관계까지 언급해야 한다. 인문과 자연과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은 인문현상의 형성원인을 논하는 것이며, 그것은 인문지의 영역이다. 또 인문현상은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다른 인문현상이 형성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많다. 종래에는 지인상관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인지상관·인인상관이 지리학적 고찰의 주요점이 되었다.

지리적으로 통일된 단원을 형성하는 지역을 지리구 또는 지리적 지역(Geographical Region)이라고 일컫는데, 이것은 지리연구의 대상이다. 지리구의 결정은 예상이며, 결론이다.

#### 4) 조선에 관한 지지학적 연구

다나카는 실제 과학적 지지를 조선에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조선의 인문지지학적 연구-동북·중앙·서남 일본과의 비교’를 <地理教育>지에 1931년에서 1933년 사이에 6회에 걸쳐 연재한 적이 있다.<sup>25)</sup>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농업지지-미작·맥작·두작·잡곡작·서류작·원예농산물재배·공예농작물재배·양잠·목축지역, 농가의 부업, 화전, 농업이민으로서의 내지인, 조선인의 만주 이주, 농업이주민으로서의 지나인, 조선농민의 생활
2. 농업이외의 산업지지-임업·광업·수산지역, 공업
3. 교통 및 상업지지-교통, 상업
4. 취락 및 인구지지

여기서는 조선을 지리구로 하여 인문지지를 산업, 교통, 상업, 취락, 인구 순서로 자연지지와 상관하여 기술하며, 과학적 지지로서 분포 지도를 통해 지역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또한 그는 <初等地理書>(一,二)를 총독부의 의뢰를 받아 1932년과 33년에 걸쳐 편찬하였다. 본서는 종래의 천문·지문·인문으로 나누는 주의를 부정하고, 자연 및 인문의 통일적 대상으로서 분포 현상의 분류로부터 출발하여 많은 사진, 점지도(Dot Map), 그래프(Graph) 등을 삽입하여 조선의 실정에 맞게 편찬한 것이다. 이런 점을 들어 장보웅(1971)은 이 교과서를 우량한 교과서라고 평가하였다. 분포 현상의 지역성을 구명하는 방법으로서 사진이나 지도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에 해당하는 부분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장보웅, 1971: 101).

---

25) 연재내용은 <地理教育> 제13-15권, 즉 1931년 11·12월, 1932년 1·9·10월, 1933년 1월호에 각각 게재되어 있다.

## 제2. 조선지방

1. 위치, 면적, 주민, 구분

2. 지방지

(1) 북부조선 (2) 중부조선 (3) 남부조선

3. 총설

(1) 지형 (2) 기후 (3) 산업 (4) 교통 (5) 상업 (6) 교육 (7) 정치

지역이라는 통일체를 분포 현상을 가지고 밝혀,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점은 서구 근대지리학의 관련이 깊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다니카는 프랑스 지리학자 비달이 보여준 것처럼 분포 현상으로서 지리구를 환경적·역사적인 관점, 즉 지인상관론 또는 인과론의 관점에서 파악하여 지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 인문 현상에 영향을 주는 기초로서 위치, 지형, 기후 등의 자연성 및 역사성을 해명하여 대지리구를 설정하였으며, 또 그 중에서 소지리구로 상세한 분석을 하여 이것들을 伏線으로 해서 산업, 교통, 상업 등의 인문 현상에 관해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 소위 지리적 이법으로서 상관적·인과적 해명을 하고 난 최후에 인구 분포를 모든 인류 활동의 결론으로 서술하는 형식을 취하였다.<sup>26)</sup>

이와 같이 프랑스 비달(vidal)전통의 지리학풍을 갖고 귀국한 다니카에 의해서 종래의 향토지 및 지지기술의 단위로서 정치적 단원이 地理區로 대체되어 당시 일본 지리교육사의 하나의 신기원을 이루는 ‘地理區時代’가 이루어졌다. 지리학적 방법론으로는 자연, 인문의 나열이 아니라 그것의 상호관계의 일반적 通則을 발견하려는 뜻에서 ‘地人相關’이란 말이 유행하였다. 당시 조선에도 다니카의 지지학풍이 지리교육계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장보웅, 1971:103).

---

26) 야마구찌(山口貞雄), 1943,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만근지리학발달사>, 오오사카, p.154를 장보웅(1971:106~107)에서 재인용

### (3)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지지적 맥락

철도와 증기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인 교통수단의 등장은 시간거리를 단축시켰고, 인구와 물자의 흐름을 촉진시켰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地政學的·地經學的 가치가 있는 영토를 선점하게 하였다. 이에 서구의 근대지리학은 국가의 영토팽창에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이 부여됨과 동시에 급격한 진보를 맞이하였다.

서구 근대지리학은 지지구성의 6요소를 기본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개성기술적으로 서술하고, 다양한 요소들 간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단위 지역간 비교연구와 또 야외조사에 의한 자료 수집을 강조하였다.

한편 서구보다 늦게 근대화를 지향한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젊은이들을 서구에 유학시키는 등 서양문물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지리학도 예외는 아니어서 유학생을 통한 서구 근대지리학의 수용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김재완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의 연구(2000a:69~89)에서,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독일의 지역 연구 동향이 일본 지리학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보웅은 다나카를 당시 독일과 세계지리학계의 양대 산맥이나 다름없었던 프랑스 비달 학파의 지지학 연구를 수용하여 발전시킨 사람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일본의 지리구’라는 논문에서도 영·미·불·독의 대표적인 지리학자들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아, 일본의 지지학은 서구 여러 나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결과적으로 조선으로 하여금 서구의 근대 학문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 셈이어서, 이 시기 조선의 학문은 서구 학문의 영향을 비껴갈 틈을 얻지 못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조선지지의 기본 바탕은 당시 유행했던 지지학의 추이와 무관하

지 않았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인 다나카는 전술한 ‘일본의 지리구’라는 논문에서 지형, 기후, 식물대, 인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본의 지역구분을 시도하였던 인물로서, 그는 당시 일본과 조선에서 지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지리구’지리학은 곧 바로 일본인과 조선인이 조선 지지를 기술하는데 이용되었던 개념으로서, 북부조선, 중부조선, 남부조선으로 구분하는 지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실제로 ‘조선의 인문지학적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조선을 지리구로 하여 인문지지를 산업, 교통, 상업, 취락, 인구 순서로 자연지와 상관하여 기술하며, 과학적 지지로서 분포 지도를 통해 지역성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전통지리학의 범주에 의하면(손명철, 2002:152), 일체강점기의 지리학은 이런 유형의 지리학에 해당하며, 이 시기의 지리학은 신지역지리에 비하여 경험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사물이나 현상을 단순하게 기술하였으며, 또한 지역의 특수성은 지역 내의 제 요소들이 다양하게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 때의 지리학은 세계를 인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

## 제2부 사례로 본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 IV. 조선지지의 개관적 이해

#### 1. 조선지지의 일반적인 특징<sup>27)</sup>

##### (1) 텍스트의 저자

저자란 앞에서 밝혔듯이 저작자, 편찬자, 발행자 등 다중의 의미를 가진 용어이다. 따라서 이 용어를 오늘날의 저자, 즉 책 지은이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하다. 당시 도서발행과 관련하여, 館主(출판사주)가 도서관권을 永買하면, 저작재산권은 물론 저작인격권까지 권리를 확보하는 까닭에 책의 물리적 제작과정에서 원저자의 이름을 뺄 수도 있었다. 이 경우 관주는 해당 서적의 권리자로 직접 저작 겸 발행자로 나서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방효순, 2001).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지지들은 근대 조선의 모습을 묘사해서 그에 대한 지리정보를 담고 있다. 지지를 포함한 지리 관련 모든 출판물들은 필연적으로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지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고, 단순화하거나 복잡하게 하며, 또 지역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서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선정하여 책을 편찬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지지에는 저자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이 반영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역의 모습을 결론짓고 더 나

---

27) I-3의 표 2를 참조하십시오.

아가 지역성 기술의 프로세스(process)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조선지지가 누구에 의해 저작·편찬·발행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조선지지를 분석하는 첫걸음이다. 그들의 사회적 활동과 저술활동을 중심으로 저자들을 소개하려고 한다.

## 1) 조선인

### ① <新朝鮮全誌>(1912)의 南宮濬

남궁준은 개화기에 설립되어 일제강점기 초기까지 출판활동을 하였던 唯一書館의 관주, 즉 출판사주로서 <신조선전지><sup>28)</sup>상·하권을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도서를 저작 겸 발행자로서 발행하였다. 1904년에는 데국신문사의 운영과 인쇄의 책임을 맡았고, 1906년 2월 17일부터 1907년 5월 17일까지는 황성신문 제3대 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언론인이었다(정진석, 1990; 방효순, 2001). 그가 관여한 두 신문사는 한말에 민족지를 대표하는, 즉 국민계몽과 국권회복운동으로 항일운동에 적극적이었던 점에서 그의 위치와 역할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관주 겸 언론인이었던 남궁준은 시대에 부응하는 조선지지 편찬의 절박함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 ② <最新朝鮮地理>(1924)의 尹和洙(1885~ ?)

윤화수는 1910년경부터 원산 사립 振聲中學校, 함흥 사립 永生小學校

---

28) <신조선전지>는 1898년 유일서관(경성)에서 발행한 <朝鮮全誌>의 후속편이다.

등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왔으나 1913년 8월에 사직하였고, 1921년 6월에 북간도로 이주하여 용정촌 永新中學校 교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언론에도 관여하여 1928년 2월 용정촌에서 중국인들이 창간한 民聲報<sup>29)</sup>의 조선어판을 담당하여 배일논조로 신문을 제작했다. 그는 또 1922년 12월에 영신중학교 주최로 전도 대강연회를 열었을 때 연사로 출연하였다.<sup>30)</sup>

교사로서, 언론인으로서, 기독교인<sup>31)</sup>으로서 윤화수는 교육·언론·전도 활동에 열성을 쏟았고, 그의 이런 활동은 구국문화운동으로 향해 있었다. 그는 본서 <최신조선지리>외에도 <백두산행기><sup>32)</sup>와 <중등교과 조선역사><sup>33)</sup>라는 책을 발행하였다.

### ③ <朝鮮地理>(1931)의 申明均(1889~1941)

申明均은 한성사범학교 졸업 후 同德女學校에서 교사 생활을 하였으며, 中央印書館을 경영하기도 했다. 초창기 한글학회 회원으로 동인지 <한글>(1927년 2월 8일 창간)의 창간 회원 5명 중 1명으로 참여하고, 1931년에는 張志暎, 李允宰와 함께 조선어연구회를 창립하여 한글의 정리·보급에 힘썼다. 1932년에는 <晉陽誌> 5권을 편찬하여 연계제(진주)에서 발

29) 민성보는 4페이지 가운데 3페이지는 중국어, 1페이지는 한국어로 발간된 간도의 신문이었다.

30) 동아일보, 1922년 1월 8일자, 정진석(1990:576)에서 재인용

31) 윤화수, 1933, 간도의 문화건설과 기독교의 수동(殊動): 변영하든 황금시대를 추억함, <종교시보> 2-1, 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pp.6-7에서도 기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1927년 4월 15일자 조선일보 <신간소개>란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白頭山行記=尹和洙氏著 神秘的 白頭山 紀行文 四六判 二百十餘頁 寫眞 三十餘枚 發行所 間島 龍井村 靑丘活版所 定價 金 一圓”(정진석, 1990:588) 이 책은 1927년 大成社에서 발행하였다.

33) 이 책은 1924년 간도 용정촌에 소재한 永新中學校에서 발행되었다.

행하였다. 그 외에도 한글과 문학에 관한 책들을 편찬하였다. 중요한 것은 <조선지리>(1931)와 더불어 <세계지리>(1932)도 편찬하였다는 사실이다.

④ <中等朝鮮地理>(1946)의 鄭洪憲·李箕燮·李富星

정홍헌과 이부성은 景福中學校에 근무하면서 中央敎員養成所 강사로 활동하였고, 이기섭은 中央中學校 교사였다. 이 세 사람은 중학교 교사로서 <(사회생활과)이웃나라지리>(1950, 서울: 정음사) 공저하였다. 이부성은 <우리나라지리>(1953, 서울: 백영사)와 <(중학교 사회생활과)새로운 다른 나라지리(상)>(1956, 서울: 일한도서출판사)를 편찬하였다.

2) 일본인

① <最新朝鮮地誌>(1912)의 日韓書房編輯部

일한서방은 경성에 위치한 서적출판 합자회사로서 도요가와(豊川善曄)의 <조선향토지리>를 발행하였다. 이 회사의 편집부가 저작자로서 <최신 조선지리>를 편찬하였다.

② <新編朝鮮地誌>(1924)의 히다까(日高友四郎)

히다까는 경성에 있는 朝鮮弘文社에서 875쪽에 달하는 <신편조선지리>를 저작 겸 발행자로서 발행하였다. 이 책에는 조선총독 사이토(齊藤實)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下岡忠治의 題字가 들어가 있다.

③ <朝鮮郷土地理>(1935)의 도요가와(豊川善曄)

도요가와는 경성의 숙명여고보에 교사로 근무하였으며, 1934년에는 興亞堂書店(京城)에서 <京城遷都論>을 발행하였다.

④ <朝鮮新地誌>(1943)의 아사가(淺香幸雄)

아사가는 수원고등농림학교 교수이자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수위원으로서 <조선신지지> 집필에 참여하였다. 그는 <世界の農牧業>(1951, 東京:三省堂)과 <目で見る世界地理: 東아시아편>(1957, 東京: ポプラ社)을 편찬하였으며, <日本の歴史地理>(1966)라는 공저서에 '歴史地理學史と研究方法'이라는 논문을 게재하였다.

3) 서구인

① <韓國誌>(1900)의 러시아 대장성

대장성은 제정 러시아의 행정부서 가운데 하나로서 재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러시아는 1845년 지리학회가 생겼을 정도로 지리학의 제도화가 비교적 일찍 진행되었던 지역이다.<sup>34)</sup> 러시아 정부는 대륙과 북극해로 갇혀 있는 국가의 형국을 대양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부동항을 얻을 수 있는 해안으로의 접근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욕구는 조선에 대한 지지적 관심을 한층 더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

34) 참고적으로 지리학회는 1821년 파리를 필두로 하여 1828년에 베를린, 1830년 런던, 1852년에는 뉴욕에서 각각 설립되었다. 이 당시 지리학회는 학술적인 표현으로 지리지식을 전파했다.

이 책은 제정 러시아가 구한말 한반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위한 정책 자료로 연구한 것으로서, 논문, 보도문, 기행문 등의 다양한 자료와 러시아인이 직접 조선을 답사·탐험한 학술적인 연구지로서 발행된 것이다.

러시아 대장성이 편찬한 КОРЕИ (1900, S-Peterburg, 전3부, pp.1-1256.)를 1984년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韓國誌>(崔璇·金炳璘譯)로 출간하였다. 제1부와 제2부는 구한말 정치·경제·문화·군사·지리 등 각 분야에 대한 연구결과가 실려 있으며, 제3부에는 제1부와 제2부의 각 분야에 해당하는 부록이 수록되어 있어 조선에 관한 총체적인 저술이라 한다.

## ② <코레아>의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 1886~1971)

독일의 지리학자로서 1886년 9월 20일 튀링겐의 고타에서 태어났다. 초기에 독일 지리학자들 사이에서 빙하지형학자로, 당시 가장 이름 있는 지리학자였던 쾨크(Penck)의 제자 및 조교로서 명성을 얻었으나, 반세기 후 사망할 당시에는 <포르투갈>(1932, 1937), <KOREA>(1945), <이베리아 반도>(1964) 등의 저서를 통해 地誌와 형태변이론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러한 지리분야에서의 학문적 업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리연구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라우텐자흐의 <KOREA>는 1998년에 김종규·강경원·손명철에 의해 <코레아 I·II>(대우학술총서·번역 115~116, 민음사)로 번역되었다.

이상에서 조선인 저자들은 언론, 출판, 교육에 몸담고 있었던 애국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조선의 학생, 청년, 지식인들에게 조국의 지리를 알게 하기 위해 식민지 사회라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조선지지를 조선

어로 저술하고 발행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었다.

일본인 저자들도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교육, 출판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이었다. 이들은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었거나 조선을 잘 아는 저자들이며, 동시에 지리학을 전공한 학자들이다. 그리고 이 책들은 대부분 일본이 아닌 조선에서 발행되었다.

서구인 저자로서, 러시아인의 경우는 표면적으로 러시아대장성이라는 정부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리학을 전공한 전문학자들이었고, 독일인의 경우 라우텐자흐는 익히 잘 알려진 세계적인 지리학자이다. 따라서 서구인 저자들은 전문적인 지리학자였다.

## (2) 텍스트의 제목

텍스트 제목에 사용하는 용어나 문자를 통해 조선지지의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조선인과 일본인은 ‘조선’을 한자로, 서구인은 ‘고려’를 자국어인 러시아어와 독일어로 하여 제목을 나타내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자로 표기된 사례 텍스트 8권 중에 ‘新’자가 書名에 들어간 경우가 5권, ‘郷土’가 1권, ‘中等’이 1권으로 나타났다. ‘신’자는 항상 이전시대보다 발전된 지역의 변화상을 지지에 담고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어, 새로운 지리정보를 원하는 독자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도서 작명법이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전시기를 통해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향토’라는 용어는 자기가 사는 마을(Heimat)로서 小單元의 지지를 기술하는 지역스케일을 나타낸다. 이는 郷土史에 준하는 郷土誌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다. <조선향토지리>를 발행할 당시에 일본의 지지 전통은 향토

지가 크게 유행하고 있었다. ‘중등’이라는 단어는 중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교과서임을 나타낸 것이고, ‘全誌’, ‘地誌’, ‘地理’라는 용어는 글자만 서로 상이할 뿐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리’로 구성되어 있는 지지서임을 나타낸 것이다.

한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두 텍스트, 즉 КОРЕИ(러시아어), KOREA(독일어)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각각 <韓國誌>와 <코레아>라는 책명을 얻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조선이나 대한제국보다는 고려라는 왕조 이름인 KOREA를 사용하고 있는 점에 있다.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비한자문화권(주로 유럽문화권)에 알려질 때 ‘고려’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 (3) 텍스트의 발행 양식

연구대상이 되는 모든 텍스트는 단행본으로 발행된 것이지만, 그 중에는 총서, 즉 시리즈 중의 한 편으로 발행된 도서가 있다. 신명균의 <조선지리>는 조선청년상식총서 중 제4권으로 발행되었으며<sup>35)</sup>, 아사가(淺香幸雄)의 <조선신지지>는 대일본향토지지 총49권 중에서 48번째의 책으로 저술된 것이다. 전자의 조선청년상식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진 총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자가 국어학자인 점과 동시에 중앙인서관의 관주로서 발행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총서에 실을 수 있었다고 본다. 하필이면 청년상식일까? 그 해답은 자명하다. 구국의 희망이 청년세대에게 있었기 때문이리라. 반면에 후자의 大日本郷土地誌는 日本地歴研究會에서 편찬하고 恆春閣에서 발행한 전일본에 관한 지지총서로서, 일본의 북단 지방인 사할린에 관한 <樺太

---

35) 참고적으로 제5권에는 <世界地理>(신명균, 1932)가 들어가 있다.

地誌>로부터 남단 지방인 타이완에 관한 <臺灣地誌>에 이르기까지 모두 49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조선이 일본의 관할 영토에 속한 지방에 불과함을 잘 나타내 주는 증거이다.

윤화수의 <최신조선지리>와 정홍헌 외의 <중등조선지리><sup>36)</sup>는 조선인 학생을 상대로 하는 지리교과서이다. <최신조선지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북간도 용정촌의 영신중학교를 비롯한 중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중등조선지리>는 조선이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시기이므로 해방 후 한국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조선지리 교재로 발행되었다.

지리교과서로 발행된 것으로 일본인으로서 조선의 고등보통여학교 교사였던 豊川善擘의 <조선향토지리>가 있다. 일반인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된 지리서로는 <신조선전지>(남궁준), <조선지지>(日韓書房), <신편조선지지>(日高友四郎)가 있다. 이 중에 <조선지지>는 경성 소재 서적발행회사인 일한서방편집부가 편집하여 간행하였으며, <신편조선지지>는 조선총독 사이토(齊藤實)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下岡忠治가 題字한 것으로 비추어 일본의 조선식민통치와 관련이 깊다.

서구인의 조선지지 중 러시아 대장성이 편찬한 <한국지>는 국가기관이 편찬한 것으로 보아 조선에 대한 지배 야욕이 그러한 조선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였고, 라우텐자흐의 <코리아>는 개인적으로 지적·학문적 호기심에 기인한 연구지지이나 이 역시 조선에 대한 지식을 자국의 이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흘렀다.

#### (4) 텍스트의 사용 문자

텍스트에 쓰이는 문자는 서적 독자층의 언어해득 능력과 지식의 정도

---

36) 이 책은 일제강점기 이후 1946년에 발행되어 본고의 연구 기간을 막 벗어난 광복 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책의 체제와 내용은 일제강점기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 책이란 그저 종이 묶음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 문자는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함으로써 책으로의 접근을 막고 독자층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문맹률이 높았던 일제강점기를 고려한다면, 그나마 독자층을 확보하는 길은 어디에 있었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리서는 전문서적으로 분류되어 독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데다 그나마 한문이나 일본어로 쓰인 책에 대한 조선인 독자층의 수요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래서 문자 해독력이 낮은 독자들을 위해서는 순국문 방식이나 국문 위주의 국한문 혼용방식을, 한문 해독력을 갖춘 지식계층을 위해서는 한문 위주의 국한문 혼용방식과 순한문 방식을 택하였으나, 이것도 일제강점기 말이 되면 국문 위주의 국한문 혼용방식이 출판물의 대체적인 추세가 되었다(방효순, 2001). 따라서 조선인에 의한 조선지지도 이와 같은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저자들은 대부분 국한문 혼용방식으로 책을 저술하였다.

한편 일본인에 의한 조선지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일본어로 씌어져 있어, 그 독자층을 일본인이나 일본어 습득 조선인에게 국한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의 조선지지는 일본인의 조선에서의 각종 사업과 관광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제공하고, 재조선 일본인 학생과 일부 조선인 학생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다.

러시아인과 독일인의 것은 자국어로 씌어진 것으로 각각 <КОРЕИ>(러시아어), <KOREA>(독일어)라는 제목을 갖고 있다. 이 역시 러시아어와 독일어 사용권역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극동의 나라를 소개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 2. 조선지지의 계보

### (1) 조선인: 실학적 지리학의 계승과 舊學과의 구별

조선 전기 지리지의 집성편으로 조선 후기까지 기본적인 지리서로 영향을 미쳤던 지리서는 <東國輿地勝覽>(1481)과 <新增東國輿地勝覽>(1531)과 같은 여지승람이었다. 그 이후 여지승람은 실학적 지리학, 예를 들면 김정호의 <大東地志> 편찬에 영향을 주었다. 그 증거로서 김정호가 지지 편찬 동기를 여지승람이 편찬된 지 300여년이 지나 문물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 점과 지지의 기본적인 체재를 여지승람에 두고 있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양보경, 1991:164).

<대동지지>의 체재는 이전의 전국지리지나 읍지에서 예를 찾기 어려운 독특한 구성방식이다. 즉, 각 지역 단위로 지역의 성격을 기술하는 지역별 지지와 그리고 강역, 도로, 국방, 산천 등 자연환경과 주제별 지리학을 결합시킨 형태로서 주목된다. 이는 조선 전기의 전국지리지 편찬과 조선 후기 읍지 편찬의 맥락을 계승한 후 조선 후기에 새로 꽃을 피운 실학적 지리학의 연구 성과를 지지에 종합하여 집대성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의 국토를 보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지지의 체재를 <대동지지> 편찬 단계에서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동지지는 동시대의 실학자와 그 저술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편찬된 것이었다(윗글, 167~168)는 점에서 실학적 지리학에 의한 지지의 전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한편, <대동지지>보다 이전에 나온 李重煥(1690~1752)의 <擇里志>에서도 계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택리지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 四民總論
- 八道總論 - 平安道, 咸鏡道, 黃海道, 江原道, 慶尙道, 全羅道, 忠清道, 京畿道
- 卜居總論 - 地理, 生利, 人心, 山水
- 總論

사민총론, 팔도총론, 복거총론, 총론으로 구성된 택지리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그리고 지방지지를 고루 갖춘 지지 형식의 지리서로서 可居地에 기초하여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밝히려 한 것이다.

평안도 이하 경기도까지는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지표로 지역을 구분하여 기술한 도별지지로서, 각 도의 지리적 위치와 지형·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연혁·산업·취락 등의 인문환경을 논하였다. 특히 각 도의 지지를 논함에 있어 이중환이 사실의 나열을 지양하여, 항상 각 지역의 지리적 사실을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논하였음과 답사에 의한 자료 수집 방법은 그 당시 실학과 학자들의 과학적인 학문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한 <택리지>는 실학의 전통에 속한 지지로서 독창적인 사고방식으로 책을 구성하여, <대동지지>와 같이 이전의 관찬지리지와는 확연히 다른 유형의 지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大韓新地誌><sup>37)</sup>에서 南廷哲의 서문을 보면, 책 제목에 新字가 들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옛것(舊)과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오늘날 학교에서 사람을 가르치는 데 地誌가 하나의 교과로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전

37) 張志淵의 <大韓新地誌>란 어떤 책인가? 1907년에 南廷哲·柳瑾이 교열하고 廣學書舖에서 발행한 국한문의 2권2책으로 이루어진 한국지리 교과서이다. 제1편은 지문지리로 名義·위치·경계·광무·연혁·해안선·지세·山經·水誌·조류·기후·생산물의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편은 인문지리로 인종·족제(族制)·언어 및 문자·풍속 및 성질·재정·병제·교육·화폐·산업·교통 등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편은 각도의 역사지리·국토지리적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다산의 <我邦疆域考>의 취지를 수용하고 있는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1909년 1월 30일 사용금지 도서처분을 받은 바 있다(민족문학연구소, 2000:266).

에 있던 지지들은 眞善하지 못하여 배우는 자들이 이를 부족하게 여겼다. 이에 張志淵은 <與地勝覽>과 <文獻備考> 및 여러 郡의 지지, 다산 정씨의 저서, 여러 학자들의 신구의 관계 저술에서 취하여 地文과 人文으로 구분하여 二部를 만들었다.”고 책에 적고 있다(민족문화연구소, 2000: 266~268).

이렇게 책 제목에 신자를 붙인 것은, 첫째 동시대의 학문 추세에 어울리게 지지의 체제를 정비하였다는 점, 즉 ‘지문지리·인문지리·지방지리’라는 체제를 구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둘째 정확하지 않았던 지리정보를 전통 지지와 실학의 산물인 <我邦疆域考> 등을 기본으로 하고 새로운 책(특히 일본인에 의한 조선지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정·보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조선의 영토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애국심을 불러일으켜 국권회복의 의지를 교육하고자한 편찬자의 의도<sup>38)</sup>가 담겨져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대한신지지>가 구학과의 분명한 차이임과 동시에 실학적 지리학을 계승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임형택(2000:433)은 새로 집필한 <대한신지지>에 대해 두 가지 점에서 학적 평가를 하였는데, 그 첫째는 국토의 현황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야흐로 전개되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신·구학을 적절히 절충한 점이다. 즉 서구에서 들어온 지리학의 체제 및 방법론에 기초하고 있지만 구학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내용은 시대 맥락에 의한 공간 변화와 조선의 영토적 정체성 확립 및 민족의식 고취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체제와 방법론은 유럽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근대지지의 체제와 방법론이 스며있는 저작, 특히 일본인의 저작을 모방하여 <대한신지지>

38) 장지연은 그의 책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고 있다. 즉 泰西 학자들의 말에 “지리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애국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를 편찬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장지연의 <대한신지지>서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왕년에 정다산 선생의 <疆域考>를 증보·교정하여 세상에 간행하였다. 그런데 地志로서는 완전하지 못해 마음에 유감이 있었던바 광무 10년(1906) 가을에 와서 새로이 纂輯을 하기로 뜻을 정하고 국내외의 서적을 널리 수집하여 수개월이 걸려서 탈고하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조선인의 조선지지는 실학적 지리학 이후 애국계몽기에는 실학의 전통지리학과 일본의 근대지리학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고, 일제강점기에는 지리 지식의 계몽과 애국심 고취라는 측면에서는 실학적 지리학과 애국계몽기 지리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체재와 기술방법의 측면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일본인 조선지지의 영향을 받았다.

## (2) 일본인: 서구 근대지리학의 모방과 토착화

메이지(明治) 유신 이후 일본은 대대적으로 유학생을 서구에 파견하여 그들의 근대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각 분야에서 근대 학문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지리학도 서구 근대지리학을 기초로 다듬어 온 방법론을 이용하여 조선지지를 기술하였던 것이다. 고토분지로, 야마사키, 오가와, 다나카 등 일본의 대표적인 지리학자들은 서구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다.

명치유신 이후 1900년대 초기까지는 지문학과 관계 깊은 지리서들이 등장하여 천문·자연지리의 내용이 인문지리나 지방지지보다 상대적으로 풍부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작을 전후하여 인문지지의 내용이 풍부해지다가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리구 시대로서 지역구분의 방법이 새롭게 등장하게 되어 지방지지 분야의 기술이 질적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지리학은 근대지리학 도입 초기에는 서구 지리학 도서

를 번역하여 활용하는 모방 단계에서 점차 일본과 조선의 지역현실에 맞는, 즉 일본제국주의의 이익에 충실해지는 방향으로, 또 자신의 고유한 방법론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밟았다고 볼 수 있다.

### (3) 서구인: 서구 근대지리학의 조선에의 적용

이미 제3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제국의 확장과 그에 따른 교통수단의 발달로 지리적 지식에 대한 수요가 넘쳐나던 시대에 탐험과 답사를 통해 얻은 지식들을 지도와 지리서로 묶어내기 시작하였다. 본격적으로 근대지리학이 태동하게 된 것은 대학의 지리학 강좌 개설과 지리협회의 결성으로 가능하였다. 전문적인 학자가 배출되고, 지역에 대한 연구 내용과 방법론이 점차 발달하면서 다양한 지지 연구의 전통이 생겨났다.

서구인은 이렇게 정립된 서구 근대지리학의 방법론을 조선지지에 적용하였던 것이다. 조선지지는 서구인 입장에서 개인적인 관심사든 국가 차원의 중대사였던 간에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들의 흥미로운 주제거리였다.

<한국지>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제정 러시아가 구한말 한반도에 대한 세력 확장을 위한 정책 자료로 연구한 것으로서, 서구인이 저술한 논문, 보도문, 기행문 등의 다양한 자료와 러시아인이 직접 조선을 답사·탐험하여 저술한 것이다. 특히 북부 조선과 동해안에 관한 지지 자료가 풍부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지지 자료가 풍부했던 것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와 더불어 군사적 목적으로 진행된 북동향 탐색에 기인한 것이다.

지리학의 대가 라우텐자흐가 <코리아>를 저술하게 된 이유를 보면, 그 당시 서구의 지리학의 전통을 기초로 하여 조선지지를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구 지리학의 전통 중에서 크랩스(Krebs)의 비교지리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것을 <코리아>(1945)와 <이베리아 반도>(1964)에 적

용하였고, 경관유형화의 방법론은 크랩스를 더 거슬러 올라가 펄크(Penck)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김재완, 2000b) 때문이다. 이처럼 <코레아>는 서구 근대지리학의 기초로부터 출발한 서구인의 조선지 지 사례가 된 것이다.

#### (4) 통합 고찰

이상에서 각 민족별로 조선지의 계보를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지는 민족별로 조선인의 지에서는 실학적 지리학의 계승과 구학과의 구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본인의 지에서는 서구 근대지리학의 모방과 토착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서구인의 지에서는 서구 근대지리학의 조선에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지와 연계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지의 체제와 지기술방법은 서구 근대지리학에 그 근원을 두고 있었다. 서구 근대지리학의 영향력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 문명의 발달과 수용 순서(서구→일본→조선)로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조선은 서구나 일본처럼 독자적인 내용이나 방법론을 개발할 수 없는 시대적 맥락으로 인해 일본인의 조선지를 번역하고 차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 단적인 증거는 지리를 구학과 구별되는 과학적인 지리학으로 발전시킨다고 하여 전통지리학의 주요 주제, 예를 들면 강역고, 풍수지리가 조선지에 빠져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강역고는 조선인의 애국심 고취가 우려되므로, 풍수지리는 학문의 영역에서 배척되어야 할 미신으로 여겨져 이들 내용은 조선인이나 일본인의 조선지를 분문하고 지 지 내용에서 제외되었던 것이다.

특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록을 지칭하는 지리지의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성격과 특징을 추출·표현하는 방법(양보경,

2001:23)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 같은 지지 내용과 기술방법으로서는 조선인의 삶을 정확히 그려내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 고유의 지지 내용과 기술방법만이 삶을 적실하게 풀어내는 일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인의 경우, 조선의 지지내용과 기술방법과의 단절은 구학과의 구별이요, 그래도 애국심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은 실학적 지리학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본다.

### 3. 조선지지의 체재와 저술 목적

#### (1) 조선지지의 체재

각 부분이 목적에 맞도록 유기적으로 통일된 전체를 체재라고 보았을 때, 조선지지의 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전체 짜임새, 즉 목차 구성에서 지지의 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地志는 김부식의 <三國史記>로부터 시작하여 줄곧 史書 부록의 지리지로서 계승되어 왔으나 <東國輿地勝覽>이나 <增補文獻備考> 같은 책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된 지리지를 말할 수 있으며, 이 책들의 특징은 郡縣의 연혁이나 산물 및 인물을 나열하는 백과사전식 지리지에 불과하였다. 단, 택지리나 대동지지와 같은 실학적 지리서는 그 체재가 근대지리학의 지지체재에 근접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었다.

여기서 잠깐 근대지리학의 형성 이전의 지지 체재를 알아보면 일제강점기 지지 체재를 분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레니우스(Bernhard Varenius, 1622~ 1650)의 <일반지리학(Geographia Generalis)>에 포함된 특수지리학(지지)의 목차를 제시한다(표 4).

표 4. 바레니우스 특수지리학의 세 가지 속성

속 성	목차 내용
천체적 속성 celestial propert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 장소들의 적도와 극으로부터의 거리</li> <li>2. 수평선상에서의 이동의 경사도</li> <li>3. 낮의 길이</li> <li>4. 기후와 기후대</li> <li>5. 계절별 기온, 강수, 바람 등</li> <li>6. 수평선 너머로의 별들의 출현과 체류</li> <li>7. 각 장소의 머리 위를 통과하는 별들</li> <li>8. 코페르니쿠스 가설에 따른 별자리들의 움직임</li> </ol>
영역적 속성 terrestrial propert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간의 경계와 둘레</li> <li>2. 장소의 경도와 상대적 위치</li> <li>3. 형상</li> <li>4. 크기(명칭, 위치, 고도)</li> <li>5. 산맥(속성 및 이와 관련된 사항들)</li> <li>6. 광산</li> <li>7. 산림, 사막</li> <li>8. 물(바다, 호수, 하천, 늪지, 분수, 물의 양·질 등등)</li> <li>9. 비옥도, 메마름, 과수들</li> <li>10. 동물들</li> </ol>
인문적 속성 human propertie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주민의 기원과 주민의 키, 모습, 수명, 식생활 등</li> <li>2. 소득, 예술, 상품, 무역</li> <li>3. 선, 악, 재능, 교육</li> <li>4. 출생, 결혼, 사망 등에 관한 풍습</li> <li>5. 언어와 말씨</li> <li>6. 정부</li> <li>7. 종교와 신앙적인 일들</li> <li>8. 도시들</li> <li>9. 기억할만한 역사물들</li> <li>10. 유명한 사람들, 발명품, 예술품</li> </ol>

출처: 이희연(1991:125)

바레니우스 특수지리학의 세 가지 속성은, 그 속성에 속한 목차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차례대로 천체적 속성은 天文地理, 영역적 속성은 地文地理, 인문적 속성은 人文地理라고 볼 수 있다. 이는 天·地·人の 동양적 세계관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이러한 체제가 지문학의 형태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체제는 1900년을 전후한





있다. 전반적으로는 순서에 관계없이, ‘자연(지문)지리·인문지리·지방지  
지’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는 목차를 위주로 하여 전체적인 조선지지의 체재의 특성을 서  
술하고자 한다(표 5 참조).

## 1) 조선인

<신조선전지>는 상·하편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편은 總論, 하편은 地  
方分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편(총론)은 총 25개의 장 가운데 제1장(位  
置幅員)에서 제9장(生産物)까지는 자연지리, 제10장(戶口)에서 제25장(通  
信)까지는 인문지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편(지방분론)은 13개의 장에  
경기도부터 함경북도까지의 13도를 각각 배치하고 있다. 지방분론에서는  
도별로 중요 都邑과 名所를 소개하고 있다.

<최신조선지리>는 地文地理·人文地理·各道라는 3개의 편으로 나누  
어져 있다. 제1편(지문지리)에는 제1장(朝鮮의 位置面積)에서 제11장(行  
政區域)까지 11개의 장으로, 제2편(인문지리)에는 제1장(産業)에서 제7장  
(人口)까지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3편(각도)에는 제1장 북부조  
선(평북·평남·함남·함북), 제2장 중부조선(황해·강원·경기), 제3장  
남부조선(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체재는 제1편을 시작하기 전에 ‘총론’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부록으로서 ‘間島及琿春’을 수록하고 있는 데에 있다.

<조선지리>는 제1편 地方誌와 제2편 總括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지  
방지)은 제1절 북부조선(함북·함남·평북·평남), 제2절 중부조선(황해  
·강원·경기), 제3절 남부조선(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으  
로서 지리구에 따른 지방지이다. 제2편(총괄)은 제1절 지문(地勢, 海岸

과 海流, 氣候, 天產物)은 자연지리이며, 제2절 인문(住民, 制度, 交通, 産業)은 인문지리에 해당한다.

<중등조선지리>는 序說·自然總說·地方誌·人文總說 등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 서설에는 位置, 面積·人口, 行政區劃, 沿革이, 제2편 자연총설에는 山系, 水系, 平野, 湖池, 海洋, 海岸, 潮汐, 潮流, 生物誌, 氣候가 포함되어 있다. 제3편 지방지는 모두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기지방·호남지방·영남지방·관동지방·관북지방·관서지방 등의 순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4편 인문총설에는 産業과 交通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서 地質 概觀을 실고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조선인의 조선지 지 체재는 순서는 서로 상이하나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 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세 분야를 편으로 두고, 각 편별로 장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시기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는 自然地理·人文地理·各道地理 등 3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편 자연지리는 제1장 叙論에서부터 제14장 動物·植物及鑛物까지이며, 제2편 인문지리는 제1장 住民에서부터 제12장 交通·運輸·通信까지이다. 제3편 각도지리는 總說과 重要都邑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이 책에서는 內地人集團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편조선지>는 自然地理·人文地理·地方誌 등 3개의 편을 형성하고 있다. 제1편 자연지리에는 제1장 名稱에서부터 제10장 天產物까지로, 제2편 인문지리에는 제1장 民族에서부터 제18장 軍事로 구성되어 있다. 제3편 지방지에는 제1장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제13장 함경북도에 이르

기까지 13도를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조선향토지리>는 앞에 서술한 책들과는 달리, 편 체재 없이 모두 16개의 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체재는 지리교과서 보충교재로서 학생들이 제한된 교수 시간 내에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별로 보면, 自然地理·人文地理·地理區로 구별할 수 있는 체재이다. 자연지리에는 우리의 朝鮮, 位置·境域, 面積·人口, 地勢·海岸, 地質·土壤, 氣候·生物 등 6개의 장이, 인문지리에는 文化的發展(上·下), 産業(上·中·下), 商業, 交通 등 7개의 장이 포함되어 있다. 지리구는 상·중·하로 세 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다.

<조선신지지>는 位置·自然地理·經濟地理·地方誌·結論 등 5개의 장으로 편성되어 있다. 자연지리를 언급하기 전에 위치를 먼저 제1장에 두었으며, 제2장은 자연지리로서 여기에는 地勢, 地勢와 人文生活을, 또 氣候, 氣候와 人文生活을 포함하고 있는 장이다. 제3장은 경제지리이지만 다른 책에 편재된 인문지리와 같은 목차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장은 産業概觀에서부터 人口까지 9개의 節로 이루어져 있다. 제4장은 지방지로서 4개의 지방 - 남선지방·중선지방·서선지방·북선지방 - 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5장에는 결론을 두고 있어 형식상으로는 연구지지로서의 체재를 엿볼 수 있다.

일본인의 조선지지의 체재에서도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지’의 공식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단, 비중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제강점기 초기에 발행된 <최신조선지지>의 일본인의 조선내 거류지와 <신편조선지지>의 신사종교, 척식사업 등은 완전히 일본인을 위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조선 통치에 도움을 주는 지지 체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이러한 체재는 지리구, 지세와 인문생활, 기후와 인문생활 등 학문적인 지지 체재로 전환되었다.

### 3) 서구인

<한국지>는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4개 분야 - 序論 · 自然地理 · 地方地誌 · 人文地理 - 로 묶어볼 수 있다. 서론에는 韓國史가, 자연지리에는 韓國의 地理 · 地質 · 氣候 · 植物 · 動物이 포함된다. 지방지 지에는 韓國의 道와 都市가 포함되며, 인문지리에는 나머지 부분 즉, 제6장 韓國의 道路와 交通手段에서부터 제14장 韓國의 財政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코레아>는 제1부에 地理 · 歷史的 背景<sup>40)</sup>, 제2부에 自然과 古文化, 제3부에 韓國의 여러 地域, 제4부에 日本의 海外屬領 韓國을 배치한 체재를 갖고 있다. 책 끝에 한국의 지리적 특성의 본질과 변화라 하여 앞의 전개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부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은 연구지지의 체재를 갖춘 조선지지라고 볼 수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제1부, 자연지리에 해당하는 제2부, 지방지지에 해당하는 제3부 등은 앞의 지지체재와 유사하나, 제4부는 일본의 식민지로서의 조선을 일본이라는 힘의 작용과 결부시켜 고찰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다른 지지와의 차이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볼 때 조선지지의 체재는 민족과 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근대 지지학의 아버지인 헤트너의 지지체재(도식)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특히 연구지지가 아닌 편찬지지일 경우 이와 같은 체재특성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부록으로서 ‘間島及琿春’(조선인), 일제강점기 초기이긴 하지만 지방지지의 일부분으로서 ‘內地人集團地’(일본인), 연구지지의 본문에 하나의 장으로서 ‘日本의 海外屬領 韓國’(서구인)

40) 원저의 제1부 제목 ‘기초와 전제(Grundlagen und Voraussetzungen)’를 ‘지리·역사적 배경’으로 번역한 것이다.

을 조선지지에 수록한 점은 차례대로 각 민족의 관심사를 드러낸 지지 체재라고 볼 수 있다.

## (2) 조선지지의 저술 목적

저자는 그 자신만의 속성에 의해 책을 집필하지는 않는다. 책의 저술은 시대적 맥락과 깊은 관련을 가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를 단순한 개인이 아닌 특정 집단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그러므로 책의 저술 목적은 책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를 넘어서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족의 특수성에 기인한 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명시적인 저서의 집필 또는 편찬 의도는 서문에 잘 나타나 있다. 물론 서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술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서문이라는 것은 책의 학문적인 본래의 목적을 주로 기술하여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하면 명시적인 저술 목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암시적인 자민족 중심의 지지 발행의 목적은 서문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본문 내용과 시대적 맥락을 참고로 하여 보충하였다.

조선지지는 지리적 지식을 알고 그것을 생활이나 지역개발에 응용하려는 측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에 대한 여행안내서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여행안내서로서의 실용적 조선지지는 저자 개인이 임의로 기술했다고 하기보다는 독자의 기호와 시선을 중요시하여 수요자인 독자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이러한 발상은 제국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는 방법보다는 지리와 교통과 문화를 표상적 요소로 내세우면서 독자들의 더 크고 넓은 정체의식의 형성이라고 하는 데에 그 귀결점을 둔다(서기재, 2002: 437~438). 그러므로 이 시기에 독서와 교통수단을 함께 다루고 있는 ‘여행안내서’로서의 조선지지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였으며, 제국주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골수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윗글, 439).

그러면 이제부터 서문을 통해 각 민족별 조선지지의 저술목적은 고찰해 보고자 한다(표 6).

표 6. 조선지지의 서문 내용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조선인	서명 新朝鮮全誌(상하)	最新朝鮮地理	朝鮮地理 청년상식총서(4)	中等朝鮮地理
	저자 南宮濬 편집	尹和洙 편집겸발행인	申明均 저작겸발행인	鄭洪憲·李箕燮· 李富星 공저
서문 내용	1)조선의 면목이 일신되었음으로 신 조선이라 명칭함 2)신조선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조선의 현상을 통달하여 환하게 알도록 하기 위함 3)평소 조사 기록 한 것을 기초로 하고 제 전문가의 자료를 수집하여 책을 편찬함	결	결	1)중등학교의 교재 용 또는 일반용으 로 편집함 2)자연관계와 인문 관계 등을 참조하 여 6지리구로 대 별하고, 그 지리구 를 소지역으로 나 누어 지리적 상호 관계를 이해하려 함
일본인	서명 最新朝鮮地誌	新編朝鮮地誌	朝鮮鄉土地理	朝鮮新地誌 대일본향토지지 (48/49)
	저자 日韓書房編輯部 저작자	日高友四郎 저작겸발행자	豊川善曄 저작자	淺香幸雄 저
서문 내용	기존 조선지리서 에는 미비점이 많 고, 제국지리에 딸 린 부록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단행본으로서 결 함이 많으므로 자 료를 정선하고 출 처를 확실히 하는 등 반도 각 방면	1)조선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 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함, 즉 조선 을 이해하고 개발 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 함 2)종래 조선지지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조선총독	1)중등학교용 조 선지리 보충교재 로 편찬함, 즉 중 등지리 교과서의 조선편 내용을 보 완코자 함 2)향토애의 정 신을 드높이고자 함	1)사범학교·중 등학교 등의 향토 지리서로 편술한 것 2)반도에 대한 지 리적 이해를 철저 히 하고 황국민 연성의 기초적 수 양을 다지기 위한 것

	의 사정을 정확히 담아내려고 편찬 함	부 임시조사국의 조사보고를 기초 로 편찬함	
외 국 인	서 명 자	韓國誌(1900년)	코리아(1945년)
	저 자	러시아대장성 저	라우텐자흐 저
서 문 내 용	‘달한 나라’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 아서 이 나라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 들에게 커다란 시간과 노력의 손실이 없이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 는데 있음		

### 1) 조선인

남궁준의 <신조선전지>에서는 먼저, 조선이 새롭게 변신하였으므로 신 조선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새로운 조선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추측컨대 정치체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용어 사용이라고 본다. 이는 일제의 조선강점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것과 이 책의 발행시기가 明治에서 大正으로 바뀐 대정원년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신조선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조선의 현상을 통달하여 훤히 꿰뚫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을 두었다. 신조선 개발에 실용적인 지식을 전수할 목적이었다. 그리고 평소 조사기록을 기초로 하고 여러 전문가의 자료를 수집하여 책을 편찬하였다고 했으나 범례에 보면 조선총독부 시정 이후의 오늘날의 조선실황을 서술한다고 한 점과 이 책이 일제강점기에 발행되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 책의 저술 목적은 일본인의 조선지식 저술 목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정홍헌 외의 <중등조선지리>에서는 이 책의 저술 목적을 자연관계와 인문관계 등을 참조하여 6지리구로 대별하고, 그 지리구를 소지역으로

나누어 지리적 상호관계를 이해하려는 데에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은 田中啓爾 이후 등장한 지리구 지지학이 추구한 지지학의 목적과 일치한다. 한편 이 책은 중등학교 교재용으로서 뿐 아니라 일반용으로도 편집하였다 하여 독자의 범위를 넓게 잡았다.

결과적으로 조선인의 조선지지 서문에 나타난 저술 목적은 조선에 대한 지리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있었다. 이는 민족의식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수 없었던 시대적 맥락으로 인하여 조선인 지지의 서문 내용이 지지에 관한 일반적인 저술로서 서문을 대신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신조선지리>나 <조선지리>처럼 아예 서문이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리>의 서문을 보면, 기존 조선지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반도 각 지역의 사정을 정확히 담아내고자 하는 편찬 목적이 나타나 있다. 제국지리에 딸린 부록으로서의 성격이 농후하여 단행본으로서 결함이 많으므로 자료를 정선하고 출처를 확실하게 하는 등 반도 각 방면의 사정을 정확히 담아내려고 하였다. 그 동안 일본인의 조선지지는 제국지리의 부록이라는 위상을 가졌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저술 목적은 1912년이라는 일제강점기 초기에 발행된 책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이전의 지지보다 정확한 지리정보에 기초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오류 수정 및 자료 보완이라는 조선지지 편찬목적은 <신편조선지리>에서도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는 조선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조선을 개발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 오류 수정은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의 조사보고를

기초로 하여 편찬하였으므로 최신의 지리정보였던 것 같다. 식민 통치와 경제적 지역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저술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향토지리>는 현행 중등지리 교과서의 조선 편 내용을 보완한 중등학교용 조선지리 보충교재로 편찬된 것이다. 동시에 이 책을 학습함으로써 향토애의 정신을 드높이고자 하는 데에 이 책의 저술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신지지>는 사범학교와 중등학교의 향토지리서로 편술된 것으로, 반도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철저히 하고 皇國民으로서의 기초적 수양을 다지기 위하여 저술되었다.

이상에서 일본인의 조선지지는 세 가지의 저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기존의 지지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조선에 관한 지리지식의 정확도를 높인다. 둘째 이 지식을 조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데 활용한다. 셋째 이 지식으로 향토애의 정신을 드높이고, 황국민으로서의 기초적 수양을 다진다.

### 3) 서구인

러시아 대장성의 <한국지> 서문을 보면, 우리나라를 ‘단힌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표현은 러시아가 조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했었는데, 그 동안 뚫고 들어갈 방도가 없었다라고 해석된다. 그래서 러시아는 정부기구를 통해서라도 조선을 체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라우텐자흐의 이 책에 대한 견해(김종규 외 역, 1998:90)를 보면, 이러한 필요성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이 저작은 객관적 견지에서, 특히 실용적 관점에서 씌어진 國家誌(정치지리학)이며, 세기의 전환기에 즈음하여 조선에 관한 지식을 신빙성 있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발생적·인과적 관계와 지역지리적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지서라고는 할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선지리를 탐구함으로써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시적으로는 닫힌 나라 조선에 관한 지리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서문에 담고 있었다.

<코리아>의 서문에서는 미지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지적 호기심에 의해 수집된 조선에 관한 정보를 자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읽을 수 있었고, 서문이 아닌 본문 속에서 저자의 다음과 같은 책 저술의 목적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당시 조선연구의 학문적 상황을 정리하여 이르기, 유럽에서 출판되는 대중적인 여행기와 일본인의 분석적 연구로 압축하였다. 전자는 개략적 느낌을 근거로 하거나 일부 산 체험을 바탕으로 기술한 것이며, 후자는 엄밀히 따져 학문적이긴 하나 지역계획의 성향을 지닌 불명료한 연구 작업이어서 조선 각지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 논문집이 극히 드물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는 지리학적 지식을 담은 옛 자료와 최근의 자료를 종합하고, 동시에 경험적 관찰을 근거로 하여 조선 전역과 주요 지역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지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였다(김종규 외 역, 1998:96).

서구인의 조선지지에서는 개인이든 정부기관이든 닫힌 나라 혹은 미지의 나라에 대한 지적 호기심에서 출발하여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를 자국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데에 표면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속셈은 결국 제국주의의 영토 확장과 그에 따른 자국의 이익 추구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4) 통합고찰

결국 서문을 통해 본 각 민족의 조선지지 저술 목적은 우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서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고, 그것을 지리학적으로 이해하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단, 차이가 있다면 지리정보를 수집·정리하려는 각 민족의 이해관계의 유형이 다를 뿐이다. 그 민족의 이해관계란 조선인에게는 자국민의 조선에 대한 애국심과 독립의식고취, 일본인에게는 여행정보의 제공과 조선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추구, 서구인에게는 미지에 대한 개척열기와 영토팽창에 있었다.

시기별로는 일본인의 조선지지에서 뚜렷한 변화를 읽을 수 있었다. 초기에 경제개발 등의 지역계획에 필요한 지리지식의 함양이라는 목적이 후기에 접어들면서 향토애와 황국민 정신을 강조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는 전쟁의 확대와 관련이 깊은 지지 저술 목적의 변화이다.

#### 4. 조선지지에 포함된 그림 자료

본고에서 그림에 대한 정의는 본문 외에 지도·스케치·사진·그래프·도표 등 지지 속에 포함된 제반 시청각 자료를 일컫는다.<sup>41)</sup>

##### (1) 지도 자료와 그 특징

10권의 지지 중에 4권에서 지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 책은 신명균의 <조선지리>, 日韓書房編輯部の <최신조선지지>, 日高友四郎의 <신편조선지지>, 러시아대장성의 <한국지>이다. <최신조선지지>에 지도가 한 장도 없는 것은 부록으로 편찬하려 했으나 정밀하지 않아 그 뜻을

---

41) 그림에 대한 분석은 계통지리와 지방지지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지도가 수록되어 있는 지지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7. 조선지지에 수록된 지도 자료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조선 서명 저자	新朝鮮全誌	最新朝鮮地理	朝鮮地理	中等朝鮮地理
	南宮濬	尹和洙	申明均	鄭洪憲·李箕燮·李富星
지도 제목	位置圖(1) 地質圖(9) 山脈河流之圖 (13-14)	경선(2) 위선(2) 경위도(3) 기후대(3) 혼용식(7) 고등식(7) 부산항(108)	결	지리구(12)  부록 지도 산맥도(65) 경기지방(66) 제주도(66) 영남지방(68) 관동지방(69) 등등
일본 서명 저자	最新朝鮮地誌	新編朝鮮地誌	朝鮮鄉土地理	朝鮮新地誌
	日韓書房編輯部	日高友四郎	豊川善曄	淺香幸雄
지도 제목	결	결	동아의 잔교조선반 도(4) [多]자형을 그린산 맥운곽도(11) 全年平均氣溫圖: 1 월기온, 年平均기 온, 7월기온(17) 日滿을연결하는大 羅津築港計劃圖 (61)	연평균기온도(6) 하계강수량율도(8) 기후구(9): 함경지 방·낙랑지방·동 한지방·서한지방 ·북구주지방 경지이용율도(15) 인구증감도(소화 10-15년, 25)
외국 서명 저자	韓國誌(1990년)	코리아(1945년)		
	러시아대장성	라우텐자흐		
지도 제목	결	지형개관도(7) 각 도와 도청소재지 들(24) 한국의 선 사유적 발굴지(31) 낙동강 하구 부근 의 신석기와 동기 발굴지(32) 고인돌	한국에 영향을 주는 태풍경로 (166) 저기압경로 (168) 평균풍향 (180) 한국의 기후 경계(181) 기후구 분(182) 강수량의	압록강 만곡부 (408) 백두산 중앙 외륜산(417) 압록 강 사행천(422) 신 의주와 안동(435) 대유동의 금광 (446) 영변산성

	의 분포(34) 삼한 시대의 한국정치 지역(39) 평양주변 낙랑시대 고분지 역(42) 삼국시대의 한국 정치적 구분 (43) 한국 내외 그 주변 지역에서 의 지리상의 탐험여 행경로(84) 저자의 여행경로(99) 한국 의 지질-구조적 지역구분(103) 경 성의 대륙붕 외연 해곡(119) 동아시 아 북부의 주변산 맥호(120) 안행구 조(123)권곡과 기 타 빙하지형(128) 1월등온선(145) 8 월등온선(146) 기 온의 연교차(149) 일평균0℃이하 기 간(152)	계절변화(183) 해 류와 조석의 이동 (201) 해수면 온도 와 염도(202) 한국 의 식물분포(213) 식생지리구분(226) 농업지대와 어업 지대(318) 지리적 지역구분(331) 길 주-명천지구대의 지질과 지형(332) 청진만(355) 나남 (358) 개마고원과 동해사면의 대조 (363) 충만강의 사 행천(364) 함흥 (367) 북부지방의 화전면적비율(391) 개마고원의 화전 민촌(399) 백두산 지역 개관도(405) 백두산지역 지질 개관도(407)	(447) 평양(469) 황해반도의 지질 지형도(470) 개성 (481) 경기지역과 경기만(505) 서울 시가도(506) 인천 (517) 원산(530) 중부지방의 구조 곡과 현무암지대 (539) 금강산 개관 도(540) 울릉도의 지형(568) 울릉도 의 취락과 (572) 경주(590) 지리산의 지형과 식생(591) 부산 (596) 관개담작평 야(610) 군산의 간 척지(611) 남행안 지역의 지형(634) 목포(645) 제주도 의 식생지대(648) 제주도의 취락분 포(657)
--	---	---	---

주) 괄호 속의 숫자는 수록 페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 1) 조선인

<신조선전지>에는 지도 3장이 삽입되어 있으나 모두 다 정밀하지는 않다. 수작업으로 필사한 것 같다. ① 조선의 위치를 알려주는 位置圖: 경위선이 10° 간격으로 그어진 동부아시아 지도로서 북쪽 사할린 섬(樺太)에서 남쪽 필리핀(比律賓)群島까지 나타내고 있다. ② 地質圖: 편마암층, 고생층, 중생층, 제3기층, 제4기층, 화강암, 반암, 분암, 현무암 등의 분포를 나타낸 지도이다. 빗금이나 점 등을 이용하여 제도하였기 때문에 복잡하기 그지없다. ③ 山脈河流之圖: 도계와 12개 산맥과 12개 하류를 표시하였으며, 울릉도·제주도·대마도를 그려 넣었다. 산맥은 쇠기모양의 훈용식(그림 4)으로 성글게 표현하였다.

<최신조선지리>에는 총론에서 지리교육의 필수학습요소를 그림으로 설

명한 점이 매우 특징적인 요소이다. 먼저 경선과 위선을 긋는 방법을 시각화시킨 것으로 그 결과를 경위도라는 지구본 형태의 그림으로 나타내었다(그림 1~3). 또 열대·온대·한대 기후로 구분한 기후대 그림을 실었고, 마지막으로 지형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법인 量滂式과 高等式을 그림 4~5와 같이 예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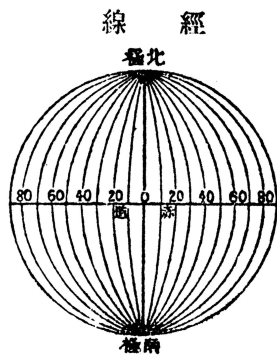


그림 1. 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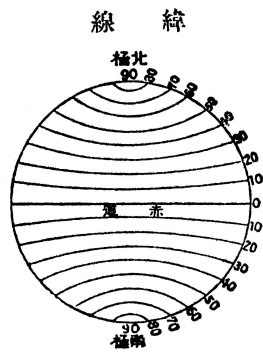


그림 2. 위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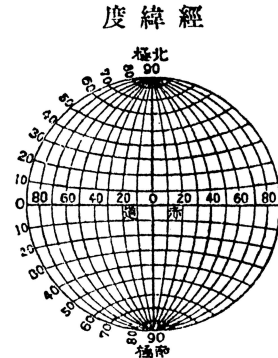


그림 3. 경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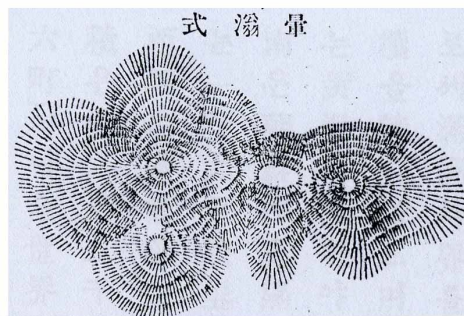


그림 4. 혼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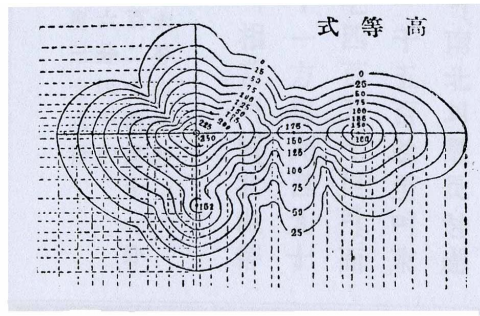


그림 5. 고등식

이 책에 유일하게 수록되어 있는 단 한 장의 지도는 '부산항'이다. 지도에는 혼용식으로 표현된 지형, 직교형의 가로망, 그리고 철도와 맞닿아 있는 항만시설이 그려져 있다.

<중등조선지리>의 본문에는 지도 1장만 게재되어 있으나, 부록에는 지도 55장, 그래프 9개, 지형모식도 1개 등 65점의 그림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sup>42)</sup>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한 장의 지도는 제주도·울릉도 표기가 없는 지리구 지도로서 각 지방을 A~F의 기호로 표기하고, 난외에 각 지방명을 보기로서 처리하여 기재하고 있다(그림 14 참조). 부록에 실린 그림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산맥과 하천을 나타낸 지형도를 비롯하여 경기지방, 제주도, 호남지방, 영남지방, 관동지방, 관북지방, 관서지방에 관한 지방개관지도, 지형, 도시, 특정지역개관도, 염전 등에 관한 일반도와 기온 및 강수량에 관한 등치선도, 농작물과 어종에 관해 분포도로 그린 지도가 있으며, 막대와 원을 이용한 그래프, 지형모식도가 그림 자료로 실려 있었다.

## 2) 일본인

<조선향토지리>에는 4장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이 지도들은 사실성이나 정밀성보다는 제목에 부합하는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지도들이었다. 먼저, ‘동아의 잔교 조선반도’를 보면, 일본 본토와 동아시아 대륙 사이에 있는 조선을 검게 칠해 두드러지게 했으며, 또 철도와 항로를 그려 넣어 일본에서 동아시아 대륙으로 가려면 조선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였다.

‘[多]자형을 그린 산맥윤곽도’는 多자형으로써 산맥분포를 한자로 형상화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산지·대지·평지로 구분하고, 산·화산으로 나누어 표기하고 있다. ‘全年平均氣溫圖’는 3장의 지도 - 1월기온, 연평균기온, 7월기온 - 를 한 주제 아래 묶은 것이다. 매 1장의 지도에는 등온

42) 부록에 수록된 그림 자료들은 원본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제목을 알 수 없는 자료가 다수 있었다.

선 2~4개로 기온분포를 나타내었다. 이 외에 ‘日滿을 연결하는 大羅津築港計劃圖’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진포와 유진포 일대를 지도에 담고 있다. 나진포의 경우, 시가지구·시가예정지·나진항 등의 지명을 지도에 한자로 표시하였다.

<조선신지지>에는 5장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연평균기온도, 하계강수량율도, 기후구 (함경지방, 낙랑지방, 동한지방, 서한지방, 북구주지방), 경지이용율도, 인구증감도(昭和 10-15년)가 그것이다. 연평균기온도와 하계강수량율도를 나타낸 하계강수량율도의 지도 내용은 거의 똑같으며, 모든 지도의 정밀도는 오늘날의 지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그림 6과 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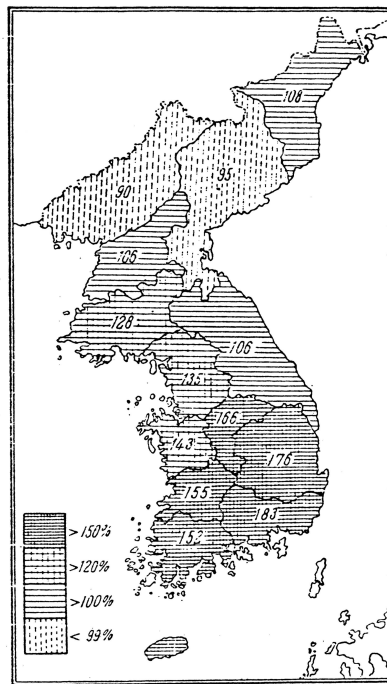


그림 6. 인구증감도

출처: 淺香幸雄, 1943:9

### 3) 서구인

<코레아>에서 지도는 채색지도(별첨), 흑백지도(별도)와 본문에 포함된 지도 및 그림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지도는 정밀하게 그려져 있다. 이들 지도는 경위선을 각각 1° 간격으로 격자상으로 그리고 조선반도와 부속도서, 특히 제주도와 울릉도가 표시된 지도를 기본도로 삼고 있다.

먼저 채색지도는 한국의 지형도, 연평균 강수량분포도(1914~1933년 평균), 인구분포도, 현재의 문화경관 등에 관한 4장의 지도로 축척이 1:2,000,000이고, 책 후면에 별첨되어 있다. ‘한국의 지형도’에서는 경계선(국경·도계), 철도, 항로, 하천을 선으로, 온천, 절, 유적지, 광산을 기호로 표시하였다. 도시를 계층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기호로 표기하였고, 지형의 높낮이를 갈색의 농도로 표시하였다. ‘연평균 강수량 분포도’에서는 등치선과 함께 500mm미만~1,800mm이상 사이의 구간을 100mm단위로 끊어서 15개의 색으로 채색해 나타내었다. ‘인구분포도’에서는 지도 난내에 다음과 같은 지도 설명 자료가 있다. “각 점은 인구 1,000명을 나타낸다. 1,000명 이상의 취락에서 점들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표시되었다. 인구 19,500명 이상의 취락은 면적 비율의 원으로 표시하였다. 지명 아래에 기입한 숫자는 1,000명 단위의 인구수이다. 적색 선은 군경계이다.” 이 외에 지도에는 하천유로가 표현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인구는 하천을 따라 분포하였다. ‘한국의 문화지리도’에서는 삼림·밭·논 지역을 채색으로, 전략지대, 12해리 이상 도달하는 등대, 광산, 공업도시 등은 기호로, 국경, 도계, 군계, 철도, 항공로, 해저케이블은 선으로 나타내었다.

두 번째 행정구역, 지형(지질 포함), 기후, 해류, 식생, 경지면적, 지역

구분, 인구, 도시, 무역, 여행경로 등에 관한 지도화 자료와 도표 자료를 실어 조선지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지도는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현대의 종이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다음의 인구밀도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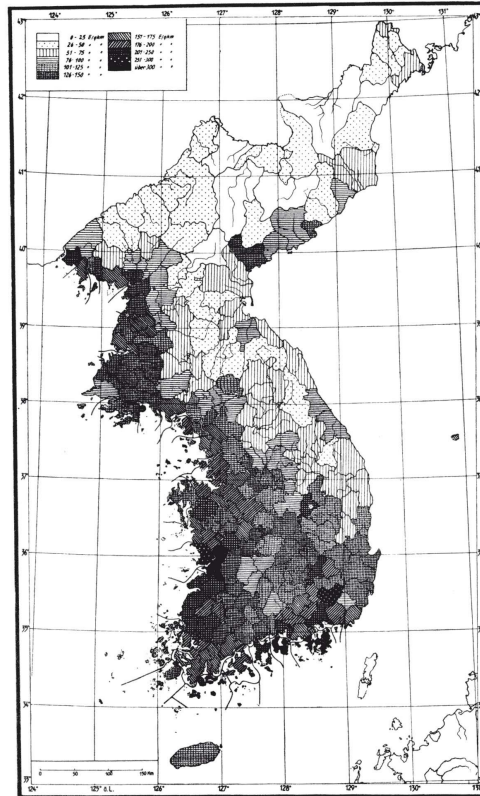


그림 7. 군별 인구밀도(1936)  
출처: 김종규 외(역), 1998:722

(2) 사진에 나타난 경관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지지는 윤화수의 <최신조선지리>, 豊川善曄의

<朝鮮鄉土地理>, 라우텐자흐의 <코리아>이고, 나머지 지지에는 사진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다. 이로 보아 대부분 일제강점기의 지지서들은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묘하게도 민족별로 각 1권씩의 조선지지에서 사진 자료를 활용했다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尹和洙의 <最新朝鮮地理>에는 19장의 사진 가운데 자연경관에 관한 것은 백두산 천지로서 1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18장은 모두 시가지, 문화, 교통, 산업, 상업 등 인문경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사진 자료명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최신조선지리>의 사진 경관

사진 제목	사진 제목
白頭山 天池(12) <sup>43)</sup>	淸津港(76)
金剛山 千佛巖(13)	三菱製鐵所(82)
開城附近 蓼圃(33)	京城市街의 中央(88)
明太魚의 凍乾(36)	과고다公園 寒水石塔(88)
稷山의 金坑(39)	仁川港(89)
朝鮮銀行 本店(44)	新羅古刹 佛國寺(105)
鴨綠江 開閉式鐵橋(64)	慶州의 鷄林(106)
平壤의 市街(68)	釜山船車連絡 停車場(110)
咸興市街(72)	龍井市街(118)
元山市街(72)	

豊川善曄의 <朝鮮鄉土地理>에서는 우선 內鮮融和, 神宮競技라는 용어로서 사진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보아 식민지 지지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두 번째 ‘즐기는, 발휘하는, 활기찬, 성공한, 약진하는, 동양제일의’와 같은 수식어로서 사진을 설명하고 있어 조선의 발전상을 알리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표 9).

내용은 산지·하천 등의 자연경관과 문화·산업·교통 등의 인문경관

43) 괄호 속의 숫자는 수록페이지를 나타낸 것으로, <조선향토지리>의 사진자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사진을 편집할 때 두 장을 서로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북선의 낙엽송림과 전남의 죽림, 북양과 남면, 독산조림 초년생과 8년목은 각각 서로 다른 사진 2장을 비교 편집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표 9. <조선향토지리>의 사진 경관

사진 제목	사진 제목
赴戰江 大貯水池(12)	東岸鯀의 大漁(浦項)(46)
多島海의 沿岸(木浦港)(13)	砂金採取(48)
北鮮의 落葉松林과 全南의 竹林(21)	동양 제일의 조선 질소 비료공장(50)
新羅 太祖武烈王陵(24)	우아한 高麗靑磁(52)
景福宮全景(27)	조선금융조합협회(56)
天長節의 餘興을 즐기는 內鮮融和(30)	京城驛(59)
半島의 最高學府 京城帝國大學(32)	羅津港(62)
힘! 조선에서 최고로 필요한 힘을 발휘하는 神宮競技(33)	蔚山飛行場(63)
自然征服의 適例 群山の 不二興業 干拓地(37)	京城南大門의 偉容(66)
활기찬 農夫의 김매기(38)	호남 영남의 경계 추풍령(69)
北羊南棉(39)	東津江 灌溉用水池(70)
肥大溫順한 朝鮮牛(41)	躍進하고 있는 大邱市街의 一部(72)
성공한 禿山造林 初年生과 八年木(同所)(44)	釜山牧之島間渡津橋圖(73)
	兼二浦 三菱製鐵所(75)
	압록강 상류의 풍경(76)
	日滿을 연결하는 上三峰國際橋(77)

라우텐자흐의 <코리아>에는 총 82장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하천(계곡)·산지·천지·칼데라 등의 지형과 식생에 관한 자연경관과 농업을 위시한 산업, 교통, 취락, 문화 등의 인문경관을 담고 있다.

우선 옛 한국의 인문지리학적 특성에는 한국인의 모습과 한국의 문화에 관한 사진 각 4장씩을 수록하고 있다. 한국인의 모습에 관한 사진 제목은 ① 평양 대동강안의 정자에 있는 한국인, ② 지계에 간장독을 지고 있는 한국인 용기쟁이, ③ 갓 위에 油紙 모자를 쓴 한국인, ④ 지계에 땀

감을 지고 있는 젊은 한국인이다. 문화에 관한 사진 제목은 ① 벼의 도정 작업(후면에 전형적인 한국의 초가지붕을 가진 토담집, 오른쪽 옆으로 집에서 떨어져 있는 온돌의 굴뚝), ② 서울에서 북쪽으로 20km 떨어진 Soguri 마을의 남쪽 입구에 있는 장승, ③ 서울의 북쪽 의정부에 건축 중인 한국 점포, ④ 태안반도의 전통적인 한국의 대농가(전면에 수박과 대마)이다. 이 사진들의 특징은 필자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진 제목을 자세하게 붙이고 부연설명까지 곁들여서 사진 자료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 있다.

두 번째 나머지 사진들은 제3부(한국의 여러 지역)에 수록되어 있는데, 지역 구분된 16개 소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진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부 동해안 지역에는 웅기항의 정어리, 개마 고원 지역에는 화전농가, 경기 지역과 수도 서울에는 경성 시가지에 관한 사진을 실는 경우이다. 사진이 수록되어 있지 않은 소지역도 있지만 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소지역에는 대개 2장(제주도)에서 12장(개마고원) 정도의 사진이 활용되었다. 이런 사진 경관 자료의 활용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일본인의 지지에는 사진 자료에 수식어로서 주관적인 해석을 첨부하였고, 서구인의 지지에는 지리적 현상에 관한 객관적인 수식어가 붙어 있다. 이것은 지리교과서와 연구지지라는 지지의 성격이 서로 상이한 데서 오는 차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저작 주체의 민족별 차이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사진으로 나타낸 경관에 관한 세 조건지 간 자료 량의 차이는 지리교과서와 전문적인 연구지지라는 자료 성격의 차이점에서 나온 결과이다.

### (3) 도표 자료와 조선지리

#### 1) 조선인

<신조선전지>의 통계표와 일람표는 명치 44년(1911) 12월말을 현재로 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 책이 통계와 일람을 모아 놓은 책이라고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지리 항목이 이것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에서는 각 장별로 그 해당 항목에 따른 내용을 지역별(도별·도시별)로 도표로 정리하였다. 지방각론에서는 각도에 걸쳐 부군별 面名과 부군별 인구수를 도표로서 처리하였다. 이러한 통계와 일람은 저자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신조선지리>에는 도표의 형식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구분선 없이 본문 글자체보다 작은 글자로, 오늘날 논문의 인용문장 또는 각주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이 도표는 거의 대부분 각 장의 말미에 부록과 같은 형태로 정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본문 글자와 같은 크기의 글자나 숫자로 구분선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행정구역이 이 경우에 속하는데, 각도의 도청소재지와 경성과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지리>에는 13도별로 도청소재지, 면적 및 인구를 나타낸 표와 朝鮮總督府의 現行官制, 鐵道路線一覽表, 工場의 資本 및 生産額增加比較表(일본인·조선인), 民族別金融資本投資比較表(일본인·조선인)에 관한 표가 있다.

<중등조선지리>에서 도표의 특징은 통계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만을 도표화 했다는 것이다. 다른 책에 보이는 일람표와 같은 것은 없었다. 그

리고 현재의 행정구역 수에 관한 것만 제외하고, 1939년부터 1942년 사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지>의 본문에는 조차와 기후에 관한 자연지리와, 농·임·어·광업과 공업, 무역, 교통에 관한 인문지리 도표 자료를 실었다. 부록에는 38개의 도표가 포함되어 있다. 기후, 호구, 각급 학교, 종교, 농업, 광업, 어업, 무역, 금융, 교통, 통신에 관한 자료이다.

남궁준의 <신조선전지>와 마찬가지로, <신편조선지지>도 통계자료 위주의 지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인문지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이는 라우텐자흐의 지적대로 조선총독부가 지역계획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대해 기초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통계자료를 이용해 조선지지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기후와 지형에 관한 자연지리와 인구, 교통(철도·항만), 통신, 전기, 행정(세입세출·수리조합 등), 종교(포교상황), 교육(각급학교일람), 재정(세입세출·지세·시가지세·은행), 전매(제조연초·소금), 농업(농작물생산액과 수출액·무역액·주요물품가격), 공업(내지인양조고·경영공장), 임업(임상별면적·식림사업), 광업(광산액), 척식사업(수리개간), 경찰(경무기관), 위생(의료기관·수도·전염병환자), 사법(재판소·출옥인보호기관), 주요유적, 군사(주둔지) 등에 관한 인문지리이다.

지방지지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각도의 토지매매가격(또는 1단보 당지가), 1단보 당 수확고를 도표화하고 있었다. 道나 郡에 따라서는 도로나 학교, 호구, 경지 및 미간지, 무역액 등도 도표화하였다.

<조선향토지리>에 표현된 도표의 특징은 동일 내용에 관해서 통계 자

료와 그래프를 함께 제시한 것에 있다. 두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各種生産年額表(농·공·수·임·광·축산)와 輸移出入重要品別表가 그것이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부연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도표가 있다. ‘쌀 수확고’라는 도표에는 다음과 같은 부연설명이 있다. “쌀은 각도의 경제를 좌우한다. 쌀 생산이 많은 도는 대체로 부유하다. 쌀 생산이 적은 도는 다른 산업으로 이를 보완하게 되어 있다.”(豊川善曄, 1935:38) 대부분의 도표들은 인구와 산업과 무역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조선신지지>에는 두 개의 도표가 있다. 산업별(농·임·수·광·공업) 생산액대조표와 도별 자·소작농비율표이다.

### 3) 서구인

<한국지>에서 도표로 나타낸 내용은 주로 기후, 인구, 무역 등 수량화가 용이한 내용을 통계표로서 제시하였다. <코리아>에서는 대부분 기후에 관한 자료이고, 나머지 일부분은 농업·어업 등 산업과 무역, 그리고 행정에 관한 자료에 한정되어 있다. 기후에 관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방지지의 각 지역에 관한 기후를 서술하면서 각 관측소(측후소)별 기온과 강수량에 관한 자료를 통계표로 작성한 것이 있다. 기온과 강수량 각각 1월과 7월의 통계자료를 제시하였고, 기온에는 연교차, 강수량에는 연강수량을 포함시켰다.

### (4) 통합 고찰

조선지지에 포함되어 있는 지도, 사진, 도표는 지지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시청각 자료이다. 시청각 자료는 지지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교수 학습 매체로서 유용한 방법이다. 지도·사진·도표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지지는 윤화수의 <최신조선지리>, 豊川善曄의 <조선향토지리>, 라우텐자흐의 <코리아> 등 세 권에 불과하다. 이미 거론한 바와 같이 <최신조선지리>와 <조선향토지리>는 지리교과서이고, <코리아>는 전문적인 연구지지라는 책의 성격 때문에 교과서는 학습 효과를 높이려고, 연구지지는 연구 결과를 지도, 사진 등을 통해 다양하게 제시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민족에 상관없이 지리교과서나 연구지지가 아닌 편찬지지로서의 성격이 강한 책들은 기존의 조사된 통계나 자료를 활용하여 지지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제3의 자료로 각색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었다. 40년대에 나온 조선인 및 일본인의 지지에서도 사진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인쇄기술의 낙후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지의 성격상 다양한 시청각 자료의 사용이 불필요하였기 때문에, 또는 발행 당시의 인쇄사정에 의해서 글과 통계표 위주의 지지로 구성하였다고 생각한다.

내용에 있어서는 통계 도표의 경우, 계량화가 가능한 부문, 즉 기후, 산업, 무역 등에서 작성되었고, 사진의 경우는 경제적 발전상, 문화 유적, 자연경관에 관한 것이며, 지도에는 일반도로서 지역개관도, 주제도로서 지역구분도, 지형도, 지질도, 기후도(등치선도), 시가도, 산물분포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앞의 세 권을 제외하고는 그림 자료의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 V. 조선지지의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 1. 영역 기술에 나타난 국토관

조선지지에 나타난 조선이라는 영역, 즉 위치와 경계를 기술하면서 활용한 용어나 기타 특수한 지명이나 조선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각 민족의 국토관 내지는 영토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 (1) 조선인

먼저 <신조선전지>는 조선인에 의해 편찬되었으나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용어들을 보면 일본인의 조선지지라고 느껴질 정도로 일본 지지서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그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朝鮮은 日本帝國의 西部니 亞細洲東端 支那大陸의 東北部에서 日本海와 黃海 渤海間에 突出한 半島及其附近小群島의 總稱이라.”(南宮濬, 1912:1)하였다.

그리고 <최신조선지리>에서는 조선영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我朝鮮은 亞細亞洲東北部에 在하니 支那大陸의 東北部로부터 黃海, 朝鮮海, 日本海의 間에 突出한 半島와 三千三百五의 小島로 되엿나니라.”(尹和洙, 1924:8)고 하였다.

이상의 두 책에 나타난 영역 기술에 나타난 국토관을 살펴보건대, ‘일본제국의 서부’와 ‘일본해’라는 명칭에서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본의 지지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옴으로써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조선지리>에서는 조선의 위치와 경계를 규정하기를, “朝鮮은 亞細亞

大陸의 東北쪽에 突出한 半島와 많은 屬島로 되었다. (중략) 朝鮮은 全土가 北溫帶안에 잇스며 北과 西는 長白山脈과 鴨綠, 豆滿 두 江으로써 滿洲와 지경하고 東北은 豆滿江下流를 隔하여 露領沿海洲에 沿하고 東은 東海를 건너서 日本本州와 相對하고 西는 黃海에 臨하고 南은 朝鮮海峽을 隔하여 日本對馬島와 相望한다.”(申明均, 1931:1)고 하였다.

여기서는 ‘동해’라는 명칭과 본국 본주나 본주라 하지 않고 ‘일본 본주’라 부른 것, 그리고 대마도라고 하지 않고 ‘일본 대마도’라고 표현한 것은 조선 중심의 주체적 국토관이라 생각된다.

<중등조선지리>에는 “우리나라는 아세아(Asia)大陸으로부터 東朝鮮海와 黃海間에 突出한 一大半島이며 北으로는 長白山脈 鴨綠江과 豆滿江(圖們江)으로 中華民國 滿洲地方과 소비에트(Soviet)聯邦 沿海洲에 接하였고 南은 南支那海에 臨하였으며 東南으로 日本에 對峙되어 있고 西쪽으로는 黃海를 건너 中華民國과 相望한 極東의 中心地帶를 占領하고 있다. 또한 東北쪽 寒帶地方에 突出한 “캄쵸카(Kamchatka)半島나 西南쪽 熱帶地方에 突出한 印度支那, 말레이(Malay) 兩半島와 比較할제 氣候上으로 보아 極端의 氣候를 피한 好位置이다.”(鄭洪憲 외, 1946:7)라고 조선의 위치와 경계를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동조선해’와 ‘극동의 중심지대’라는 명칭에서 조선 중심의 주체적 국토관을, 그리고 한대의 캄차카 반도나 열대의 인도차이나·말레이 반도와 비교하여 조선이 양호한 위치, 즉 ‘好位置’임을 내세우고 있어 긍정적인 국토관을 가진 내용이라 판단된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1910년대에서 1940년대로 오면서 조선에 대한 서술 관점이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에서 조선 중심의 주체적 국토관 내지 긍정적 국토관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지>에서 보면, “조선은 대일본제국의 일부분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지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전체의 지리를 개설해야 한다.”(日韓書房編輯部, 1912:1)고 하였다. 여기에서 ‘대일본제국의 일부분’이라는 표현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조선은 아세아대륙의 동단, 만주의 남쪽에 돌출한 일대반도이다. 극동은 울릉도 동단 동경 130도 54분, 극서는 압록강구 신도의 서단 동경 124도 13분, 극남은 제주도의 남단 북위 33도 12분, 극북은 함경북도의 북단 북위 42도 02분이며, 전국토가 북온대의 중심에 있다.”(윗글, 3)라고 하여 지리적 위치와 함께 수리적 위치도 표기하였다.

<신편조선지지>에 보면, “日本은 歐洲大戰亂 이후 世界 5대強國(日·英·米·佛·伊)의 한 國家로 一等國의 班列에 들어온 결과, 併合된 朝鮮도 역시 당연한 결과로서 一等國의 班列에 들어오게 되었다.”(日高友四郎, 1924:2)고 하여 일제의 은덕으로 조선이 일등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병합된 조선’이라는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을 드러낸 것이다.

또 같은 책(윗글, 2)에 나타나 있는 자연지리상의 위치(경위도상, 도서포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극동 동경 130도 56분 23초(경상북도 울릉도 죽도)  
극서 동경 124도 11분 00초(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마안도)  
극남 북위 33도 06분 40초(전라남도)  
극북 북위 43도 00분 36초(함경북도 온성군 유포면)

경위도상 수리적 위치의 정확정보다는 수치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보

다 과학적인 국토관을 엿볼 수 있고, 또 관점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으나 필자는 ‘죽도’라는 도서 명칭도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이라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조선의 영역을 자국의 영역에 완전히 강점시켰다고 하는 의지가 가득 담긴 지명 표기이기 때문이다.

<조선향토지리>에서는 “우리의 朝鮮은 본래 加羅, 三韓, 高麗, 韓國, 鷄林 등으로 불리는 獨立君主國이었으나 동양평화보존의 필요상 明治 43년 8월 자진해서 大日本帝國의 일부가 되어 천황폐하의 통치아래 一視同仁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위치는 동아시아의 요충지로써 좋은 항만이 풍부하고 교통편이 좋다. 그 위에 여러 가지 物産이 풍부하며 인구도 더욱 번식해서 훌륭한 문화를 만들어 내고 또한 대륙의 문물을 일본 본토 각지에 전해서 그 진보발전에 공헌한바 적지 않다. 그런데 근세에 와서 국세가 쇠퇴하여 산업도, 문화도 대단히 뒤쳐져 버렸다. 우리는 크게 그 산업을 개발하고 문화를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의 사정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豊川善曄, 1935: 1~2. 밑줄은 필자)고 하여 조선의 위치를 기술하고 있다.

밑줄 친 것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 일본은 조선이 대일본제국의 일부, 즉 식민지로 들어왔으니 우리 일본의 이익을 위해 뒤쳐져 있는 -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 조선의 산업과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리이다. 이것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침략의 명분으로 삼았던 오리엔탈리즘의 사고유형과 동일한 맥락이다.

<조선신지지>에서는 조선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 반도는 아시아대륙에서 일본열도의 중앙부를 향해 돌출한 반도이다. 옛날부터 대륙과 내지(일본)를 연결하는 廊下的 역할을 하였다. (중략) 양자(일본과 조선)는 융합 일치되어 특히 만주 건국 후에는 日滿經濟블력의

유대지역, 다시 현 전쟁에서는 대륙전진 병참기지로서 한반도가 일어나 황국애의 열성을 보였고, 지리적 위치에서의 반도의 사명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淺香幸雄, 1943:1. 괄호는 필자)고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조선의 지리적 위치와 함께 그 역할의 변화를 제국주의적 국토관에서 바라보았다. 朝·日간의 廊下的 역할에서 日·滿간의 紐帶的 역할로, 현재는 대륙전진 병참기지 역할로의 변화를 일본을 위한 조선반도의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전개한 일본인의 조선지지에 나타난 조선국토관을 요약하면, 정치경제적으로는 제국주의적 국토관이요, 학문적으로는 서구의 근대지리학을 일찍 수용한 흔적이 드러나는 과학적 국토관이었다.

### (3) 서구인

러시아 대장성의 <한국지>에 나타난 조선의 위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끝에 위치하며 소위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많은 섬들을 포함한다. 한국의 최북단 지점은 두만강(투-믄-울라)과 그 왼쪽 지류인 훈춘키(Chun’čunku)가 합류되는 부근으로 북위 43° 2’이며, 최남단 지점은 지파르트(Giffard)섬으로 북위 33° 7’이다. 최동단 지점은 다젤레트(Daželet)섬으로 동경 130° 54’이며, 최서단 지점은 압록강 입구의 동경 124° 34’이다.”(崔璇·金炳璘 譯, 1984:63)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4극 지점을 언급하면서, 남단의 ‘Giffard’와 동단의 ‘Daželet’라는 유럽어 지명을 사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조선을 탐험하거나 여행했던 유럽인의 기록을 본 연구서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저자는 조선 고유의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럽 각국의 지지 자료를

참고하였다는 증거가 나타나 있으므로 학문적 국토관으로 기술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라우텐자흐의 <코리아>에 나오는 조선의 위치에 대한 기술의 한 부분이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서쪽의 중국 북부와 동쪽의 일본열도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보다는 북쪽의 만주와 남쪽의 일본열도 끝 사이에 놓여 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한국은 북북서에서 남남동 방향으로 아시아 대륙에서 뺏어 나온 육교(陸橋)이며, 동시에 온대 몬순 아시아 지역의 순대륙성 지역과 해양성 지역 사이의 점이지대(漸移地帶)이다.”(김종규 외 역, <코리아> 1998:3)

여기서는 ‘점이지대’라는 용어로서 조선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다른 지지와 차이점이다. 이것은 그의 지지학 이론이 되는 형태변이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선의 위치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라우텐자흐의 관점을 학문적 국토관이라고 이름 붙여 본다.

이상에서 볼 때, 제3국인 서구인의 조선에 대한 관점은 지적 호기심에 기초한 학문적 국토관이라고 볼 수 있다.

#### (4) 통합고찰

전체적으로 보아 위치와 영역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된 용어나 지명으로써 살펴본 국토관은 민족에 따라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의 기술은 식민지 모국이라는 입장에서 제국주의적 국토관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인의 기술에서는 초기 일본 지지의 번역문을 제외하면 조선 중심의 주체적·긍정적 국토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서구인의 기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지적 호기심에 기초한 학문적 국토관에서 이루어졌다.

시기별로는 조선인의 조선지지에 나타난 국토관에서 변화가 있었다. 1910~20년대에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적 국토관이었던 것이 1930~40년대에 이르러서는 조선 중심의 주체적-공정적 국토관으로 변화되어 나타났다. 이는 일제강점기 후기에 이르러 저자의 지리지식 수준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조선강역을 주체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 2. 자연지리의 내용과 기술방법

### (1) 자연지리에 관한 분할 고찰

#### 1) 조선인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인의 조선지지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위치(경계·면적), 지형(산지·하천·평야·해양), 기후(기온·강우), 천산물(식물·동물·광물) 등의 자연지리가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지형에 관한 내용이 세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반도라는 지리적 위치로 인한 해안선과 해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등조선지리>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례지지에는 '지형'과 '기후'에 관한 항목에서 거의 유사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다.

그러면 자연지리 내용과 지리개념과 기술방법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신조선전지>(1912)의 '산맥'에 관한 내용에 나타난 특징은 산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고토분지로(小藤文次郎)가 「조선산악론」에 제시한 산맥론과는 다른 우리나라 전통지리학의 산줄기 개념과 일치하는

방법으로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의 山과 嶺의 脈을 정리하고 있다.

표 10. 조선지지의 자연지리 내용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조선 인 자	서명 저자 新朝鮮全誌 南宮濬	最新朝鮮地理 尹和洙	朝鮮地理 申明均	中等朝鮮地理 鄭洪憲·李箕燮· 李富星
	자연 지리 내용 총론 (위치, 폭원, 지세, 지질, 구획, 산맥, 하류, 조류, 기후, 기상, 생산물)	총론 (경위도·기후대·육지와해양·지도) 지문지리 (조선의 위치·면적, 지형·지세, 山徑, 水誌, 해안선, 도서, 평야, 해류, 기후, 생산물, 행정구역)	조선 (위치·면적·지방별칭) 지문 (지세, 해안과 해류, 기후, 천산물)	서설 (위치, 면적, 인구, 행정구획, 연혁) 자연총설 (산계, 수계, 평야, 호지, 해양, 생물지, 기후) 부록(지질개관)
일 본 인 자	서명 저자 最新朝鮮地誌 日韓書房編輯部	新編朝鮮地誌 日高友四郎	朝鮮鄉土地理 豊川善擘	朝鮮新地誌 淺香幸雄
	자연 지리 내용 자연지리 (叙論, 위치, 경계, 광무, 지세, 산맥, 하류, 지질, 연안, 도서, 해류, 조석, 기후, 동물·식물 및 광물)	자연지리 (명칭, 위치, 광무, 지세, 산계, 수계, 평야, 해안, 기상, 천산물)	우리의 조선 위치, 경역, 면적, 인구, 지세, 해안, 지질, 토양, 기후, 생물	위치 자연지리 (지세, 지세와 인문생활, 기후, 후와 인문생활)
외 국 인 자	韓國誌(1900년) 러시아대장성		코리아(1945년) 라우텐자흐	
	자연 지리 내용 한국의 지리 (나라의 위치와 면적, 국경선, 지형, 수로학, 섬)	한국의 지질 (서론, 지질개요, 주요암석) 한국의 기후, 식물, 동물 (기후, 식물, 동물)	지리·역사적배경 (지리적 위치와 경계, 지형개관) 자연과 고문화 (지질구조와 지형,	기후, 하천과 해양, 식생, 피복, 야생동물생활)

그리고 ‘지세와 지질’에 관한 내용에서 암석층과 토양, 농업, 분포지역을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표 11). 암석층 분포지역의 토양 특성과 특정 농업의 適否를 논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에 관한 기술방법의 특징은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의 원리로서 설명하는 방법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암석층으로 인해 토양의 특성이 결정되고, 또 토양의 특성으로 인해 농업의 특징뿐 아니라 농업의 적부까지도 결정된다는 원리를 기술한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결과적으로 암석층의 분포가 바로 농업의 분포를 결정한다는 결론으로 연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암석층과 토양 · 농업 · 분포지역

암석층	토 양	농 업	분 포
편마암	사질양토	미작 · 果樹 · 桑樹의 適地	과반
화강암	사질양토와 유사	수전(수리) 과수(농경 부적합지)	곳곳
고생층	양토 혹은 식토 +석력	미작(산곡계간의 수리이용), 상수 · 과수의 적지(산배이상의 경사지), 그 외 밭농사	북부(함경 · 평안 · 황해)와 남부(경상), 편마암지 다음으로 많음
중생층		가치 적음	1개소
제3기층	비옥하지 않음	농업과 거의 관련없음	협소
홍적층및 충적층	충적토	미작 · 紫雲英의 적지, 시비법	도처. 丘園臺地와 河海沿岸의 저지

또 강우의 측면에서 조선은 건조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일본의 강우량에 비해 조선의 강우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기인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과론적 설명의 한 예를 기후 현상에 관한 내용에서 더 살펴보자(표 12). 표는 북위 37도를 기준으로 한 남북 기후차이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산맥의 배치와 풍향(특히 남풍)에 의해 남부 지방은

기후풍대(온화한 기후), 북부 지방은 대륙성 기후가 분포한다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표 12. 남북 기후 차이의 원인과 결과

기후현상	원 인	결 과	기 준
남북의 기후차이	산맥의 배치와 풍향 남(남북방향-남쪽해풍의 계곡유입) 북(동서방향-남쪽해풍의 유입저해, 대륙영향)	남-기후풍대 (온화한기후) 북-시베리아대 륙성기후	남북분계(북위37도) 남-경상·전라·충 청(6도) 북-나머지 도(7도)

<최신조선지리>(1924)의 자연지리에서는 책의 맨 앞부분 총론에서 지구의 표면을 알아가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경위도(경선·위선), 기후대(열대·한대·온대), 육지(6대주)와 해양(5대양), 지도(표현법)로 나누어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구를 8대 행성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 지문학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기할만한 점은 경위도와 기후대 및 지도를 설명하면서 시각 자료인 그림을 함께 곁들여 설명하고 있는 점이다(그림 1~5 참조). 그리하여 이 부분은 오늘날의 지리서보다도 더 쉽게 설명되어 있다.

간도에서 발행된 지리교과서로서 <최신조선지리>에는 조선에서 발행된 지지에 비해 애국적 견지에서 기술한 보다 분명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표 13. 해안선의 연장과 문명 발달과의 관계

국가 문명 기준	조 선	세계의 문명국가	조선의 해당지방
만약 각국문명의 정도가 해안선의 연장에 비례한다면	조선반도는 실로 세계 문명국 중에 해안선 연장이 최고위를 점함	이태리 문명	중서남부의 문명은 이태리를 능가함

해안선의 연장과 문명발달과의 관계를 기술한 내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표 13).

표에서 보면, 저자는 문명의 정도가 해안선의 연장에 비례한다면, 해안선의 연장이 긴 조선반도는 이태리 문명과 같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가이며, 조선에서도 해안선이 가장 긴 중서남부 지방은 이태리 문명을 능가할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이는 라첼 政治地理學의 영향 - 海岸線屈曲率 - 을 받은 것으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추론이지만 저자는 이 책의 독자들에게 조선의 문명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기후에 관한 내용은 <신조선전지>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다만, 풍향에 대한 기술은 없고 안개(霧)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여기서 안개에 대한 기술 부분을 살펴보자.

“霧는 半島近海의 大障害物이라 每年 四五月부터 七八月에 至하는 間에 發生하여 大히 航海者를 苦게 하나니 其最甚한 處는 西海面이라 數日間 濃霧가 濛濛하여 咫尺을 不辨하며 南海面이 其次가 되고 東海面이 最少하니라.”(윤화수, 1924:26)

안개에 관해 기술하면서 기상현상의 발생시기·인문과의 관계·분포지역과 같은 개념을 선택하였다. 안개의 발생시기는 4,5~7,8월, 인문과의 관계는 근해의 大障害物로서 항해자를 어렵게 한다는 것, 안개 발생 지역은 서해면>남해면>동해면 순으로 많이 분포하는 것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서 안개가 항해자를 방해한다는 기술은 자연과 인문의 관계라는 地人相關의 인과론적 지지기술에 속한다.

<조선지리>(1931)의 자연지리 내용에서는 ‘河流’에서 하천의 유로방향을 地地相關의 입장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朝鮮은 半島의 脊梁山脈이 東쪽에 偏在하므로 東쪽 地方은 傾斜 峻急하여 豆滿江 外에는 이러타 活만한 河流업고 長江大河는 모다 西南方面에 흐르니.....”(申明均, 1931:47)

이 예를 인과론적 설명이라고 한 것은 척량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발달해 있음으로써 조선의 동부 지방에는 두만강 외 큰 하천이 없고 서남부 지방에 長江大河가 분포한다하여 척량산맥의 위치와 관계하는 경사도에 따라 하천의 발달정도를 결부시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특기할 점은 ‘식물’에서 대나무와 굴의 재배 북한계선(대나무: 한강 이남의 남쪽, 굴: 제주도만) 개념이 등장한 점이다.

<중등조선지리>(1946)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치, 즉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를 언급하면서 고위도와 저위도에 위치한 다른 반도에 비해 조선반도는 온대에 속하는 좋은 위치라고 하여 위치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기술하고 있다.

표 14. 조선의 지형구(1946년 조선인)

분류기준	지형구	특 징	산 맥
지질구조상의 추가령지구대	추북	넓고 험한 것	장백산맥 백두화산맥 마천령산맥 함경산맥 부전령산맥 개마대지 길주명천지구 단층애 臥礪산맥(낭림산맥) 강남·적유령·묘향· 멸악·마식령산맥
	추남	얇고 순한 편	태백산맥 광주·차령·소백·노령산맥 옥 천지향사 단층애(2단)

한편 조선인의 조선지지에서 지형 기술의 공통점 중의 하나는 바로 지형구 구분을 실시하였다는 것에 있다. 이전의 세 지지에 비해 본 지지가 갖는 특징은 지질구조의 측면에서 楸哥嶺地溝帶(Zone of Lift Valley)를

기준으로 삼아 楸北·楸南의 두 산계, 즉 두 地形區로 구분하였다는 점이 다(표 14). 추가령지구대를 기준으로 그 북쪽을 추북, 남쪽을 추남이라는 지형구 구분은 조선인의 지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내용이다.

또 우량이라는 기후현상을 인문생활과 관련시켜 기술하고 있다. 다음의 예를 보면, 하계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농작물 피해를 매년 입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자연과 인문의 인관관계를 인과적으로 기술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雨量은 比較的 적은 便이고 夏雨型이며 七, 八, 九, 3個月間에 豪雨로 年雨量의 約7割이 내리는 고로 洪水가 되어 農作物의 被害를 年年이 입는다.”(정홍헌 외, 1946:11)

이상에서 조선인의 지지에 나타난 자연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서두에 정리한 바와 같은 위치, 지형, 기후, 천산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지리개념의 측면에서는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가 주로 응용되었으며, 기술방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기술하는 등 지리현상을 단순히 기술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지지상관 또는 지인상관의 내용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지>(1912)에서는 먼저, 국토의 크기를 북해도 본도의 2배 반 이상에 해당하고 북해도, 사국, 구주, 대만, 화태를 합한 것보다는 크고 본주보다는 작다고 하여 일본 영토의 크기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조선의 백두산을 일본 후지산의 한 봉우리에 불과하고, 다른 산들은 구릉지 정도라고 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영토 크기와 산의 높이를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였다는 것은 일본 독자들을 염두에 둔 기술이라고 보아진다. 한편으로는 조선의 영토 크기와 산의 높이가 일본보다 좁고 낮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여 조선의 지형구를 구분하고 있다. 조선인의 지지에서는 1946년의 <중등조선지리>에 등장한 반면, 일본인의 지지에서는 이보다 앞선 1912년에 본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크게 두 가지 기준에 의한 조선 지형구를 제시하고 있다(표 15). 하나는 종관산맥을 기준으로 한 嶺背(일본해사면)·嶺西(황해사면)의 지형구이고, 다른 하나는 小藤文次郎의 죽가령구지대를 기준으로 한 북조선·남조선의 지형구가 그것이다. 그리하여 <중등조선지지>의 지형구 구분은 북조선이 추북으로, 남조선이 추남으로 바뀌었을 뿐 지형구 구분기준은 小藤文次郎의 지형구 구분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15. 조선의 지형구(1912년 일본인)

분류기준	지형구	특 징	해당지역(道)
반도의 종관산맥	嶺背(裏朝鮮, 일본해사면)	급사면 지역으로 두만강 외에 큰 강이 흐르지 않음	함경남북도, 강원도
	嶺西(表朝鮮, 황해사면)	완사면 지역으로 압록강, 한강 등을 비롯한 여러 큰 강이 흐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 기도, 충청남북도
小藤博士의 竹駕嶺溝地帶	북조선	용기에 의한 고산, 산맥, 대지, 협곡, 단애로 험준함	함경남북도, 평안남북 도, 황해도
	남조선	강원도는 험준하지만 나머 지는 구릉상 정도의 지형	경기, 강원,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저자는 조선반도 전체의 지형을 간단히 표현하여 이르기를 ‘北高南底, 東峻西緩, 中央部溝地帶’라고 하였다. 다른 어떤 책보다도 이 책에서는 小藤文次郎 博士가 1900년 전후로 15개월간의

답사로 정립한 「조선산악론」說에 준거하여 산맥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특기할만한 기술방법으로서 조선의 지질을 인체에 비유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편마암, 화강암, 현무암, 고생층, 중생층은 골격에, 충적층은 근육에 해당하며, 충적층이 부족한 조선을 瘦軀(과리한 몸)의鶴과 같은 할아버지에 비유하였다. 이는 조선을 비하하는 극한의 기술방법이다.

여기서 지질과 관련한 지지 내용이나 지리개념과 기술방법을 살펴보자. 지질은 자연지리와 및 인문지리와 깊은 관계가 있다. 지질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림·河流가 황폐하기 쉽고 기후가 건조하기 쉬워 풍물의 淒涼과 인정의 陰忍을 가져온다고 한다. 이는 지지상관과 동시에 지인상관(인정의 음인은 환경결정론적 사고)을 연계시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충적층의 토성은 礫質砂土 내지 壤質砂土(하천의 상류), 사질양토 같은 양토(중류), 양토 또는 壤質埴土(하류)라고 하여 분포개념을 적용하였다. 한편으로는 토양에 유기질 성분이 부족하고 토양층이 두껍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산력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농업경영에 있어 결코 비관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여 농업에 관한 긍정적인 정보를 일본의 조선 이주민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생층의 토지는 인삼과 그 외 특수작물에 적합하고, 또 화강암, 편마암, 현무암 등으로 이루어진 벽지의 산곡에 이르기까지 경지로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희망적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지질층과 토성, 토성과 풍물·인정, 토성과 농업을 연쇄적으로 관련시켜 기술한 것은 조선인의 <신조선전지>의 암석층에 관한 기술내용과 지리개념, 그리고 기술방법과 동일한 형식의 기술이다. 그 이유로서 짐작컨대, 이 두 책은 같은 시기(1912년)에 발행된 것으로 그 이전에 발행된 동일한 지지 자료를 각각 인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든 사례지에서 해안선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지지는 각 해안의 범위와 특징, 그리고 이용에 대해 잘 정리해 두고 있다(표 16). 해안선에 대한 관심은 학문적인 측면보다 경제적인 측면에 기인한 것인데, 이 역시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 토대한 기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표 16. 3면 해안선의 범위·특징과 이용

구분	지역	특징	이용
일본해연안	부산에서 두만강구에 이르는 해안선	굴곡 적고 도서 희박하여 극히 단조함. 해저에 암석이 많고 해수 청정하고 수심 깊어 碧海이며 조석간만의 차이가 적고 大河巨川이 없음.	漁港
조선해협연안	부산에서 진도의 瀨戶에 이르는 해안선	침식과 침강에 의해 특유의 岬角灣澳와 다도해를 이룸으로써 수륙의 관계가 극히 복잡하며 해안선은 매우 길고 경사는 동해안과 같이 급함.	良港
황해연안	진도의 뇌호에서 압록강구까지의 해안선	해안선 길이는 동해안보다 짧고 황해도의 장산곶에서는 현저하게 岬角을 이루고 동조선만의 반대측면으로서 서조선만이 나타남. 長江大河의 祖宗이 되는 곳은 대개 삼각강을 이루고 있는 고로 매우 굴곡이 심하고 도서가 많아 남해안을 방불케 함.	運航河 삼각강

그리고 반도연안에 있어 조석간만의 차이를 해안별로 비교하여 기술하고 있다.

“동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작고 서해안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혹자는 말하기를 일본해는 수심이 깊고 또 海門이 비교적 협애하여 外洋의 영향을 덜 받아서이고, 서해는 수심이 얕고 또 직접적으로 外洋의 영향을 받아 조차가 커진 것이다.”(日韓書房編輯部, 1912:49)

이와 같이 동서간의 조차 차이의 원인을 수심과 外洋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 이는 인과론적인 설명에 해당한다.

한편 북위 37도선을 기준하여 남부의 온화한 기후와 북부의 한랭한 기후로 구분하였는데, 이 부분도 조선인의 <신조선전지>와 같은 내용이다. 더불어 조선 각지의 연평균기온을 일본 지방에 대응시키고, 雨雪에서도 일본 지방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우설의 경우, 반도 중 최고로 강우가 많은 원산 부근과 부산 지방은 1,500mm 이상이고 북부 국경지방은 가장 적어서 겨우 600mm 정도인데 반해, 일본에서는 가장 적은 홋카이도(北海島) 지방이 900mm, 가장 많은 시코쿠(四國) 지방은 약 2,800mm로서 일본에 비하여 조선의 기후는 건조한 편이라 하였다.

<신편조선지지>(1924)의 자연지리에서는 ‘지형’ 기술부분에서 이조선과 표조선, 북조선과 남조선 등 두 가지로 조선의 지형구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과 해안선의 길이로 국운을 해석하고 있는 점은 앞의 <최신조선지지>(1912)와 동일한 유형의 기술 내용이다.

河流와 水害, 河流의 利用라는 항목에서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 대한 기술부분이 나타난다. 하천 상류 지방의 삼림남벌로 河水가 범람하여 도로·교량·제방이 파괴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치수·치산을 언급한 점과 하천의 이용에 있어서 주운이나 수력발전에 대해 관심을 나타낸 것은 그 좋은 예이다.

본서의 특기할만한 것은 조력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다는 점이다. 조차가 적은 곳에 항구가 발달하기 좋으며, 조차가 큰 곳은 전기라는 동력자원을 얻을 수 있는 조력발전소 입지에 유리하다고 하였다. 더불어 조력발전 건설 예정지로서 인천 서북 2리 강화도 남쪽연안이 입지라는 점과 조력발전소의 설비규모도 기술하였다.

이런 조력발전소의 유력지와 함께 조선의 양호한 과수 농업의 조건에

서 입지라는 지리개념이 지지기술에 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장기에 다우하고 수확기에 소우한 조선의 기후는 과수재배에 이상적이고, 또 과수시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증가하는 등 과수 농업을 유망한 사업으로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유망사업에 대한 지리정보의 소개는 일본 또는 조선의 농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조선향토지리>(1935)의 제1장 ‘우리의 조선’에 보면, 조선은 동아시아의 요충지로서 대륙의 문화를 일본에 전할 정도로 문화국이었지만 근세에 와서는 국세가 쇠퇴하여 산업도 문화도 뒤쳐졌다고 하면서, 우리 일본이 조선의 산업을 개발하고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먼저 요구되는 것은 조선에 관한 정보이며, 이런 정보의 습득은 향토지리를 배움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 본서에서 말하는 향토지리 학습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향토지리는 향토의 전국적 지위를 이해하고 그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상세하게 알아서 향토문화를 촉진하고 동포 국민의 번영을 꾀하고자 하는데 배움의 목적이 있다.”(豊川善曄, 1935:2)

여기서 알 수 있는 지리 학습의 내용 요소는 향토의 지역성, 향토의 자연과 인문의 관계라는 지리적 지식 측면과 향토의 문화 진흥, 국민의 번영이라는 지리적 응용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지의 위치는 정치경제적 가치(지가)로서 그 중요성을 매긴다. 따라서 지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그 위치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였다. 조선의 위치는 유럽·미국·극동을 연결하는 大幹, 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 좋은 위치이며, 특히 이제 후로는 일본의 대륙진출이 진행될수록 조선의 중요성이 더 빛을 발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日滿經濟 블록(bloc)의 전략요충지로서, 대륙병참 기지로서 조선을 이용하였던 시대적 맥락을 이 지리교과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면적·인구에서는 조선의 면적과 인구를 연결시켜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뿐 아니라 도별로 면적·인구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인구증가를 국운발전의 기초로 보고 중요시하여 다루었다.

본서의 특기할만한 점은 산지를 ‘ㅅ’자형에, 전체윤곽을 ‘서쪽을 향해 뻗다리로 서있는 토끼’에 비유하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산맥은 豸(발 없는 벌레 ‘치’)자형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지형을 표현함에 있어 지리교과서답게 시각적인 인지효과가 뛰어난 한자의 형상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전체 윤곽을 ‘토끼’에 비유한 것은 조선인의 ‘호랑이’ 형상 비유와 차이가 크며, 이는 조선을 비하하여 표현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산지나 산맥의 하류로서 5대강(압록강·대동강·한강·금강·낙동강)과 그 이용(수운·관개), 그리고 조선 문화의 5대 地帶로까지 연결시켜 기술하였는데, 이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이해되는 기술방법이다. 또한 脊梁分水嶺 동쪽의 급경사지를 이용한 유로변경 수력발전과 이것을 이용하는 공업을 연계시켜 기술하였다. 일례로서 함경남도 부전강의 대수력 발전소는 높이 700m의 낙차를 이용해서 16만kW의 수력전기를 얻고 있으며, 이 전기를 흥남에 있는 질소비료 공장에 이용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불리한 자연환경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환경가능론의 기술 유형이라고 생각한다.

지질과 토양, 기온의 남북차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로서 “조선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남부해안 일대는 13도로 북진할수록 점차 낮아져서 중앙부에서는 10도내에 국경부근에 이르러서는 4도 내지 3도로

떨어진다. 이와 같은 남북의 차이는 대체로 동계기온의 강하에 기인한 것이며 하계기온은 남북이 모두 큰 차이가 없다.”(豊川善擘, 1935:17~18)라고 한데서 알 수 있다.

표 17. 기후대와 인문 활동

기후대	구분 기준		농목업	인간의 문화활동
	위 치	기 온		
열 대	적도~남북위23.5도	연평균기온 20℃ 이상	야자수 성장	심신이 완료되어 권태에 빠짐
온 대	23.5도~66.5도	하계평균기온 10℃ 이상	오곡결실 가축번식	심신이 상쾌해서 문화가 진보함
한 대	66.5도~남북극	하계평균기온 10℃ 이하	불모의 동토	심신이 위축되어 문화가 발전하지 못함

그리고 기후대를 열대·온대·한대로 구분하고, 그 기후와 인문의 관계를 환경결정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조선이 온대 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활동을 하기에 쾌적한 곳이라고 분석한데서 알 수 있다. 또 본서의 기온에 의한 기후구분은 쾨펜(Köppen)의 기후구분 기준<sup>44)</sup>과 달랐다(표 17). 표는 위도적 위치와 기온에 의거해 열대·온대·냉대로서 기후대를 구분하고, 그 각 기후대별로 농업의 특징과 인간의 문화활동을 연관시켜 설명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신지지>(1943)의 자연지리는 위치와 자연지리라는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위치를 서론으로서 기술하였고, 자연지리에서는 지세와 기후를 언급하고 그 각각과 인문생활을 연결시켜 기술하였다. 즉

44) 쾨펜의 기후구분(기온)에서는 열대를 최한월평균기온 18℃ 이상, 온대를 최한월평균기온 -3~18℃, 한대를 최한월평균기온 10℃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인상관의 기술방법으로 지지를 서술하였다.

위치에서는 대륙과 일본의 교량적 역할을 하는 조선반도를 강조하였다. 특히 ‘地緣的 同根同祖’에 기초한 한일합방과 日滿經濟 블록의 紐帶地域과 대륙전진 병참기지로서의 반도의 사명을 기술하였다. 이는 지정학적 가치 지역으로서 조선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것은 조선지지를 둘러싼 시대적 맥락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반도산지의 지형과 지질적 주향을 아래 표 18과 같이 정리하였다. 이는 지질에 기초하여 산지의 방향을 나누고, 그 각 방향의 산지에 해당하는 산맥을 나타낸 것이다. 조선·지나·요동방향의 산지는 21세기의 지지도에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다. 다만 그 이름은 한국·중국·라오등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다.

표 18. 산지의 지질적 주향

산지의 지질적 주향	방 위	지 형	비 고
조선방향	북북서-남남동	태백산맥	조선의 특수한 것
지나방향	북동-남서	노령산맥·차령산맥 추가령지구	조선의 현저한 것
요동방향	동북동-서남서	강남산맥·묘향산맥	요동반도의 주축인 것

반도의 산지에서는 카르스트, 침식분지 등과 같은 이전 시기의 지지에 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다른 유형의 산지를 소개하고 있다. 그 만큼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본서가 발행된 1943년 사이에 조선반도에 관한 지형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다.

‘지세와 인문생활’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반도의 경지율(22.3%)이 일본(16%)보다 높은 것은 하성평야가 넓어서가 아니라 노년기 지형이 경지로

개간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풍수설은 반도의 지형과 기후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생활과학이다. 셋째, 산림 황폐의 원인은 남벌과 함께 화강암의 지질 특성으로서 모암의 연약과 얇은 토층과 토양이 쉽게 유실되는 것에 기인한다. 넷째, 중요 광물자원의 대부분은 고기암석층을 모암으로 한다. 다섯째, 금광상을 포함한 암석이 침식·붕괴되어 河床에 퇴적된 것에서 사금을 채취한다. 여섯째, 선박의 출입에 적합한 만이 많고(서남해안), 평야를 배후지로 끼고 있어(서해안) 漁港 또는 商港이 발달되어 있다. 일곱째, 반도근해의 해류는 기후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 연안어족을 풍부하게 한다. 여덟째, 황해안의 큰 조차로 인해 인천항의 갑문식독(dock)과 군산의 뜬다리부두가 만들어졌고, 넓은 갯벌을 이용해 양식하며, 또 때로는 간척하고, 조차를 이용한 조력발전도 연구 중에 있다.

이를 요약하면, 지세와 인문생활에서는 노년기 지형과 경지, 지형과 생활양식, 산림 황폐와 화강암의 지질특성, 광물자원과 고기암석층, 하상 퇴적지형과 사금채취, 灣과 港口, 해류와 기후·어장, 조차와 항구시설·조력발전 등과 같이 地人·人地相關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 나타난 기술방법의 특징은 편풍을 기온 동서차의 원인으로 제시하면서 자칫 편풍이라는 용어를 모를 수도 있는 독자를 위해 괄호 속에 용어정의를 해 두었다는 점이다. 기후요소를 종합하여 기후구를 구분하여 지도로서 표현하였다(그림 8). 이는 지형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함경지방, 낙랑지방, 동한지방, 서한지방, 북구주지방 등 5개 기후구로 나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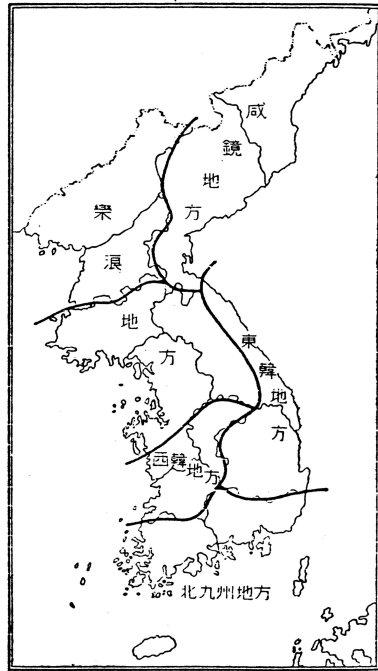


그림 8. 기후구  
(출처: 淺香幸雄, 1943:7)

마지막으로 ‘기후와 인문생활’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도 ‘지세와 인문생활’과 마찬가지로 여덟 가지의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의 다양성은 농축임산의 입지다양성에 관계한다. 둘째, 하계에 고온다우하고 일조시수가 많은 것은 벼농사에 좋은 조건이다. 셋째, 겨울의 긴 추위는 의식주 생활이나 생산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온돌, 田자형 주거, 온반, 김치 등의 생활양식이 대표적이다. 넷째, 겨울 건조에 견딜 수 있는 溝蔴농경법이 발달하였다. 다섯째, 겨울의 북서풍에 대비하는 지형 및 지물 방풍법과 동서방향의 이랑재배법을 발달시켰다. 여섯째, 일조량이 많고 건조한 것은 농작물의 품질을 좋게 하고, 면화재배나 양잠사육에 좋은 조건이 된다. 일곱째, 강수량의 분포가 남은 많고 북은 적다는 것은

전작물의 재배법에도 영향을 주어 株間距離가 남선에서는 좁고 북선에서는 넓다. 여덟째, 강수량의 계절적 편향성(한해·홍수)은 옛날부터 인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였다.

이를 정리해 보면, 기후와 인문생활에서는 기후와 산업의 입지, 하계 고온다우와 벼농사, 겨울 추위와 생활양식, 겨울건조와 구시농경, 겨울 북서풍과 방풍 및 농경법, 일조량과 농업, 강수량과 작물재배법, 강수량의 계절적 변동과 인문생활등과 같이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인의 지지에 나타난 자연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위치(경계·면적), 지형(지세·해안), 기후, 천산물로 정리된다. 이 중에서 교통로서의 하천, 농업과 관계하는 지형 및 기후, 금광상과 관련된 지질에 관심이 지대하였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진행되어온 조선의 자원수탈과 관계한다. 그리고 지세 기술에 있어서는 고토분지로의 논문에 기초하여 기술하였다. 지리개념의 측면에서는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입지가 주로 응용되었으며, 기술방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기술하는 등 지리현상을 단순히 기술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지지상관 또는 지인상관의 내용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일본과 조선의 자연현상을 비교하였으며, 지형을 사람이나 동물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특히 비교와 비유에 의한 기술은 일본인의 우월적인 사고가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다.

### 3) 서구인

<한국지>(1900)의 자연지리에 속한 부분은 한국의 지리(제2장), 한국

의 지질(제3장), 한국의 기후·식물·동물(제4장)에 수록되어 있어, 자연 지리라고 따로 분리되어 기술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해안’에 관한 내용을 보면, 해안은 동해안과 서해안에 따라 그 성격(만, 섬, 수심, 조차 등)이 다르다고 하면서, 각 만의 폭과 수심, 정박항의 깊이를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灣과 港의 폭과 수심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첩보에 가까운 사항으로 그 만큼 러시아가 조선의 항만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가슈케비치 만을 먼저 언급하고 남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있는 만을 순서대로 나열하였는데, 예게르만에서부터 압록강만까지 모두 29개의 만에 대해 언급하였다. 다음의 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만에 대한 기술이 상세한 것은 不凍의 良港을 탐색하는 데에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

“② 이스토민·나히모프·코르닐로프 만 : 곤차로프 섬의 육지를 향한 부분에는 세 개의 만이 있다. 이들의 이름은 서쪽으로부터 이스토민 만(폭 250싸젠<sup>45)</sup>, 깊이 300싸젠), 나히모프 만(폭 250싸젠, 깊이 450싸젠), 코르닐로프 만(폭 400싸젠, 깊이 2½베르스타<sup>46)</sup>)이다. 모든 바람들로부터 막혀 있고 얼지 않기 때문에 이 만들은 매우 훌륭한 정박항이 될 수 있다. 해협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폭은 서쪽이 600싸젠, 동쪽이 800싸젠이다.”(최선·김병린 역, 1984본문:68)

본서에 나타난 식물(삼림)의 분포와 水路와의 상관성을 기술한 부분이 흥미롭다. 삼림은 눈을 서서히 녹게 하여 봄에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며, 빗물의 증발을 상당히 감소시켜 여름에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속도를 훨씬 느리게 만든다고 하여 삼림의 분포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따라서 주변에 삼림이 풍부한 북부지방의 강들은, 특히 압록강은 중부와 남부지방의 강들에 비해 수위

45) 1싸젠은 약 2.134m에 해당한다.

46) 1베르스타는 약 1.067km에 해당한다.

변화의 폭이 훨씬 더 적다고 하여 지지상관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천의 특성은 가항구간에도 영향을 주어 다음의 표 1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압록강의 가항구간이 280베르스타로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9. 주요 하천의 가항 구간(돛단배)

하 천	가항구간(베르스타)	하 천	가항구간(베르스타)
압록강	280(위원)	영산강	약 90(거의 나주)
청천강	70이상(영변)	섬진강	약 30
대동강	약120(평양)	낙동강	약230
한 강	약130(서울)	두만강	약 20
백마강	약50(강경) 작은 배는 100(회인)		

계속해서 하천을 소개하면서 남해유역의 낙동강을 동해유역의 하천에 포함시킨 점이 이채롭다. 하천 수로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자.

“두만강의 수로는 상당히 변동이 심하다. 강에 있는 사주들이 거의 매일 위치를 변화시켜서 뱃길에 심한 방해가 된다. 하구에서 약 100베르스타 떨어져 있는 훈춘까지의 하류에는 선심이 1½ 피이트<sup>47)</sup> 이하인 평저선이 다닐 수 있고 경흥까지는 바다의 화물선이 다닐 수 있다.”(최선·김병린 역, 1984본문:89)

“낙동강에서는 약 230베르스타 가량의 구간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데, 하구에서 밀양에 이르는 하류의 약 70베르스타 가량에는 선심 5피이트 되는 기선들도 다닐 수 있고, 밀양에서 130베르스타 올라가는 사문까지는 선심이 4피이트 되는 커다란 범선들이 다닐 수 있으며, 상주까지는 조그만 범선들이 다닐 수 있다.”(최선·김병린 역, 1984본문:93)

47) 1피이트(feet)는 0.3048m에 해당한다.

하천의 수로 구간에 따라 가항할 수 있는 배의 크기를 자세히 언급한 것을 보면, 항만과 함께 하천 수로 교통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로의 조건이 이처럼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낙동강의 수로는 아직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고 저자는 슬회하였다.

저자는 기후에 관해 기술하면서, 기후에 관한 참고 논문(1894년, 1887년)을 제시하였다. 기후를 다음과 같은 항목 - 계절풍기후, 주요기류, 구름과 강수량, 등온선, 연평균기온, 특수기후, 동결, 제물포항의 기후, 결론 - 으로 전개하여 기술하였다. 이와 같은 기술 체재는 본서가 한국의 기후를 연구하여 결론을 내리는 연구지지로서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자연지리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기술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가 유럽대륙과 다른 기후특징을 보이는 것을 계절풍의 영향으로 해석하고 이런 계절풍이 조선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쳐서 겨울에 서북풍과 북풍이 불고, 여름에는 동해안에 동풍과 남동풍이 분다.’라고 기술한 것과 또 관측소의 월별 강수량 자료를 이용하여 ‘동해안에는 서해안보다 안개가 덜 발생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로서 서해안에는 매일 밀물이 들어올 때 물에 젖게 되는 넓은 면적으로 인한 것이라고 기술한 데서 알 수 있다.

한편 구름과 강수량의 분포시기를 동위도의 지중해 연안과 중앙아시아와 비교하였다. 이들 나라에서는 한국과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이 나라들에서는 여름이 건조하고 연중 구름이 없는 계절이며 겨울은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끼는 계절이었다. 아래의 도표(표 20), 즉 ‘연간 강수량의 백분율’로서 기후의 지역차를 증명하였다.

표 20. 연간 강수량의 백분율

도시명	12월	7월	도시명	12월	7월
아테네	14	0.7	부 산	4.0	21
시실리	15	1.4	서 울	4.5	27
타시켄트	20	0.1	제물포	5.0	25

출처: 최선·김병린 역, 1984본문:146

기온의 지역차를 기술하였는데, 한 예로 ‘제물포나 서울의 겨울은 거의 2° 가량 북쪽에 위치하는 원산보다 더 춥다.’를 산(지형)에 의한 편풍과 바다의 수심차이로 설명하였다.

기후에 관한 결론에서, 저자는 한국의 기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름답고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한국의 기후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① 한국은 산지국이기 때문에 나라의 지역마다 매우 다양한 기후를 나타낸다.
- ② 한국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므로 여름에는 보통 덥고 겨울에는 반대로 춥다. 한편 봄이 가을보다 춥다는 것은 한국의 기후가 해양성 기후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③ 일년 중 가장 더운 달은 8월이고, 가장 추운 달은 1월이다.
- ④ 한국의 기후는 평균적으로 보아 같은 위도에 있는 유럽의 기후보다 낮다.
- ⑤ 한국의 남부지방은 북부지방보다 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 ⑥ 한국의 동해안 기후는 서해안 기후보다 부드럽다.
- ⑦ 한국의 북서부에 있는 강들과 만들은 겨울에 얼어붙으며 북위 37° 이북에는 배가 다닐 수 없다. 한국의 동쪽바다는 항구에서도 얼음에 덮이는 일이 없다.
- ⑧ 한국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구름이 많이 끼며 강수량이 많다.
- ⑨ 겨울은 추운 날씨를 보이지만 산지에만 눈이 많이 내리며 특히 서쪽 사면에 눈이 많이 내린다.
- ⑩ 한국의 기후는 인접국인 일본과 북부 중국의 기후와 다르며 이 두 기후의 중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⑪ 한국의 기후는 전체적으로 건강에 좋다. 가장 건강에 좋고 쾌적한 절기는 가을과 봄이다.

저자는 아래에서와 같이 인간의 주생활 양식, 즉 연료용 목재벌채에서 림 황폐의 원인을 찾고 있으며, 따라서 삼림의 울창한(또는 벌거숭이) 정도는 벌채에 영향을 주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인가 또는 희박한 지역인가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해로 향하는 한국북부의 산지의 경사면들은 극히 적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나무도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 상태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어떤 물리적·지리적 조건에 있기보다는 이곳 주민들에게 있는 것이다. 동해의 해안을 따라 옛날부터 거주하던 주민들은 이곳의 나무들을 모두 베어버렸던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이 나라의 기후적 특성, 즉 항상 연료를 위하여서 또 주로 어린 나무와 관목들이 많이 들어가는 극히 수명이 짧은 주목을 짓기 위해서 항상 나무를 준비해야 하는 기후적 특성 때문에 숲을 망치게 되었다. (중략) 어쩌서 한반도의 인구조밀지역에는 대부분의 숲이 망쳐졌는지 그 진정한 원인을 이해할 것이다.”(최선·김병린 역, 1984본문:159)

서해안의 식물로는 북서단에서 만주 식물과 일치하고, 중부에서는 소나무가 주로 자라며, 내륙을 향해 동쪽으로 갈수록 식물은 점점 더 다양해진다고 하여 식물의 수평적 분포를 기술하였다. 한편 습한 기후와 많은 구름은 한국의 과일과 열매의 맛을 좋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장마철 등의 우기에 해당하는 과일의 맛을 기술하였을 것으로 본다. 만약 청정한 가을에 다양한 과일을 맛보았다면 이와는 다른 내용으로 지지를 기술하였을 것이다.

<코리아>(1945)의 자연지리는 제1부(지리·역사적 배경)의 지리적 위치와 경계, 지형개관, 그리고 제2부(자연과 고문화)의 지질구조와 지형,

기후, 하천과 해양, 식생피복, 야생동물생활로 구성되었다.

조선의 지리적 위치는 북쪽의 만주와 남쪽의 일본열도 끝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면서 아시아 대륙에서 뻗어 나온 육교이며, 동시에 온대 몬순 아시아 지역의 대륙성·해양성 지역 사이의 접이지대라고 하였다. <한국지>에서도 접이지대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접이지대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었다.

본서에는 다른 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빙기·후빙기의 해수면 승강과 지형의 관계로 반도의 해안지형을 설명한 것이 그것이다. 빙하지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였던 서구(특히 독일)의 연구 풍토와 관련이 깊은 내용이다. 한편 조선의 면적(220,741km<sup>2</sup>)을 일본 혼슈, 영국, 이탈리아 육지부 면적과 비슷하다고 비교하였다. 이에서 보면, 전자의 기술은 지지상관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후자의 기술은 비교방법에 의한 기술이다.

청천강-성천강 선을 기준으로 이북을 대륙부, 이남을 반도부라 하였고, 경동지괴의 특성을 가진 북동지역을 제외한 조선의 척량산맥, 즉 낭림·태백 양 산맥을 하나로 합쳐서 ‘朝鮮主山脈’이라 이름하였다. 조선주산맥이란 용어는 기존의 지형에 관한 용어를 저자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한 것이다. 이런 유형의 기술은 다른 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 예로서는 추가령지구대를 ‘楸哥嶺裂谷’으로, 개마고원을 ‘蓋馬高地’로 고쳐 부르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이는 연구 지지다운 면모인 것이다.

또한 저자는 기후요소의 지역분포와 계절변화 그리고 기후요소간의 상호관계를 천후과정의 발생적 분석을 통해서 이해하려 하였다. 즉 기단, 저기압, 태풍, 등압선도 등을 분석하였는데, 여름계절풍 자체보다는 저기압에 기인하여 많은 강수량을 나타낸다고 기술하고 있다. 요약컨대 저자는 조선의 기후권은 시간적(계절적)으로나 공간적(지역적)으로 접이지대

의 특성이 완벽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고 있었다.

그리고 쾨펜(Köppen)의 기후구분도에 의거해, 저자는 조선 기후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하였다. 조선을 ① C 기후와 D 기후의 경계지역, ② 온대기후의 동계건조(w)지역과 연중습윤(f)지역 간의 경계지역으로 보았다. 저자는 반도의 공간적 규모를 고려하여 정확한 임계수치를 사용하기 보다는 순수한 정성적 특성으로 조선의 기후 지역을 구분하였다(표 21).

표 21은 조선의 기후지역별 기후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후지역은 대 지역 4개, 소지역 13개로 이루어져 있고, 기후특성은 기온, 강수, 계절(겨울·여름)을 주요 요소로 삼아 기술하였다. 특히 기후지역 구분도를 함께 수록하여 기후지역에 관한 이해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그림 9).

이와 유사하게 식생에서도 상록활엽수림·하록혼합림·침엽수림의 분포를 식생지리구분도라는 지도를 통해 설명하였다(그림 10). 그 중에 하록혼합림은 다시 4개의 지대로 나누었는데,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① 대나무 지대, ② 때죽나무 지대, ③ 참나무 지대, ④ 단풍나무 지대를 나타내었다. 이 지도는 앞서 설명한 기후지역 구분도와 함께 연구지로서의 한 방법인 분포를 나타내는 좋은 예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서구인의 지지에 나타난 자연지리의 특징을 정리하면, 내용적인 면에서는 위치(경계·면적), 지형(지질·산지·해안), 기후, 생물(식물·동물)로 정리된다. 지리개념의 측면에서는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점이지대, 자연지역구분이 주로 응용되었으며, 기술방법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분포를 기술하는 등 지리현상을 단순히 기술하였지만, 한편에서는 지지상관 또는 지인상관의 내용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세계 여러 지역과 조선의 자연현상을 비교하였다. 무엇보다도 서구인의 지지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각종 문헌과 답사에 기초하여 조선의 자연현상을 고찰

하여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형식의 귀납법적 연구지지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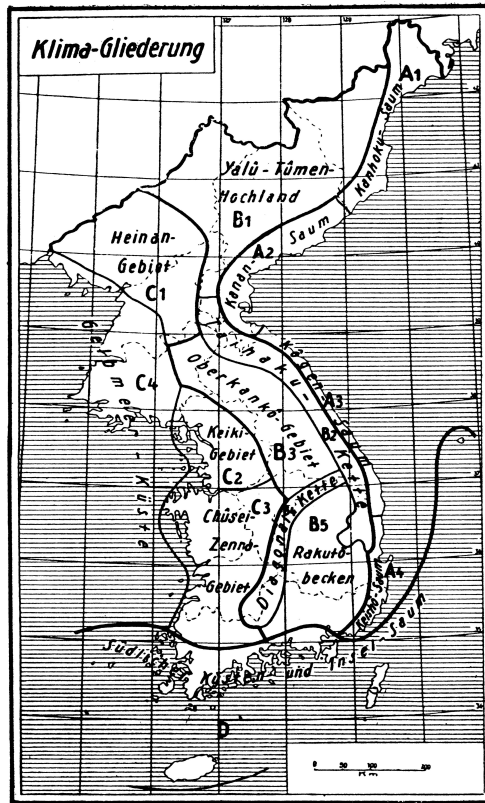


그림 9. 기후 구분  
출처: 김종규 외(역), 199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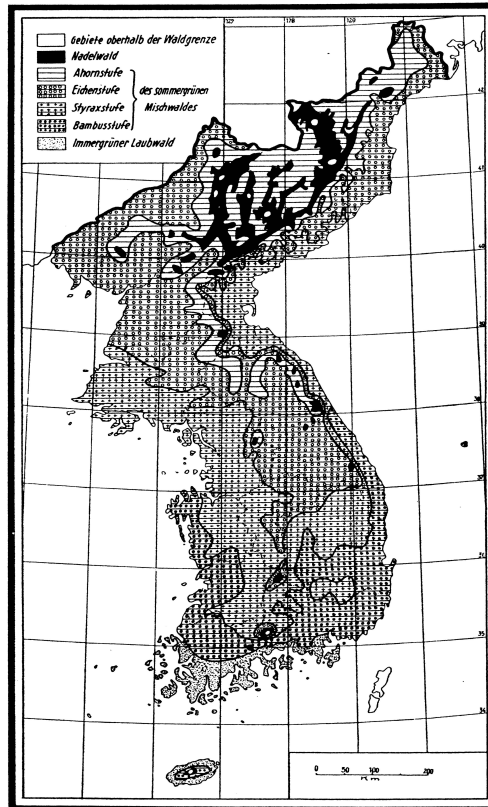


그림 10. 식생 지리 구분  
출처: 김종규 외(역), 1998:226

표 21. 조선의 기후지역 구분

대지역		소지역	
기후지역	기후특성	기후지역	기후특성
A. 동해안 지역	조선의 해양 외측. 비교적 온화한 겨울과 서늘한 여름. 비교적 적은 강수량	1. 함북해안	매우 적은 강수량(특히 겨울). 추운 겨울. 서늘한 여름. 많은 여름 안개.
		2. 함남해안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이 증가하고 겨울 기온이 상승. 췌. 비교적 온난한 봄과 가을.
		3. 강원도 해안(강릉)	비교적 풍부한 겨울 강수량. 매우 온화한 겨울. 비교적 서늘한 여름.
		4. 경상도 해안	비교적 풍부한 겨울 강수량. 매우 온화한 겨울. 더운 여름. 안개 적음.
B. 중부 중심 지역	대륙성 기후의 경향	1. 압록강-두만강-고원(중강진)	한겨울에 안개 낀 분지에서 기온역전 및 찬 공기와 빈번한 강설이 있는 혹한의 복사기후. 7월 최고기온. 연교차의 극대치. 적은 강수량.
		2. 태백산맥(온정리)	산악성 기후. 겨울에 눈이 많고 여름에 안개와 비가 많음. 겨울의 추위는 위도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
		3. 한강상류(춘천)	대륙성의 강수량의 연변화와 강수량의 대륙성 감소. 큰 기온 연교차의 경향.
		4. 소맥산맥	B2의 남부와 유사한 산악성 기후. 여전히 비교적 추운 겨울.
		5. 낙동분지	적은 강수량과 더운 여름을 가진 분지 지역. 대륙적 기후요소. 비교적 많은 강설일수. 큰 기온의 일교차.
C. 서부 지역	대륙을 향한 한국의 외측	1. 평안	풍부한 연강수량. 추운 겨울, 더운 여름.
		2. 경기(강화)	보통 추운 겨울 더운 여름. 풍부한 강수량. 여름에 매우 높은 강수 강도.
		3. 충청-전라	온화한 겨울 더운 여름. 풍부한 강수량. 겨울에도 비교적 강수량이 많음.
		4. 황해안(서도)	비교적 작은 기온연교차. 매우 적은 강수량. 강한 여름 안개.
D. 남부해안 지역과 도서지역(울릉도, 제주)		1월 평균최저기온 $-3^{\circ}\text{C}$ 이상 1월 평균기온 $0^{\circ}\text{C}$ 이상. 드문 강설현상. 매우 풍부한 강수량. 도서에는 겨울에도 강수량 많음. 높은 강수강도. 연중 높은 상대습도와 운량.	

## (2) 자연지리에 관한 통합 고찰

### 1) 자연지리 내용

이상에서 자연지리에 관한 내용을 분할하여 고찰한 결과, 지지는 조선인·일본인의 지지와 서구인의 지지라는 2가지 유형의 지지로 나누어진다. 자연 현상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기술할 때에는 주관의 개입하기 때문에 민족별로 다른 관점에서 지지가 기술된 까닭이다. 그래서 어떤 내용은 중요시 되지만 또 어떤 내용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게 다루어졌다. 이는 지지 체재의 차이에 기인하여 당초 전자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지는 편찬지지로서, 후자의 서구인의 지지는 연구지지로서 기획되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자연지리 내용은 위치(경계·면적), 지형(산지·하천·평야·해안), 기후, 천산물(식물·동물·광물)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위치(경계·면적), 지형(지질·산지·해안), 기후, 생물(식물·동물)이다. 시기별로는 전자의 경우, 내용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인과 조선인의 조선지지가 학문적으로 한 테두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한국지>(1900)에서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던 해수면 변동에 의한 해안지형, 백두산 일대의 빙하지형 등에 관한 내용이 <코레아>(1945)에는 포함되어 있어 약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 2) 지리개념의 응용

자연지리에서 다루어진 주요 지리개념은 조선인의 경우, 첫째는 조선의

위치이며, 둘째는 자연 현상의 지역 분포(지역차 포함)이고, 셋째는 자연과 자연의 관계이며, 넷째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이다. 일본인의 경우는 조선인의 조선지지에 나타난 지리개념에다 입지 개념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두 민족의 지리개념은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동반하였다. 즉 일제강점기 전기에는 자연 현상 자체나 그 분포를 기술하는데 치중하였다면, 후기에는 새로운 자연 현상을 추가하거나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 대한 기술 비중이 전기보다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후기에는 일본인의 <조선향토지리>(1935)에서 자연과 인문의 상관관계를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이 지리개념에 대한 애착이 강하였기 때문이다.

“인류는 그 생활하는 환경의 다름에 따라서 이것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며 여기에 민족을 형성하고 자연도 또한 그 거주하는 민족의 특성에 응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자연·인문의 상관관계라 한다. 지리학은 주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주로 자연의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자연지리라 하고, 문화의 상태를 주로 조사하는 것을 인문지리라 한다.”(豊川善曄, 1935:22)

사실 자연과 인문의 상관관계는 오랫동안 지리학의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 해왔던 개념이다. 이 지리개념이 주로 응용된 분야는 대부분 지형·기후와 관계하는 인간의 생활양식과 산업에 집중되고 있었다.

서구인 조선지지의 경우, 그 주요 지리개념은 전술한 조선인·일본인의 지리개념에다 점이지대와 자연지역구분이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 라우텐자흐의 <코레아>에 나타난 지리개념으로서 그의 조선지지 연구의 방법론인 형태변이론을 조선반도에 적용한 결과로 등장한 것이다. 자연지역구분과 점이지대는 서로 관련성이 큰 지리개념인데, 그 이유는 기후지역구분이나 식생지역구분을 행한 결과로서 조선반도가 대륙과 해양의 점이지대로서의 지역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3) 자연지리 기술방법

사례 지지를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유력한 조선지리 기술방법이 파악되었다. 첫째 자연지리에 흐르는 가장 큰 기술방법은 자연현상과 그 분포를 단순하게 나열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 방법은 산과 하천이 어디에 있고, 이 지역의 기온은 몇 도이며, 식생은 어떤 종류가 피복되어 있는가에 대한 자연지리적 사실이나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것이다.

둘째 자연과 자연의 관계(地地相關) 또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地人相關)에 대하여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신명균의 <조선지리> 도별 기술에는 ‘지세와 산물’이라는 항목이 있다. 지세를 자연에, 산물을 인문에 대입하면 지세와 산물은 자연과 인문의 관계, 즉 자연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인문, 자연을 이용하는 인문과 같은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을 설명할 때 인과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조선지리>에 기술된 실례를 보자.

“이 山脈의 南쪽 바다가으로는 土地가 조금 低平한데가 잇지마는 그 北쪽은 대개 高山峻嶺이 서로 連해서 농사지을만한 땅이 업스므로 米穀가튼 것은 產出이 적으나 山林은 자못 만해서 豆滿江上流에는 略二十萬町步의 大森林이 잇고.....”(申明均, 1931:6)

여기서 저자는 ‘고산준령으로 인해 미곡산출이 적고 삼림이 풍부하다’고 하여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다른 지역의 자연 현상과 비교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 기술방법은 조선의 위치와 기후에 관한 기술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다. 극단의 기후를 가진 다른 반도와 비교해 조선반도는 기후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한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이는 기후가 불리한 다른 반도의 위치와 비교함

으로써 조선의 상대적 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해석은 지정학<sup>48)</sup>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다. 김교신도 「조선지리소고」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선의 위치를 긍정적으로 파악하여 독자에게 조선의 앞날에 대해 희망을 불어 넣었던 적이 있었다.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은 자연지리 기술방법의 핵심이다.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는 지지상관, 지인상관과 결부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환경결정론·가능론의 입장에서 기술하는 방법과 지형을 동물이나 한자로 형상화하는 비유법이 있다.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선 기술방법은 기후의 영향과 지방주민의 성질과의 관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기후와 인간의 문화활동을 연결시켜 온대 기후이기 때문에 인간의 문화활동이 활발하다.’라고 한 것은 이에 해당하는 좋은 예이다. 가능론의 입장에 선 기술방법은 자연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방향의 기술방법으로 주로 지역개발, 예를 들면 황해안의 간척지, 함경산맥 급사면의 수력발전소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연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지형을 동물이나 문자에 비유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 조선인은 조선의 지형윤곽을 호랑이에 비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인은 토끼에 비유한 것과 같은 비유 기술 방법이다. 또 산맥만 상상하고 토양층이 풍부하지 못한 조선의 지형을 ‘파리한 학과 같은 할아버지’에 비유한다든지, 조선의 산맥을 한자 豸(발없는 벌레 치)로 나타낸 예도 있다.

---

48) ‘지정학’이라는 단어는 19세기가 끝나갈 무렵, 스웨덴의 역사학자이자 정치학자인 루돌프 키엘렌(Rudolf Kjellen, 1846-1922)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지정학을 ‘공간에서 표현되는 지리적 조직으로서의 국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국가는 나라로서의, 영토로서의, 보다 명확하게는 제국으로서의 국가를 뜻한다고 하였다(이대회·최연구 역, 1997:34).

### 3. 인문지리의 내용과 기술방법

#### (1) 인문지리에 관한 분할 고찰

여기서는 각각의 책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과 지리개념, 그리고 기술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조선지지의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목차를 정리한 것이다(표 22).

##### 1) 조선인

<신조선전지>(1912)는 조선인의 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지 기술에 이용한 각종 자료는 명치 44년(1911)기준 조선총독부 자료에 근거한 것이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본의 근대문물이 도입된 결과 나타난 조선의 발전상을 이전의 미발달된 조선의 것과 대조하여 지역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런 기술은 일본인의 <최신조선지지>(1912)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신학문의 도래와 신교육으로서 일제의 조선교육령을 말하고, 또 위생사상이 충분하지 못한 위생상태와 그 유치한 설비, 그리고 위생개선에 대해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조선인의 뒤떨어진 농업기술이 일본의 개량지도로 점차 發達改新되고 있다고 한 예에서 알 수 있다. 또 조선은 교통이 발달되지 못하였으나 근래에는 도로의 개축과 철도의 부설과 기타 운수기관의 설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 점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표 22. 조선지지의 인문지리 내용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조선인	서명 저자	新朝鮮全誌	最新朝鮮地理	朝鮮地理	中等朝鮮地理
		南宮濬	尹和洙	申明均	鄭洪憲·李箕燮·李富星
인문지리 내용	총론 (호구, 통치기관, 사회계급, 풍속, 성질, 교육, 위생, 농업, 어업, 상업, 교통, 통신)	인문지리 (산업, 교통, 통신, 종교, 제도, 교육, 인구)	인문 (주민, 제도, 교통, 산업)	인문총설 (산업, 교통)	
일본인	서명 저자	最新朝鮮地誌	新編朝鮮地誌	朝鮮鄉土地理	朝鮮新地誌
		日韓書房編輯部	日高友四郎	豊川善曄	淺香幸雄
인문지리 내용	인문지리 (주민, 호구, 언어, 위생, 교통, 통수, 통인, 통문자, 통종교, 통산업, 통운수, 통통신)	인문지리 (민족, 호구, 속·습관, 통사, 통행정, 통사·통신사, 통교·통교육, 통경제, 통전매, 통척식, 통위생, 통적·통유물, 통군사)	문화의 발전(상) 문화의 발전(하) 문명산업(상) 문명산업(중) 문명산업(하) 교·통	경제지리 (산업개관, 임업, 수산업, 공업, 교통, 인구)	
외국인	서명 저자	韓國誌(1900년)		코리아(1945년)	
		러시아대장성		라우텐자흐	
인문지리 내용	한국의 도로와 교 통수단 한국의 주민 한국의 종교 한국의 언어 한국의 교육	한국의 산업 한국의 상업 국가제도 행정 사법 한국의 군대 한국의 재정	지리·역사적 배경 (지명과 그 표기, 행정구역구분, 지 리상의 발견과 탐 험의 역사)	자연과 고문화 (옛 한국의 인문 지리학적 특성) 일본의 해외속령 한국	

특기할만한 내용은 ‘성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인의 성질이 지세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하여 환경결정론적 입장에서 기술한 부분이 있다. 그 좋은 예는 다음과 같다.<sup>49)</sup>

“朝鮮人은 大概 溫柔寬直호야 謹厚好古호고 神經質의 人보다 粘液質의 人이 多호며 心志는 老衰호기 易호고 一般히 從順模倣의 長處가 有호는 深奧호 研究와 堅強호 忍耐에 乏호고 外形의 發衣를 善호호며 且其 程度는 地勢를 隨호야 差異가 有호니 今에 此를 左如히 分說호노라.”(南宮濬, 1912:65)

기후의 지역차로 인한 식생분포의 차이 - 한대림(북부지방), 온대림(중·남부지방), 난대림(최남부지방) - 를 언급하고, 삼림이 풍부해야 할 지역이지만 임업부재와 남벌로 목재나 펄감이 부족하다고 한 점은 지지상관 또는 지인상관에 대한 기술내용이다. 그리고 전통공업과 그 분포지를 언급하고, 풍부한 광물의 종류와 그 생산지를 기술하며, 상업이 발달한 주요 도읍을 도표로 나타낸 것은 분포라는 지리개념을 응용한 기술방법이다.

<최신조선지리>(1924)의 인문지리 편에서, 먼저 농업에 관한 기술의 일부를 살펴보자. “我朝鮮은 山地가 多하고 平野가 少할지라도 地味가 肥沃하야 農産物의 種類가 豊富하니.....”(尹和洙, 1924:31)라고 하여 평야가 협소한 불리한 농업조건보다는 토양이 비옥하여 농산물의 종류가 풍부하다는 측면을 더 강조한 것으로 보아 긍정적 국토관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임업에 있어서는 임야 면적이 넓어 임업발달에 유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我朝鮮地方은 林野의 面積이 全面積의 七割三分을 占함을 不拘하고 古來로 樹木을 濫伐하고 植栽에 注意치 아니하야 到處에 秃山과 荒野가 多하니.....”(尹和洙, 1924:34)라고 하여 수목을 남벌하고 식재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곳곳에 독산과 황야가 많다고 한다. 이 표현은 <신조선전지>(1912)의 임업

---

49) <신조선전지>에는 지방별로 그 각 성질의 유형을 정리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지역차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에 관한 기술과 동일한 내용이다.

셋째 제염업의 한 구절을 보면, “我朝鮮地方은 一般히 降雨가 少하고 空氣가 乾燥하여 製鹽業이 甚히 便利함으로써 沿海到處에 製鹽業이 업는 곳이 업고.....” (尹和洙, 1924:36)라고 하여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은 강수량이 적고 대기가 건조하여 제염업이 발달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원료산지공업을 그 생산지와 함께 기술하고, 광물과 그 생산지를 나타내었으며, 상업의 중심지와 도로, 철도 등의 분포를 기술하고 있다.

<조선지리>(1931)의 인문지리에 관한 기술에서는 우선, 저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나타난다. 다른 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국어학자<sup>50)</sup>와 관계있는 기술이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즉, “朝鮮人은 일즉부터 世界에 冠絶한 自國文字를 가졌스나 무슨 비트러진 생각이 들었는지 이것을 賤待하여 쓰지안코 그 어려운 漢文을 尙상하여 少數의 兩班階級이 此를 解讀하기에 힘쓸뿐이요 國民의 大部分은 無識한 文盲이엇스며.....”(申明均, 1931: 59)라고 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글의 우수성과 더불어 빈민의 교육소외, 파탄에 빠져 있는 조선인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어 다른 책들과는 달리 조선인 고유의 색깔이 진하게 배어 있다. 그런데 조선인 생활과탄에 대한 이유를 합방 이전의 전제정치와 외적의 침입, 그리고 조선말 탐관오리와 토호양반의 주구와 토색, 그리고 합방 이후의 대자본가의 침투에서 찾았기 때문에 인문과 인문이라는 人人相關의 내용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토지를 떠난(빼앗긴) 농민들이 어떻게 하여 해외이주민의 처지가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내용에서도 인문과 인문의 인과관계로서 설명하

---

50) <조선지리>의 저자 신명균은 국어학자였다.

고 있다.

“農業은 朝鮮의 氣候와 國土에 適宜하고 또 現在 全人口의 八割以上이 此에 從事하는 主要産業이었으나 近來 土地所有가 작구 內外 大資本家의 手中으로 移動 賣渡 또는 典當形式으로 되매 土地를 떠난 農民들은 日備勞働者가 되어 혹은 工場建築場에서 或은 大農場에서 或은 鐵道에서 港灣에서 漁場에서 自己의 勞働力을 팔어 生活하다가 이것도 못하게 되면 日本, 滿洲等地로 살길을 차자서 彷徨하게 된다.”(申明均, 1931:71)

내용면에서 임업, 각종 어업의 어장 형성지와 제염업, 전통공업, 상업 등의 항목은 앞에서 기술한 <최신조선지리>(1924)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것이다. 이런 내용 중복 현상은 자연지리 분야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중등조선지리>(1946)에서는 인문지리로서 산업(농업, 축산, 공업, 수산업, 광업, 임업, 상업)과 교통(도로, 철도, 항로, 항공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현대 지리학적인 분류에 의하면 경제지리에 속한 내용이다.

각 산업의 분포를 기술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부록에 있는 각종 농작물에 관한 분포도와 여타 가축과 어종에 관한 분포도가 이를 잘 증명한다. 그리고 가정공업과 공장공업으로 대별하여 공업을 기술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각 제품과 그 생산지를 소개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업발전의 원동력(수력발전)과 함께 공업지역을 기술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교통 중 도로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요 노선과 도로의 등급을 기술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인의 <신편조선지리>(1924)에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표 23참조). 도로의 등급은 중심지 계층과 관계하여 결정된 것이어서, 도로등급을 보면 어떤 규모의 중심지들 간을 연결한 도로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에서 조선인의 지지에 나타난 인문지리의 특징은 일제강점기 후기로 오면서 기술 항목 수가 1910년대 16개 항목, 1920년대 7개 항목, 1930년대 5개 항목, 1940년대 2개 항목 등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남은 항목은 산업과 교통이었으며, 이는 조선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도 현실적 실용적 노선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산업과 교통은 특히 일제 말기에 전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용이다.

인문지리의 주요 내용에는 산업, 교통, 제도, 인구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지리개념으로는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인문과 인문의 관계, 공업지역, 중심지, 지역의 변화 등이 응용되었다. 그리고 인문지리 기술방법으로서 단순 기술하는 방법 외에 지인상관과 인인상관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환경결정론적 사고에서 나온 기술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 2) 일본인

<최신조선지지>(1912)의 제2편 인문지리는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 전체 쪽수가 454쪽인데, 그 중 222쪽(pp.63~384)에 걸쳐 인문지리이고 그 가운데 다시 130쪽(pp.141~370)이 '산업'이라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흡사 이 책을 경제지리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저자는 반도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조선인은 다민족의 혈통을 지닌 종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타 종족과 타 민족의 영향을 받아 혼혈 종족이 되었음을 기술한 것이다. 민족적으로 동일문화

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기술내용이다. 라우텐자흐는 조선이 반도의 점이지대이지만 대륙이나 해양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경탄해 하였었다.

조선의 인구수를 논의하면서, 顧問시대의 조사(약 978만 명)와 内部의 조사(약 1,296만 명), 도지부의 조사(1,236만 명), 마지막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사(13,126,257명: 1910년 12월말 현재)를 포함한 여러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제시함으로써 인구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로 개항장에 제한되어 있던 일본인의 거주지역이 철도의 개통, 관아의 증설과 및 지방의 개발로 인해 확대되고 있다고 하여 지역의 변화를 인인상관의 관점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신문명은 점점 조선인의 위생사상을 환기시키고, 위생상의 시설의약기관도 점차 완비되어 전염병도 감소하였다고 기술함으로써 일본근대문명의 우수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합방의 由來와 顛末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즉 [한국병합전말서], [詔書], [諭告], [병합조약], [조선의 新官制] 등을 제시하였다. 정치적으로 한일합방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려는 취지에서 나온 기술 내용이다.

제일 비중 있게 다룬 ‘산업’에서는 농업과 관련하여 既墾地(8도의 경지총면적·도서경지총면적·도내주요기간지개황), 未墾地(8도의 미간지전면적·미간지분포·도내주요미간지개황), 전지매매가격과 그 수익, 소작제도(賭租를 병행한 타작), 전제, 田畑를 지칭하는 용어 등 토지 관련 항목에 많은 정보를 실었는데, 이는 일제 초기 토지에 관한 일본인의 관심이 그 만큼 높았음을 의미한다. 초기 일본인의 조선이주가 농업 이민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여기에는 이주민의 실질적인 경제 기반인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조선 통치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치적 속셈도 한 몫 하였다.

저자는 삼림황폐의 원인을 남벌, 화전개척, 화강암·편마암류와 같은 연암층에 대한 풍화침식의 용이, 기후 건조, 하계 폭우시 붕괴 등에서 찾고 있다. 이는 다른 책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인상관 또는 인인상관에 대한 인과론적 설명의 전형적인 예이다.

본서에서는 산림식물의 분포상태를 수평적·수직적 분포로 나누었으며, 수평적인 분포는 차령산맥(지세와 기후에 의한 기준)을 지표로 이북은 만주 시베리아계에, 이남은 일본계에 속한다고 하였고, 수직적 분포는 제주도 적용하여 내지(일본)의 동위도 지방보다 비교적 식물 분포고도가 낮다고 하여 지역구분지표에 의해 수평적 분포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수직적 분포를 기술하였다.

금·사금·철·석탄·흑연광의 위치, 연혁, 지세, 광상 등 전반적인 상황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이는 광산업을 반도 제일의 富源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교통과 관련하여 개수된 도로, 철도의 부설현황, 증기선의 연안항로를 소개하고, 또 통신과 관련한 우편 시설의 확대를 다루어 일제강점 이전과 이후의 조선의 변화상을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신편조선지지>(1924)의 인문지리에서도 <최신조선지지>에 기술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선은 예부터 교통이 편리하여 여러 민족이 혼합되어 있는 민족이라 하였다. 이는 일본이 조선을 강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빈번히 일어난 일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며, 또 단일 민족을 내세웠던 민족의 정신세계를 교란시키려 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표 23. 도로의 등급

도로등급	정 의	연장(리는 일본단위)
1등도로 (폭원4間이상, 구배 1/30이상)	· 경성에서 도청소재지, 주요 무역항 또는 철도정차장에 이르는 도로 · 군사상의 주요도로 · 경제상의 특히 주요한 도로	17개 노선 (794리)
2등도로 (폭원3間이상, 구배 1/25이상)	· 인접 도청소재지와 연락하는 도로 · 도청소재지 관할의 부청 또는 군청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도청소재지에서 특히 중요한 도내 요지에 이르는 도로 · 도내 요지간과 같은 인접 도내요지간의 연락도로	79개 노선 (2,393리)
3등도로	· 인접 부청 또는 군청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 부청 또는 군청소재지에서 부군내 요지지점에 이르는 도로 · 부군내 요지간과 같은 인접부군내 요지간을 연락하는 도로	419개 노선 (2,841리)
등외도로	· 이상의 각등에 속하지 않는 도로	

저자는 주요한 도로를 3등급으로 제시하고(표 23), 정기항로의 유형을 5가지로 정리하였으며, 각 하천의 가항구간을 선박톤수별로 하여 소개하는 등 교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정기항로의 5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조선 내에 한정된 것, ② 일본을 기점으로 하여 조선을 왕래하는 것, ③ 일본을 기점으로 하고 조선을 경유하여 외국을 왕래하는 것, ④ 조선을 기점으로 하고 일본 또는 외국을 왕래하는 것, ⑤ 외국을 기점으로 하고 조선을 왕래하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이 조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또 철저히 정치경제적으로 조선을 이용하기 위해 얼마만큼 근대 교통에 관심을 기울였나를 알게 해준다.

저자는 농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다루면서 기후와 경지라는 항목에서 이르기를, “조선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수 등의 천연적 현상이 내지와 비교하여 유리하므로 각종 작물의 재배에 적합하고, 양잠, 축산 등에도 좋다.”(日高友四郎, 1924:189)고 하면서 이것을 천혜로 해석하고, 지인상

관의 관점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경지면적 중에는 소작과 천수답이 많았으나 소작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천수답을 해결하기 위해 총독부에서는 수리조합 설립과 堤堰深 수축을 적극 장려하였다. 또 경지면적을 늘리기 위해 하천 황무지, 간석지, 산록환경사지에 대한 개간 및 간척 사업을 국고 보조로 독려하였다. 이처럼 경지면적을 늘리고, 경지이용률을 높여 일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강압적으로 조선인을 지역개발에 동원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분명한 증거는 ‘척식사업’을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여기서 다룬 내용의 주요 항목을 보면 토지경영, 농사개량, 식림경영, 죽림경영, 수리개간, 이민사업, 자금대부 등으로서, 결국 척식사업의 목적은 조선의 기간산업인 농업에 침투하여 조선인의 농업을 일본인에게 넘겨주는 데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서는 민족에서 경찰, 사범에 이르기까지 항목-내용으로 점철된 조선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하고도 많은 내용을 나열하여 기술하고 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는 데에 있어 유용하게 참고하였을 책이다.

이전 시기(1912, 1924)의 두 책이 지역계획에 관한 내용을 실은 관찬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면, <조선향토지리>(1935)는 중등학교 학생교육에 이용할 목적으로 편찬된 책이다. 인문지리에 관한 내용은 우선 문화의 발전이라는 주제를 걸고 조선 문화를 다루고 있는 장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자는 문화의 발전을 삼한에서 한일합방까지의 조선민족의 역사(文化 上章)와 한일합방 이후의 문화발전(文化 下章)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첫째 조선민족의 역사를 임나일본부설의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그는 또 자연과 문화를 관계시켜 문화를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인간이 그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이용하는 정신적·

물질적 일체의 활동과 그 성과를 인문 또는 문화라 한다.”(豊川善曄, 1935:22)고 하여 가능론적 입장에서 문화를 정의하였다.

둘째 한일합방 이후의 문화발전은 전적으로 일본이 조선의 문화적 개발에 힘쓴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독부 기관을 중심으로 인문 - 재정, 지방정치, 사법, 군비, 교육, 조선신궁, 종교, 예술 - 에 관한 것이다. 문화발전에 대한 결론으로 內鮮渾一의 새로운 동양문화를 창출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철저하게 일본 중심의 제국주의적 사고를 지지를 통해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이라는 제목이 달린 내용이 3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학습량에 따른 교수시간의 단순한 구분이지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장 구분에 구애됨 없이 농업·축산업·임업·수산업·광업·공업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서도 다음과 같은 지인상관의 인과론적 설명의 예를 찾아볼 수 있었다.

“조선은 위치가 좋고 땅이 비옥하며 기후 또한 동식물의 번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은 극히 빛나는 앞날을 가지고 있다.”(豊川善曄, 1935:35)

본서에 나타난 특징으로서 농업 입지에 대한 기술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농업의 입지조건으로서 대소비지(시장)의 역할을 말하고 이를 조선에 적용하였다. 그것인즉, 조선은 일본이라는 대소비지 부근에 위치하여 채소, 과수 등의 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선농업의 특징을 북유럽의 덴마크 농업 발달에 미친 지리적 위치(대소비지 서유럽의 주변적 위치)의 영향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이렇게 근교 농업의 특징을 언급한 책은 사례지지 중 유일한 경우이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광산업을 최고로 보았던 경향에서 이제(1930년

대)는 이것과 함께 공업도 가장 유망한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공업을 유망한 사업으로 꼽은 이유로서 조선은 인구가 많고 과잉노동력과 공업 원료가 풍부하며 석탄·수력 등 동력이 많고 관로가 크고 편리하며 수입품의 70%가 공업제품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입지조건을 들었다. 더불어 저자는 장래 발전할 공업지구로서 평안남도공업지대(원료)·경인공업지대(시장)·함경남도공업지대(전력)·부산공업지대(항만교통)를 꼽았다.

또한 저자는 조선의 위치상 편리할 수밖에 없는 교통을 강조하면서, “특히 철도는 국방·통치상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의 보급과 산업의 개발에도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총독부는 극력 그 발달에 힘을 기울였다.”(豊川善曄, 1935:58~59)고 하였다. 이것은 앞의 시대적 맥락에서 언급했듯이 교통의 개발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야욕에 기인한 것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표현인 것이다.

<조선신지지>(1943)에서 인문지리는 ‘경제지리’라는 제목으로 장을 열었다. 산업을 개관하고 농업(축산포함), 임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 인구 등을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현재(1943)의 전쟁체제하에서는 어떠한 산업도 皇國家의 목적완수에 봉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그 중에서도 공업과 광물자원의 채굴이 가장 발달하고 있는 산업임을 천명하였다.

한편 저자는 근대의 반도산업이 발달하게 된 계기를 네 시기, 즉 제1기(1910-1919), 제2기(1920-1931), 제3기(1932-1941), 제4기(1942-)로 구분하였다. 사회기반시설과 미곡증산, 발전사업, 북선루트(route)개발, 남면북양·산금장려, 대륙전진 병참기지 등의 주요 시책들이 시기별로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

공업의 경우, 수력전기와 만주국 시장형성에 기인하여 현재와 같은 근대공업이 발달하였다 하여 인인상관의 관점에서 지지를 기술하고 있다. 조선의 공업지역과 그 입지요인을 중심으로 본서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하였다(아래 표 참조). 이 중에서 북선 및 경인 공업지대를 가장 전형적인 공업지대로 평가하였다. 이들 공업지대는 이전 시기의 <조선향토지리>(1935)에서 장래 발전할 공업지구로 소개되었었다.

표 24. 공업 지대와 그 입지 요인

공업지대	주요공업지역	공업유형	입지요인
북 선	홍남 성진 길주 청진 아오지	중화학공업	풍부한 수력발전, 원료자원 풍부, 교통편리
서 선	해주 대동강하류 압록강하류	중공업, 화학공업	수력, 석탄 등의 원료자원 풍부, 교통편리, 용수풍부
경 인	경성 인천	생활필수품 제조업	대소비지, 정치·금융적 편리, 교통중심지
호 남	군산 전주 광주 목포	경공업, 정미업, 축산가공업	농산자원·노동력풍부
남선해안	부산 마산 진해	중소기업(전구 섬유 고무 조선)	수륙교통의 편리

상업에 관한 항목에서 보면, 장날은 주민들에게 자가제품을 판매하고 생활필수품을 구매하는 場임과 동시에 하나의 사교오락장으로서 知人과 담소를 나누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하여 시장의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까지 담당하는 장으로서 기술한 것이다.

교통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日滿連絡이라는, 다시 말해서 일본과 만주 사이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조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철도교통의 발달에 따른 하천교통의 쇠퇴를 기술하였

다는 점도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이는 새로운 근대교통의 등장과 기존 교통의 쇠퇴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술이라 하겠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의도하였던 목적을 결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조선인은 충성보국·신애협력·인고단련의 교육에 의한 황국신민의 동포로서 황국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이상에서 일본인의 지지에 나타난 인문지리의 특징은 1920년대까지는 조선에 관한 백과사전과 같은 지지 기술에서 핵심을 강조하는 주제 중심의 지지 기술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인문지리를 나타내는 이름도 경제지리라고 할 정도로 경제에 관한 인문지리에 큰 관심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전쟁수행에 따른 물자조달과 관련이 깊다. 첫째 내용면에서 산업, 교통, 상업, 인구, 문화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고, 둘째 지리개념의 측면에서는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인문과 인문의 관계, 입지, 공업지역, 지역의 변화 등이 주요한 개념으로 응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인문지리 기술방법으로서 단순 기술하는 방법 외에 지인상관과 인인상관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그리고 가능론적 사고에서 나온 기술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 3) 서구인

<한국지>(1900)의 저자는 한국은 중국, 일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반도의 위치로 경쟁하는 두 국가인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라고 판단하였다.

본서의 가장 큰 특징은 일제강점기 이전, 특히 19세기 말의 한국에 관한 지리를 기술하였기 때문에 타 조선지지와는 다른 생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었으므로 도로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도로는 북부 및 남부의 도로로 나누어 그 특성을 서술하였으나, 북부 도로에 관한 내용은 27쪽이고, 남부 도로에 관한 내용은 2쪽에 해당하는 분량으로써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부지방에 러시아인의 관심이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부 지방에 대한 관심은 자연지리 분야의 해안선에 관한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한편 인구에 관한 기술에서는 한국의 인구조사 결과에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는 지방행정이 자신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보다 훨씬 적은 수를 표시하여 주민의 수를 조작하는 불성실한 행위 때문이며, 둘째는 주민들이 인구대장에 오르는 것을 피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관리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상호비교와 해석을 하였다. 이상에 비추어 보아, 전자는 인문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후자는 비교의 방법을 적용하여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선인의 구성 속에 들어간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을 포함시켰다. 이들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주자로서 한반도에 정착하였거나 중국군의 대부대가 여러 차례 무력 침입을 한 후 조선에 남은 사람들이며, 조선인들 중에 중국인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 있는가는 조선의 150개의 성씨 중에서 50개가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였다.

조선인의 체질 중에 외형적 특징을 비교의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북부 조선인의 외형을 남부 조선인과 비교하고, 또 외국인과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선량하고 정직한 한국인의 성격도 비교의 방법으로 기술하였다.

조선인의 질병에 관한 기술을 살펴보자.

“좋은 기후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쉽게 걸린다. 그 이유는 우선 위생시설이나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데다가 한국 사람들 자체가 매우 불결하고 무절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겨울에 가장 잘 앓는다. 겨울에는 더럽고 냄새나는 방의 구들목 속에 들어박혀 신선한 공기를 마실 기회가 적기 때문이다.”  
(崔璇·金炳璘 역, 1984:274)

이를 보면, 저자는 조선인의 질병 원인을 일본인의 대다수 지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위생과 의료 시설의 부족 뿐 아니라 조선인의 위생관념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설명은 일본인의 지지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러시아인이나 일본인의 관점에서는 조선인의 위생이 매우 염려스러웠던 모양이다.

산업에서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제염, 수렵, 임업, 광업과 광물, 제조업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지리라기보다는 경제활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모아 백과사전식으로 단순하게 나열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또 국가제도·행정·사법, 군대, 재정에 관한 내용도 앞과 동일한 기술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

조선의 무역(대내무역·대외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먼저 한국 관리들의 극한적인 횡포와 생활보장이 안 되는 임금으로 가난을 초래케 하는 제도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도로와 같은 일반적인 교통수단의 불편, 도적과 같은 치안부재, 화폐제도의 문란, 지방주민을 위한 금융기관의 부재, 양반의 상업경시, 공업의 미발달, 동업조합의 상업독점 등에서 찾았다. 이는 조선의 무역부진 요인을 인인상관의 관점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상업중심지는 서울, 개성, 평양, 대구이며, 商會가 상업을 주도하였다. 도매업의 대표가 商會라면 商店은 소매업의 대표이다. 그러나 상점은 오직 반도의 도청소재지나 중요한 행정중심지에만 있을 정도로 빈약하였다. 그래서 이런 소매상점의 부족은 자주 열리는 정기시장(5일장)으로 보충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업에 관한 기술에서 중심지 계층에 따른 상업의 발달(규모)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중심지 개념을 활용하여 기술한 좋은 예에 속한다.

그러나 본서는 각종 문헌을 참고하여 기술한 뒤 결론을 내리는 기술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연구지지의 형태이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의 여러 부문(장별)에 관한 백과사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코레아>(1945)의 저자 라우텐자흐는 행정구역에 관한 지리적인 평가는 조선지리 연구의 전제조건이라 하여 행정구역이 행정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즉 그는 조선의 道 경계를 500년 동안의 시험을 거쳐서 지형 및 기후와 같은 자연조건에 매우 민감하게 적응하여 확정되었다고 본 것이다.

일본인의 문헌을 참고하여 조선의 역사를 기술하고, 이 역사가 지리적인 현재(경관에 가시화된 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 장면은 필자가 조선지 분석에서 시대적 맥락을 강조했던 것과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인의 문헌에 의거해 기술함으로써 조선의 역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의 입장에 선 경관분석에 소홀하였다고 판단된다.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는 육교 조선은 북쪽으로부터는 통구스-만주와

중국의 영향이, 남쪽으로부터는 일본의 영향이 침투했다. 북쪽으로부터의 영향은 인종 형성에 크게 작용했고, 현재에도 보통 사람들의 종교적 태도 속에 뿌리박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이 전국에 걸쳐 문화적 태도를 크게 형성한 반면, 일본의 영향이 1876년 이래 과거 2세대에 걸쳐 해가 갈수록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조선의 지리적 경관을 결정하였다고 함으로써 대륙과 해양 사이의 반도적 위치가 가져다주는 점이지대로서 조선의 지리적 경관을 해석하려 한 것이다.

라우텐자흐는 조선의 인문지리학적 특성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하나는 일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달한 조선의 모든 인문지리학적 측면을 다루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의 영향을 받은 식민지로서의 인문지리적 경관을 기술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 절기와 생활, 취락과 농업<sup>51)</sup>의 관계 등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고, 가옥, 취락형태, 화전민촌, 古都市(성곽), 산성취락 등 취락과 축산업, 수공업, 목탄업, 제지업, 제염업, 제철업·용업, 광업, 해상, 정기시장 등 산업을 기술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일본 영향 이전의 경관은 중국의 의한 것이거나 혹은 적어도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하여 제4부에서 다룬 일본의 영향과 함께 조선의 중간적 위치의 특성과 결부시켜 설명하였다. 그러나 조선은 동아시아의 대지역 속에서 작지만 강한 지리적 개성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후자의 경우, 일제 식민지로서의 지위를 가진 조선이라는 관점에서 일본인들이 남겨놓은 지리적인 영향, 특히 경관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것은 농업개혁과 삼림지 이용, 도시 및 항만의 발달, 어로와 어로방식, 광산개발과 산업시설, 상수도시설, 도로, 철도 및 항공로 개설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

51) 취락과 농업의 관계에서는 토양, 기후, 심리적 바탕-토지소유관계, 영농규모, 중국과의 관련성, 논과 그 분포, 이모작, 논농사, 답작물, 시비, 쟁기, 간작, 윤작체계, 관목과 수목을 언급하고 농업지리의 12개 유형으로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일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관점에서 조선의 지리적 경관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조선을 전략적 관점에서 육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도로 보고 철도 및 도로를 건설하고 개수하였으며, 두 번째 경제적 관점에서 조선에 영향을 주어 지난 세대에 나타난 인문지리적 변화의 대부분은 경제적 변화에 기인하며, 농업·광업·어업·공업 등 일본제국의 필요에 기초한 이러한 식민지 경제는 자연히 도시 취락구조개선, 수력발전소 건설과 관개시설, 고압선과 전화선 구축, 항로 개설, 항만·철도·도로 건설로 연결되었다는 논리로 지지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지역계획은 학문적 연구 성과에 바탕을 둔 것이었는데, 여기에는 지질구조, 광물자원, 기상조건, 하천현황, 인근 해역의 해양학적·생물학적 조건, 주민의 관습, 자연식생과 조선인들의 그에 대한 이용, 전통작물과 신품종 도입 가능성, 축산과 그 진흥법, 도시와 농촌의 위생상태에 관한 연구 등이 이용되었다. 세 번째 민족적 관점에서는 조선인을 일본인화, 즉 동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일제는 교육을 통하여 동화를 수행하려 하였고, 이 때문에 학교증설에 힘을 쏟았다. 또한 더 나아가 창씨개명 등 민족성을 말살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의 인문지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토대를 마련될 수 있다. 급속한 인구 성장을 일본의 위생 조치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일본의 근본적인 농업 개혁에 따른 쌀 생산량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선인의 높아진 인구부양력에서 찾았던 하나의 사례처럼, 저자는 전반적으로 일본을 통한 조선의 근대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지를 기술하였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의 접이지대이고, 또 일제의 정치경제적 식민지이자 동화의 대상이 되었던 조선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흰옷, 가옥, 정신구조라는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서구인의 인문지리에 나타난 특징은 두 책의 발행 시기에 상당한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대륙과 해양의 중간지로서 파악하고 그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조선의 인문지리학적 관심을 나타냈다는 데 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의 역사를 배경으로서 기술하였고, 그 외 문화, 산업, 교통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지리 개념으로는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인문과 인문의 관계, 중심지, 경관, 지역의 변화 등의 개념이 응용되었으며, 기술방법으로는 지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 외에 인과론적 설명, 비교방법 등이 이용되었다. <한국지>는 연구지지와 더불어 백과사전의 특성을 나타냈고, <코리아>는 연구지지의 특성을 갖고 있었다.

## (2) 인문지리에 관한 통합 고찰

### 1) 인문지리의 내용

이상에서 살펴본 인문지리 내용을 정리해 보면, 조선인의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산업과 교통이 핵심 내용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기에는 수록된 인문지리 내용이 다양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단순해져서 마지막 시기에는 산업과 교통만 남았기 때문이다. 넓게 잡아 조선인의 인문지리에는 산업과 교통 외에 다음으로 빈도수가 많은 제도와 인구를 주요 내용으로 내세울 수 있겠다.

둘째 일본인의 경우, 인문지리를 경제지리라고 할 정도로 경제에 관한 인문지리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는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전쟁수행에 따른 물자조달과 관련이 깊다. 일본인의 인문지리 내용은 조선인의 그것보다 다양하여 산업, 교통, 상업, 인구, 문화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었

다.

셋째 서구인의 인문지리 내용으로는 조선의 역사를 배경으로서 기술하였고, 그 외 문화, 산업, 교통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역사가 공통으로 들어간 것은 조선의 지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인문지리는 정치경제의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분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지리 기술에 요구되는 것이다.

이제 민족의 색채가 드러나는 인문지리의 내용들을 고찰해 본다. 일본인의 경우, 인문 현상의 기술에 있어 일본근대문명의 우수성, 합방의 정당성, 조선인에 대한 비하, 지역개발 등의 내용으로 상대적 우월성의 입장에서 지리를 기술하였다. 반면에 조선인의 지리에서는 일본근대문명이나 지역개발에 있어 일제강점기 초기 저술에서는 인문현상의 분포와 지역의 변화를 언급하였으나 후기로 가면서 조선인의 생활상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의 이유를 설명하는 등 소외받고 열악한 서민의 삶과 관련된 기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기술이 나타났다. 서구인의 경우에는 조선의 정치·경제·문화에 관해 방대한 내용으로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지리적 배경으로서 조선의 역사를 다루었다는 점이 앞의 두 민족의 지리와 대비가 되는 점이다.

## 2) 인문지리의 지리개념

인문지리 기술에 이용된 지리개념으로서 인문현상의 분포, 지역(지대 또는 경관)과 그 변화, 자연과 인문의 관계, 인문과 인문의 관계, 입지, 중심지 등의 개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몇몇 개념들은 자연지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개념들이다. 인문지리라는 학문분야의 특성 때문에 地域(地帶, 景觀)과 그 변화, 인문과 인문의 관계(人人相關), 입지, 중심지 등

의 개념이 인문지리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역의 변화는 일본 근대문명의 역할, 그 중에서도 교통·통신·공업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와 관련이 깊다. 인문과 인문의 관계는 다방면의 지역 개발, 예를 들면 위생 시설의 설치와 같은 것과 관계한다. 입지는 산업(특히 공업)의 입지에 대한 것인데 이는 관북의 수력발전이 크게 개발된 1930년대 이후의 지지에서 주로 나타나는 개념이다. 분포는 농작물, 공업, 자원 등의 분포를 나타내는데 유효한 것으로 지도를 함께 제시하기도 하였다.

### 3) 인문지리의 기술방법

인문지리의 기술방법은 자연지리보다도 단순하다. 인문현상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기술하는 방법 외에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방법과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기술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 인과의 원리로 설명하는 기술방법의 예를 들어 보면, ‘관북 지방의 공업 발전의 원동력은 함경산지에서 유역변경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또는 ‘일반 서민대중의 피폐한 생활상의 원인은 부패한 관리나 일본 대자본가의 수탈에 있다.’와 같은 기술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와 같이 인문지리에서 이 기술방법은 인문과 인문의 관계나 인문과 자연의 관계를 기술할 때 이용되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는 기술방법은 자연지리에서 조선의 위치나 기후와 관련하여 주로 이용되었고, 인문지리에서는 인종·성질·인구 등 주민과 관련된 항목에서 주로 이용되었다. 조선인의 경우, 지방별로 성질을 비교하여 기술한다든지, 일본인의 경우, 일본인의 성질을 조선인과 비교하며, 서구인에 있어서는 자국의 인종과 조선인을 비교하는 방법이 그 좋은 사

례로 등장하였다. 또 한편으로 이 기술방법은 조선의 산을 일본의 후지산과 비교하고, 조선의 충적토 부족을 일본의 풍부한 충적토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조선을 낮추어 기술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복선이 깔린 비교 우위의 지역비교 기술방법이다.

자연지리에서보다도 인문지리에서 단순하게 나열하는 기술방법은 지리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거기에는 말 그대로 조선에 관한 백과사전을 방불케 하는 지지기술방법이 이용되었다. <신편조선지지>는 라우텐자흐의 지적처럼 지역계획의 관점에서 각 항목이 일일이 나열되어 있고, <한국지>도 동일한 유형의 지지기술방법이 적용되어 있다.

## VI. 조선지지의 지역 구분과 지방지지

### 1. 조선지지의 지역 구분

#### (1) 지역 구분의 지표

지역 구분은 지지의 백미라고 할 만큼 지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차대한 요소이다. 지역 구분의 지표를 민족별로 비교하고 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인

남궁준(1912)의 <신조선전지>는 13도라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윤화수(1924)의 <최신조선지리>와 신명균(1931)의 <조선지리>는 공히 북부·중부·남부 조선으로 나누었으나 결과적으로는 13도를 세 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에 불과하여 이 역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와는 다르게 정홍헌 외(1946)의 <중등조선지리>는 자연적 경계에 따라 6개 지방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을 잘 확인시켜 주는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이 地方은 우리나라의 中央部를 차지한 地域으로 南은 車嶺山脈이 自然境界가 되어 湖南地方과 接하고, 東은 山麓漸移地帶에 있는 道界를 境界로 關東地方과 接하고, 北은 滅惡山脈을 自然境界로 하여 關西地方과 接하였으며, 西는 黃海에 臨하고 있다.”(p.12) 이와 같은 자연적 경계에 의한 구분이 부분적으로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고 있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간 소지역 구분에 있어서는 순수 자연적 경계에 근거한 지리구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차이가 난다(그림 14 참조).

표 25. 지역 구분 기준

시 기	1910~1919	1920~1930	1931~1940	1941~1945
조선 인 자	서명 지 자 新朝鮮全誌	最新朝鮮地理	朝鮮地理	中等朝鮮地理
	南宮濬	尹和洙	申明均	鄭洪憲·李箕燮·李富星
구분 기준	13도로 구분 경기 충청 충 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 원 황해 평남 평북 함남 함 북	[자연지리]에서 행 정구획을 13도 (12府 218郡 2島) 로 구분 [각도]에서는 북부 조선(평북 평남 함 남 함북)·중부조 선(황해 강원 경기) ·남부조선(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 북 경남)으로 구분	편의상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 북부조선(함북 함남 평북 평남) 중부조선(황해 강원 경기) 남부조선(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연적 경계에 따라 6지방으로 구분 경기지방 호남지방 영남지방 관동지방 관북지방 관서지방
일본 인 자	서명 지 자 最新朝鮮地誌	新編朝鮮地誌	朝鮮鄉土地理	朝鮮新地誌
	日韓書房 編輯部	日高友四郎	豊川善曄	淺香幸雄
구분 기준	죽가령구지대 기준으로 남 조선·북조선 으로 구분 이조선(동북 부산지)·표 조선(서남부 평지) 8도로 구분 경기 충청 전 라 경상 강원 황해 평안함	13도로 구분 경기 충청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	지세구·기후구·경 계구·정치구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반도 지리구를 5區로 구분 조선의 지리구는 중 남북의 3구로 대별하 고 난 후 남북의 2구 는 동서 2구로 나누 어 5구가 됨 중부조선(경기, 강원, 황해) 호남지방(충청, 전라) 영남지방(경상)	4지방으로 구분 남선지방(영남지방, 호남지방)중선지방 (영동지방, 영서지방, 아산만안평야, 경기평 야)서선지방(재령평 야, 대동강유역, 청천 강·대령강유역, 정주 ·선천, 압록강하류지 방)북선지방(동조선 만안평야, 함흥평야, 북선고랭지대, 함경산

	경		서선지방(평안) 북선지방(함경)	맥남해안지방, 함경북도저지대)
외국인	서명 韓國誌 (1900년)	코리아(1945년)		
	저자 러시아대장성	라우텐자흐		
구분 기준	동부와 서부로 구분 동부(함북 함남 강원 경북 경남) 서부(평북 평남 황해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관형태의 변화를 기준, 즉 1차로 북부, 중부, 남부 2차로 서해, 내륙, 동해로 해서 구분 북부와 중부의 경계선은 밀재배 북한계선(39.30-40도)	중부와 남부의 경계선은 2모작 북한계선(북위 37도) 북부지방(북부동해안지역, 개마고원, 백두산지역, 평북지역) 중부지방(대동분지, 황해반도, 경기지역과	수도서울, 한강상류지역, 영흥만주변지역, 금강산을포함한 태백산맥, 울릉도) 남부지방(낙동분지, 지리산을포함한소백산맥, 충청-전라지역, 남해안지역, 제주도)

## 2) 일본인

日韓書房編輯部の <最新朝鮮地誌>(1912)는 팔도로 나누어 중요도움을 서술하였으므로 행정구역이 지역구분의 기준이었다. 또 日高友四郎의 <新編朝鮮地誌>(1924)도 13도, 즉 행정구역 기준으로 조선을 지역 구분하였다. 豊川善曄의 <朝鮮郷土地理>(1935)는 ‘地理區’라는 용어를 적용하여 5개의 區로 나누었는데, 이것 역시 13도라는 행정구역의 재조합으로 구분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의 지리구를 중·남·북의 3개 구로 대별하고 난 후, 남·북의 2개 구는 다시 동·서의 2개 구로 나누어 모두 5개 구로 구분한 것이다.

淺香幸雄의 <朝鮮新地誌>(1943)에서는 지역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中鮮地方’ 기술에서 그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車嶺山脈과 黃海道 中部山地의 中間地域으로서 漢江·臨津江·禮成江의 侵蝕堆積平野를 中央部로 하고, 南으로는 安城·曲橋 兩川의 平野, 北으로는 京畿灣 北岸의 延白·甕津·長淵 諸平野와 太白山脈

以東의 嶺東地方 등을 주요 生産經濟地域으로 하며, 各地의 地下資源도 注視한다.”(p.31) 이와 같이 중선지방의 경계는 차령산맥과 황해도 중부 산지와 같은 지형이었다. 또 차령산맥 이남의 충청도를 남선지방의 한 지역인 호남지방에 배치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본 지지의 지역구분의 기준선은 자연적 조건인 지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 3) 서구인

러시아 대장성의 <한국지>(1900)는 13도 중 5도는 반도의 동부에, 8도는 서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크게는 동부·서부 지역으로 나누었지만 지역기술 단위는 13도이기 때문에 결국 지역구분의 기준은 행정구역이었다.

라우텐자흐(H. Lautensach)의 <코리아>(1945)는 동질지역과 기능지역의 특성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지역 구분을 시도하였다. 지지 관점에서 조선반도를 점이지대로 규정하고 중심에서 주변으로 가면서 조선을 지역 구분하였다. 즉, 한반도의 북북동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지역을 나누었다. 그러므로 지역 구분의 경계선은 1차적으로 동서방향으로 그어졌다. 이는 조선반도 축 방향으로 경관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2차적으로는 서해·내륙·동해라는 세 지역 간의 차이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조선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는 표 26과 같다. 백두산지역은 백두산의 남동부만이 조선영토이지만 이 책에서는 백두산지역 전체를 다루고 있다.<sup>52)</sup>

---

52) 저자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자연지리적 측면에서 보기 드문 동질 지역이고 정착민이 거의 없다는 점과 관련하여 한국의 북부 경계를 이룰만한 인문지리학적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김종규 외 역, 1998:406)

표 26. 라우텐자흐의 지역 구분

	서해안 지역	내륙 지역	동해안 지역	
북부지방	○ 압록강과 평북지역	○ 개마고원지역 ○ 백두산지역	○ 북부동해안지역	
중부지방	○ 대동분지 ○ 황해반도 ○ 경기지역과 수도서울	○ 한강상류지역	○ 영흥만 주변지역 ○ 금강산을 포함한 태백산맥	○ 울릉도
남부지방	○ 충청-전라지역	○ 지리산을 포함한 소백산맥	○ 낙동분지	
	○ 남해안지역 ○ 제주도			

#### 4) 통합고찰

이상에서 지역구분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민족에 관계 없이 행정구역에 따른 것이었다. 8도나 13도로 구분하여 지방지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행정구역에 적용된 지방과 지방간의 경계선은 이미 자연경계 등으로 지역 구분을 거쳐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앞의 라우텐자흐의 연구 지지나 또는 문제의식을 가진 지지와는 다르게 정치적 요구에 무게를 둔 행정구역에 따른 정보수집의 용이성이 이러한 지지 기술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행정구역 경계와 자연적 경계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용한 것이다. 8도나 13도의 행정구분선을 위주로 하되 지형이나 기후차이가 명확한 지역을 자연지역 경계선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연지역을 기준으로 조선을 지역 구분하는 방법이 이용되었다. 기본적으로 지형을 위주로 하되, 기후, 식생 등을 참고하여 조선을 자연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구분 지표의 시기에 따른 변화상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행정구역이 기준이었으나 후기로 가면서 행정구역을 벗어나 지리구, 지방 등의 용어를 사용해 가며 이전과는 다른 방법, 즉 자연지역 경계를 기본지표로 삼되 기존의 행정구역 경계를 활용하여 지역 구분하는 지표의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40년대에는 자연 지역 경계를 고려하는 좀 더 세련된 지지학적인 지역구분의 시도가 있었다.

## (2) 지방지지의 지역 기술 순서

지방지지의 지역기술 순서는 저자가 지역을 보는 관심의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7에서 보면 지역의 기술은 대략 세 가지의 유형, 즉 ① ‘중→남→북’, ② ‘북→남’, ③ ‘남→북’으로 구분된다. ①의 유형은 수도가 위치해 있는 지역을 중앙으로 보고 맨 먼저 기술하였으며, 여기에 속하는 조선지지는 조선인의 <신조선전지>·<중등조선지리>와 일본인의 <최신조선지지>·<신편조선지지>·<조선향토지리>이다. ②의 유형은 북부 지방으로부터 지지적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며, 여기에 속한 지지는 조선인의 <최신조선지리>·<조선지리>와 서구인의 <한국지>·<코리아>이다. ③의 유형은 일본을 중심에 놓고 대륙을 향하여 전개하는 방식으로 일본인의 <조선신지지>가 여기에 속한다.

표 27. 지방지에서의 지역 기술 순서(민족별)

지지 순서	조선인				일본인				서구인	
	A	B	C	D	E	F	G	H	I	J
1	경기	평북	함북	경기	경기도	경기	중부	영남	함북	북부동해안지역
2	충북	평남	함남	호남	충청도	충북	호남	호남	함남	개마고원지역
3	충남	함남	평북	영남	전라도	충남	영남	영동	강원	백두산지역
4	전북	함북	평남	관동	경상도	전북	서조선	영서	경북	압록강과 평북지역
5	전남	황해	황해	관북	강원도	전남	북조선	아산만안평야	경남	대동분지
6	경북	강원	강원	관서	황해도	경북		경기평야	평북	황해반도
7	경남	경기	경기		평안도	경남		황해도 남부지방	평남	경기지역과 수도 서울
8	강원	충북	충북		함경도	황해		재령평야	황해	한강상류지역
9	황해	충남	충남			평남		대동강유역	경기	영흥만지역
10	평남	전북	전북			평북		청천강·대령강 유역	충북	금강산을 포함한 태백산맥
11	평북	전남	전남			강원		정주·선천	충남	울릉도
12	함남	경북	경북			함남		압록강 하류지방	전북	낙동분지
13	함북	경남	경남			함북		동조만안평야	전남	지리산을 포함한 소백산맥
14								함흥평야		충청-전라지역
15								북선고랭지대		남해안지역
16								함경산맥 남해안 지방		제주도
17								함경북도 저지대		

주) A <신조선전지>, B <최신조선지리>, C <조선지리>, D <중등조선지리>, E <최신조선지지>, F <신편조선지지>, G <조선향토지리>, H <조선신지지>, I <한국지>, J <코레아>

## 2. 지방지지의 내용과 기술방법

### (1) 지방지지에 관한 분할 고찰

여기서는 민족별·시기별(혹은 책별)로 지방지지의 내용, 기술방법, 지리개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1) 조선인

<신조선전지>(1912)에서는 지방지지를 ‘지방각론’이라 하여 13개 도별로 총설과 도읍·명소를 다루었다. 총설에는 위치경계·산악·하류·해만·도서·구획·인구 등의 내용을 실었고, 도읍과 명소에는 府·郡과 그 명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지방각론은 <신조선전지> 전2권 중 1권(하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231쪽 분량이다. 지방각론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 28).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일본인의 자료를 인용 내지 번역한 것이다. 인구에 일본인을 의미하는 내지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인구 비중이 적은 일본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에 의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8. 지방각론의 주요 내용 요소

지방각론		주요 내용 요소
총설	위치경계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접경 지역(道).
	산악	산맥(산)의 흐름(높이)과 경승. 산악과 관련된 역사.
	하천	하천의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유로와 景勝.
	해만도서*	만·항·도서의 위치(크기), 지형적 특성과 이용.
	구획	행정구역인 府·郡과 面을 도표로 제시.
	인구	부군별 현주인구(내지인·조선인·외국인)를 도표로 제시.
도읍 명소	부군별**	위치, 경계, 설비, 교통, 인구, 산물, 상업, 고적명소 등을 나열하여 소개.

주) \* 충청북도에는 해만도서가 없다.

\*\* 부군의 규모에 따라 기술 요소의 차이가 크다.

둘째 都邑과 名所는 府郡에 따라 그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인천부는 반도 내 최고의 개항장으로 상업의 요충지, 개성군은 고려의 古都로 역사 및 상업 도시와 같이 지역 특성을 압축하여 기술하고 있다. 지역성을 선명하게 기술하는 장점은 있으나 부군마다 적용되는 일관된 기술 항목이 없어 무질서한 느낌을 준다.

셋째 지역 체계의 중심지를 기점으로 한 주변 도읍과의 거리로서 그 도읍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경성을 기점으로 府郡까지의 거리를 기록함으로써 경성이 중심지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실제 경성부를 소개할 때에는 중심지라는 사실을 그 핵심에 두고서 기술하고 있다. 또 남원의 위치도 지역체계의 중심지인 전주와의 거리로서 표기하여 남원이 전주를 중심지로 하는 지역체계에 속한 도읍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넷째 사실이나 현상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지지 기술 방법을 활용하였다. 항목별로 지리적 현상이나 사실을 백과사전식으로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행정구획과 인구를 기술함에 있어 행정구획 및 인구 현황을 내용에 대한 서술 없이 도표로만 제시하여 그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최신조선지리>(1924)에서의 지방지지는 ‘各道’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져 기술되어 있다. 조선을 북부조선, 중부조선, 남부조선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북부조선에는 평북·평남·함북·함남 등 4도, 중부조선에는 황해·강원·경기 등 3도, 남부조선에는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도가 여기에 속해 있다. 먼저, ‘총론’으로서 그 각 지방을 개관하고 난 후, 다음의 표와 같은 항목과 내용 요소로 각도를 기술하고 있다.

표 29. 각도의 주요 내용 요소

각 도	주요 내용 요소
구분위치	府·郡 구성, 접경 지역.
면적인구	수리적 위치, 면적, 인구.
지세	산지·하천의 지형적 특성, 지형과 기후·인구·농목업·도시와의 관계.
물산	농축산물, 임산물, 광물, 수산물.
교통	도로(가도), 철도.
도읍명지	각 도읍의 위치·행정·교통·시가·군사·상업·산물·고적명소.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읍의 위치는 인접 도읍과의 거리, 도읍과 도읍의 중간지역 등으로 타 지역과의 관계를 통해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신의주는 의주의 서남쪽 약 40리에 위치한다거나, 정주는 평양과 의주의 중간에 위치한다거나 하는 경우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체계의 중심지를 기점으로 한 주변 도읍과의 교통수단별 거리로서 그 도읍의 위치를 나타내었다. 예를 들어 진남포는 평양에서 육로로 70리이고, 철도로는 약 1시간에 도달하는 곳 이라고 하였다.

둘째 지세에서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 기초해 지지내용을 기술하였다. 예를 들어, “(대동강·청천강은) 灌溉의 利를 크게 주며, 그 沿岸處處에 平野를 成하여 米穀의 産出이 少하지 아니하며 道内の 都會가 大概 이 兩江의 沿岸에 在하니라.”(p.67, 괄호는 필자)하여 결국 하천으로 인하여 관개가 열리고 평야가 발달하여 미곡의 산출이 많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도회가 하천 연안에 분포하게끔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셋째 옛 영토를 회복하고자 하는 애국심이 지지에 반영되어 있다. 책 부록으로 조선과 청의 접이지대인 間島와 琿春 지역을 도별 지지와 비슷한 분량과 방법으로 기술하여 놓았다는 데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간도·훈춘의 전체인구 50만 명 중 조선인이 34만 명이라는 데서 나온 주인의식의 발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하고, 청·일 전쟁터를 소개하는 등 조선인의 지지이지만, 일본인 지지의 관점을 넘어서지 못한 점도 있다. 간도와 훈춘의 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0. 간도와 훈춘에 관한 지지의 주요 내용 요소

間島·琿春	주요 내용 요소
구분위치	간도·훈춘의 위치와 경계.
면적인구	간도·훈춘의 전면적과 경지면적. 전체인구와 조선인인구(34만/50만).
물산	농산물(간도·훈춘의 주요농산물 수확고). 광산물.
교통	철도(도문철도). 도로(10개의 가도구간).
도회	局子街·龍井村·頭道溝 등 도회의 위치·행정·상업·교통·교육.
*13개 도별 지지와 다른 점은 '지세'를 기술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넷째 경관 사진, 특히 시가지, 항만 등에 대한 사진을 게재하여 학생을 포함한 독자들에게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 하였다.

<조선지리>(1931)에서는 '地方誌'를 제1편에 위치시킨 점이 특징이다. 앞서 고찰한 <최신조선지리>처럼 조선을 크게 북부조선, 중부조선, 남부조선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13도의 각 지방 배치도 거의 동일하며, 그 각 지방을 자세히 기술하기 이전에 먼저 '총론'으로서 지방을 개관하고 난 후, 주요 항목과 내용 요소로 각도를 기술한 점도 같은 방식이다(표 31).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 주요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변화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의 개수와 철도의 개통, 항만의 건설 등으로 이전보다 교통이 훨씬 편리한 지역으로

변모되었음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주와 같이 경의선 철도가 신의주로 나고, 도청까지 그 곳으로 이전함으로써 의주의 변화가 옛날에 비할바 아니라 하여 지역의 정체도 기술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羅南(20000人)은 본대 한 적막한 寒村이러니 近來에 日本第十九師團司令部의 所在地가 되고 또 道廳이 이곳에 옮김으로부터 갑자기 外人의 居留하는 변화한 市街地가 되었다.”(p.7)와 같이 나남이 사령부 신설과 도청 이전으로 적막한 한촌이 변화한 시가지로 변화되었다는 사실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지세와 물산’이라는 내용 요소는 제목 자체에서 벌써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 기초해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조선지리>)

지방지	주요 내용 요소
구역	府·郡 구성.
위치	지리적 위치. 경계(접경지역).
지세와 물산	산지·하천의 지형적 특성. 지형(기후)과 물산·항만·명승의 관계.
교통	철도(전차). 도로.
군읍	각 군읍의 인구·위치·행정·상업·시가·교통·군사·산업·고적명소.

셋째 조선인 독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는 문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 麗水를 左水營이라 일컬어서 海南의 右水營과 한가지로 往時朝鮮에 水軍根據地이니 그 左水營岬과 珍島와의 海峽間에는 壬辰亂에 李舜臣이 日本戰艦을 殲滅하든 碧波亭이 있다.” (pp. 36~37) 특히 임진란에 이순신이 일본전함을 섬멸했다는 사실을 기술함으로써 국권 회복을 향한 독립정신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런 이순신의 승전에 대한 기술은 경상남도 통영에서도 나타난다.

<중등조선지리>(1946)에서는 자연총설과 인문총설 사이에 ‘地方誌’를 배치하였다. 6개 지방으로 나누고, 그 각 지방별로 다시 소지역, 즉 지리구로 구분하여 지방지를 기술하였다. 본서에 나타난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를 나타낸 도표는 다음과 같다(표 32).

표 32.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중등조선지리>)

지방지	주요 내용 요소
위치와 지리적 구분	지리적 위치. 경계(접경지역). 地理區로 구분. 각 지리구의 지형개관.
기후	기온. 우량. 서리. 안개.
처지(處誌)	각 지리구 내 주요 지역의 지형·교통·시설·산물·명소.
산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공업. 상업.
교통	도로. 철도. 수운.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의 특징으로는 첫째 ‘地理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전의 지지와 다르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자연적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지리구를 확정하였다. 이 지리구 개념은 일본의 지리학자 田中啓爾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지역보다는 소지역 구분에서 자연적 경계라는 기준을 주로 적용하여 지역구분하는 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지리구는 6개 지방의 경계선과는 달리 정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 않다. 지리구를 이용한 소지역 구분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3).

둘째 산업의 입지조건을 기술하였다. 채소재배와 유우사육·양계, 출판업을 시장이 넓고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와 연계시키고, 천일제염을 자연적인 조건인 기후, 즉 일조시수와 관련시켜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충북지대를 자연경계와 지리구의 편의상 관동지방에 포함시켰다. 이는 본고의 여타 사례 지지와 구별되는 지역구분이다.

표 33. 지방지의 소지역 구분

지방(대지역)	지리구(소지역)
경기지방	한강유역. 안성천유역. 차령산맥북해안. 임진강유역. 멸악산맥남해안.
호남지방	내포평야. 호남평야. 노령산지. 전남평야. 서남해안지대. 제주도.
영남지방	서부산지. 낙동강유역. 동부산지. 남해안구릉지대.
관동지방	중앙산지. 영동해안지대. 영서산록지대. 충북지대.
관북지방	영흥만지대. 부전령남해안. 개마고원. 함북해안. 두만강유역.
관서지방	동부산지. 재령강유역. 대동강유역. 청천강유역. 평북해안. 압록강유역.

2) 일본인

<최신조선지지>(1912)에서는 지방지지를 ‘各道地理’라 이름하여 기술하였다. 이것을 총설·중요도읍·내지인 집단지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각 도지리의 주요 내용 요소를 도표로 정리해 본다(표 34).

표 34. 각도지리의 주요 내용 요소

각도지리		주요 내용 요소
총설		국명. 행정구역(8도·13도). 각도 별칭. 남·북조선. 表·裏朝鮮.
중요도읍	개관	道の 별칭·위치·기후·지형·교통·지역특산물.
	도읍*	지명연혁. 위치. 경계. 교통. 지형. 관개. 산물. 상업. 인구. 시가(지역구조). 시설. 명승고적.
내지인 집단지	집단지	호구. 기후. 교통(통신). 경제상황. 상업상황. 최근상황. 집단지: 경성 인천 부산 평양 진남포 신의주 군산 목포 마산 대구 원산

주) \* 도읍의 내용요소는 도읍별로 워낙 다양하여 도읍에서 언급된 내용요소들 모두 망라한 것이다.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특징은, 첫째 각도의 중요도읍만 소개하여 지방지지로서의 구성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8도에서 중요도읍이라 하여

선택한 지역의 특수한 성격을 위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도읍에 공통으로 적용된 내용 요소가 아주 드물었다.

둘째 내지인 집단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있다. 내지인 집단지에 대한 정보는 일본인에게는 조선 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며, 이 책은 그러한 필요에 부응한 것이다.

<신편조선지지>(1924)의 지방지지는 ‘地方誌’로서 13도별로 지지를 구성하였다. 그 내용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표35). 13道와 231府·郡·島를 총 망라하여 지방지지를 구성하였다.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특징은, 첫째 지지의 서술방식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기술방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데에 있다. 조선전기 지리서의 편찬체재와 유사하다.

둘째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좋은 예는 인천은 내외항로의 교차로에 위치하여 대외무역에 가장 좋은 위치이며, 조석간만의 차가 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항구시설, 閘船渠式(갑문식독)을 축항하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셋째 위치 기술에 있어, 道 지역은 지리적 위치와 수리적 위치로, 府·郡 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島 지역은 지리적 위치와 거리(浬)로, 面 이하 지역은 방향과 거리로서 서술하여 지역스케일에 따라 위치 기술을 달리 하였다. “本道(경기도)는 조선의 중앙에 위치하고, 북위 36도 53분에서 38도 16분에, 동경 125도 54분에서 127도 51분에 걸쳐 있으며”(p.369, 괄호는 필자)와 같이 반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와 절대적인 위치를 함께 기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표 35.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신편조선지지>)

지방지	주요 내용 요소	
道	연혁	도명기원. 행정구역변천. 府·郡구성.
	위치면적	지리적 위치. 수리적 위치. 경계. 면적.
	지세	산지(삼림). 하천. 연안. 조석. 주요 산과 그 위치.
	기후	기후특성. 기온. 강수량. 증발량.
	하천	발원지에서 하구까지의 유로. 수운. 저수지.
	도시	위치. 면적. 역할. 산물.
	경지	경지·미간지와 그 면적.
	호구	민족별(내지인·조선인·외국인) 호구.
	산업	농업. 수산업. 염업. 공업. 채래공업. 상업.
	교통	철도. 항만. 수운. 도로.
	교육	교육기관(제학교일람). 학생수. 교육상태.
	위생	의료기관. 의료인력.
도읍	유명한 도읍과 그 위치. 토지가격. 농산물1단보당수확고(부군별).	
府郡島	연혁	별칭. 지명·관할지역 변천.
	위치지세 기후	지리적 위치와 그 영향. 경계. 면적. 산지. 섬. 조차. 하천. 수운. 평야와 농산물. 계절기후(한서차). 일교차. 성벽과 성문.
	교통	가도(도로개수, 1등·2등·3등도로). 철도. 수로(강운, 해운). 전차. 항로.
	산업	상업(거래액 거래상품). 무역(수이출입액). 경지면적(수리사업). 농산물. 공업. 농가부업.
	구획호구	행정구획(面). 민족별(내지인·조선인·외국인) 호구.
	명승고적	공원. 궁궐. 능묘. 섬. 서원. 산성. 산. 고개. 사찰. 문. 다리. 전쟁터. 온천. 그 외 주요 지역(洞·里)·장소 및 시설.
	도읍	읍·리·동·場·驛 등의 위치·산물·관공서.
	*시가	시가지 위치. 街路방향. 야경(불야성). 기후. 내지인 거주.
	*무역	수이출입액. 수이출입품.
	*관공서	제 분야의 주요 공·사 기관.

주) \* 표시된 항목은 주로 府 지역에 해당한다.

또 “인천(府)은 경기도의 서단 한강 하구에 위치하며, 서남에 돌출된 일개 작은 반도로서”(p.378), “本島(제주도)는 조선본토의 남안서단에서 남쪽 절해에 있는 孤島로 목포에서 거리가 정남쪽으로 95浬, 부산에서 남서쪽으로 약 140浬”(p.560, 괄호는 필자)와 같이 반도 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을 방향과 거리를 결부시킨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그리고 면 이하의 소지역은 “(議政府에서) 동쪽 5리에 松隅里, 서북쪽 3리에 笠岩”(p.386, 괄호는 필자)과 같이 그 지역의 중심지에서의 방향이나 중심지·인근 지역과의 거리로서 표현하였다.

공통점은 중심지를 기준으로 본 방향과 중심지와의 거리로서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경기도를 제외한 도별 지지의 ‘도읍’에서 토지가격과 농산물 1단보 당 수확고를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 농민 뿐 아니라 토지나 농업의 잠재수요층들에게 유용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조선향토지리>(1935)의 지방지지는 ‘地理區’로서 상·중·하의 세 장에 걸쳐 기술되어 있다. 조선을 5개의 區(지방)로 구분하였는데, 먼저 각각 구의 면적, 인구나 인구밀도, 생산액과 1인당 생산액을 도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5개 지리구의 주요 내용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표 36).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읍의 주요한 특성을 간단하게 표현하였다. ‘어떤 도읍에는 무엇이 유명하다’와 같이 지리적 현상을 나열하여 기술하는 방법이다. 둘째 5개 지리구에 담은 기술내용에 일관성이 없다. 즉 서술 대상 지역의 스케일이 일정하지 않다. 표에서와 같이 도, 도읍, 산지, 하천, 도서 등으로 지역의 크기도 다를 뿐더러 기술 순서도 뒤죽박죽이어서 정말 혼란스런 지리교과서로서의 지방

지지이다.

표 36. 지리구의 주요 내용 요소

지리구	주요 내용 요소
개 관	위치. 지형. 기후. 도시. 상공업. 문화. 하천·기후와 물산. 인구밀도.
道	지형. 산업(산물).
도 읍	위치. 기후. 지형. 고적명소. 시가지. 교통. 상업. 산업(산물). 시설. 인구.
주요산지	유로길이. 풍경. 산지의 이용(삼림, 수력발전, 면양).
주요하천	발원지. 하천의 이용(관개). 수운구간.
주요도시	위치. 지형. 기후. 해류. 수산물.

셋째 자연과 인문의 관계에서 기술한 흔적이 나타난다. 넷째 지역의 발전하는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독자로 하여금 발전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상을 그리게끔 한 것이다. 이런 점은 본 지지만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신지지>(1943)의 지방지지는 ‘地方誌’로서 4개의 지방 - 남선·중선·서선·북선 - 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17개의 중지역으로 세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23개 중·소지역에 관한 지지내용의 주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표 37).

이 책의 지방지지에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 특히 철도와 항만의 편리함을 크게 강조하였고, 그것을 지역발전과 연계시켜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 이 점을 알 수 있다. “여수는 漁港 겸 商港으로서 목포와 함께 호남의 문호 항이었으나 배후지와의 철도 연결이 없는 고립 항이어서 상권은 부산항에 종속되었다. 그러나 철도가 개통되면서 배후지역이 확대되고 특히 최근은 관여연락선→전라선

→호남선→경부선의 연결로가 된 여수는 극히 중시되고 있다.”(p.29)

표 37. 지방지의 주요 내용 요소(<조선신지지>)

지방지	주요 내용 요소	지방지	주요 내용 요소
남선지방	해안지	서선지방	평남지
	영남지방		대동강유역
	소백산록분지		청천대령유역
	호남지방		대령유역
	호남북지방		정주·선천
중선지방	영동지방	북선지방	압록강하류지방
	영서지방		동조선만안평야
	아산만안평야		함흥평야
	경기평야		북선고령지대
서선지방	황해도남부지방	함경산맥남해안지방	함경도저지대
	재령평야		

“(이리는) 익산평야의 중심에 있고, 호남·전라·군산선의 교차점이며, 철도 개통 후의 신흥취락으로서 문화시설도 정비되어 활기를 띠고 있다.”(p.30, 괄호는 필자)

반면에 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이 겪는 변화상황도 기술하였다. 예를 들면, “철도개통과 (금강)하류 군산의 발흥으로 (강경의) 상권은 축소되었다.”(p.31, 괄호는 필자) “근대교통의 혜택이 적고 부근 생산지의 부족은 이 지역(공주)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한다.”(p.31, 괄호는 필자)

둘째 중선지방을 기술함에 있어서 이 지방을 경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라고 소개하였다. 이는 기능 지역으로 지역성을 나타낸 경우라 하겠다. 한 예로, 경성과 원산을 연결하는 철도연변인 이목·성산·세포 부근에서는 가을 냉기가 일찍 찾아오는 것을 이용한 가을야채의 축성재배와 낙농업이 현저하다고 하여 대소비지(경성)에로의 접근성 향상이 가져온 농업의 변화를 적절하게 기술하였다. 이것이 바로 경성과 주변지역이 철도로 연결된 경성을 중심으로 한 기능지역인 것이다.

셋째 애국심을 북돋우는 기술을 하였다. “안성河畔에서 성환 구릉에 이르는 일대는 일청전쟁의 서전이 일어났던 성환 전적지로서 松崎 대위나 나팔수 木口小平의 용감한 애국의 열정이 약동하고 있다.”(p.33) 이것은 물론 일본인의 관점에서 본 애국 열정에 관한 기술이다.

넷째 계절적으로 이동하는 어업 및 농업노동력의 이동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서해안의 덕적도·연평도에는 4월 하순부터 7월 상순까지 조기의 성어기로서 많은 어선(연간 1,500척)이 조업하려고 몰려들어 섬에는 임시 취락이 형성되었고, 호남북부지방의 미작지대에는 모내기나 수확기에 타지방으로부터 이입노동자들이 일하는 풍경이 장관이었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다섯째 지역의 발전을 인인상관의 관점에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일·만 연락루트의 이용, 유로변경방식에 의한 수력 발전, 부근의 광물자원의 채굴 등에 의해서 이 지역(북선지방)은 곳곳에 세계적인 대공장이 건설되어 조선 제일의 약진적 발전지대로서 인구가 격증하고 있다고 기술한데서 알 수 있다.

여섯째 침식분지와 취락입지를 관련시킨 지인상관을 인과론적으로 설명하였다.

끝으로 이 책의 지방지지 내용은 자연보다는 인문에 치중되어 있다. 특히 교통, 상업, 공업 등 경제와 관련한 인문지지의 성격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3) 서구인

<한국지>(1900)에서의 지방지지는 ‘道와 都市’로서 책 전체 14개의 장 중 1개의 장에 할애되어 있다. 제5장 ‘한국의 도와 도시’가 유일하게 기술된 지방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부지역의 북쪽에서 남쪽, 다시 서부지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면서 각 도의 지지를 서술하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13道の 도시를 언급하기 전에 먼저 대한제국의 수도 서울에 대해 1개 道 정도의 분량으로 기술하고 있다. 도의 도시에서는 해당 도의 경계를 서술하고 나서 다음의 표와 같은 도시들의 주요 내용 요소를 나열하였다.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특징은, 첫째 ‘수도-도청소재지-부군소재지’라는 도시계층을 적용시켜 기술한 都市地誌라는 점에 있다.

둘째 러시아와 가까운 도의 도시들부터 기술하였다.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북지방의 도시부터 기술하게 된 것은 이미 <한국지> 기술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오랜 관심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표 38. 道와 都市의 주요 내용 요소

도와 도시		주요 내용 요소
행정구분		도시와 촌락의 구별. 도시계층(수도-도청소재지-부군소재지).
서울	경관	서울의 수리적 위치. 별칭. 지형(산). 숲. 논. 성벽과 성문. 개천. 거리. 종. 기념비. 시장. 골뚝. 집(지붕).
	왕궁	전차. 궁전도시(담장·도랑·문·건물·누각). 신궁. 구궁.
	사원	공사관. 종묘. 문묘. 사직단. 장헌묘. 육상궁묘. 전쟁신을 위한 사당. 남별궁. 영은문과 독립문. 왕릉. 서울의 인구 및 주택 수.
道の 都市		위치(지리·수리). 지형. 성벽. 戶數(주민). 시장(5일장·취급품목·상점). 교통(도로·해로). 항만. 다리. 온천. 집. 식수원. 사찰. 삼림. 산물. 기후. 거류지(외국인·일본인·중국인). 개방항구. 무역(밀무역). 어업. 연료. 경작지. 창고. 어시장. 위생(병원). 기선. 학교. 명승. 선교사단체. 요새. 왕릉. 묘지. 은행. 상업회의소. 경찰서. 법원. 정미소. 가항구간. 조차.
濟州島		위치(지리·수리). 호구. 화산암과 그 이용. 城과 성문. 집(재료·지붕). 경작지.

주) 굵은 글씨는 도시 기술의 기본적인 내용요소이며, 나머지는 도시에 따라 상이하다.

셋째 러시아 국경이나 주변 도시로부터의 거리로서, 또는 하천·해안 등 지형에 기준하여 위치를 나타내었다. 러시아 국경으로부터 거리로서 함경도 도시의 위치를 나타낸 것은 러시아인의 조선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강원도·경상북도·전라북도 등의 도시는 한성으로부터의 거리로서 위치를 표시하였다.

넷째 함경도와 나머지 타도의 도시 간에는 서술의 양에 큰 차이가 있다. 함경도의 도시에는 모두 서술내용이 있으나 나머지 도의 도시에는 일부만 서술내용이 있고, 일부는 도시명만 기록되어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3개 도시에서만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38개는 도시명만 나열되어 있다. 그 만큼 함경도를 제외한 타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연지리보다는 인문지리에 해당하는 지지내용이 많았다. 앞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문지리에 관한 내용 요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성, 경흥, 회령 등의 러시아 인접 국경 도시와 함흥, 평양, 개성 등의 주요 도시, 그리고 원산, 마산포, 부산, 진남포, 제물포, 군산, 목포 등의 개항 도시에 대한 서술내용이 비교적 많았다.

<코레아>(1945)의 지방지지는 ‘한국의 여러 지역’으로서, 대지역 3개 지방, 중지역 16개 지역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표 25에서와 같이 북부지방에는 4개 지역, 중부지방에는 7개 지역, 남부지방에는 5개 지역이 각 지방에 해당하는 지역들이다. 주요 내용 요소는 다음의 표 39와 같다.

표 39. 여러 지역의 주요 내용 요소

여러 지역	주요 내용 요소
경계	지지적인 경계. 길이. 면적.
하천	필종하천. 表成하천. 발원. 길이. 유로. 범람원. 삼각강(간석지·조차). 결빙. 사행천. 퇴적제방. 단구. 사면하천. 주향산릉. 분수령. 구조곡. V자곡. 단층. 지류색갈. 布狀流. 鹽河. 주운(구간).
지형	지질구조와 산맥·하천유로. 경동지괴. 주산맥. 급사면과 완사면. 해수면상승. 內進해안. 용기. 만. 사주. 육계도. 석호. 충적평야. 삼각주. 단애. 단애해안. 평탄면. 우곡. 애추. 화산. 용암(현무암)대지. 분출암(현무암질·유문암질). 화산용암류. 순상화산. 중앙화산체. 지향사. 화강편마암산지. 파식대. 해식에. 하안단구. 해안단구. 고도. 고원면. 곡밀도. 산. 권곡. 고개. 암석돔. 원추형구. 호수. 하계망. 중앙외륜산. 함몰칼데라(천지·나리분지). 우곡. 산악지대. 구릉지대. 충적지. 谷線(교통로). 석회암지형(산지·동굴). 습지. 반도. 군도. 준평원. 구조곡(추가령열곡→철도). 분지. 침식분지. 雁行구조. 침강. 차별침식. 단층. 구조분지. 곡저. 도서지대. 한국열도(남해안). 굴뚝암주. 간만의 차. 갯벌.
기후	대륙성 기후. 해양성 기후. 균등한 기후. 강수량(겨울·여름·지역분포). 기온(여름겨울기온·지역차·연교차). 대륙도(열대륙도). 바람(계절풍·풍향). 안개. 서리(무상기간). 운량. 상대습도. 일조시간. 강수강도. 강설. 특수기후(고산·격해도). 편(동해안의 겨울기후). 지형성강수. 북동풍과 눈.
토양	적색토. 황색풍화토. 렌치나(Rendzina). 골격토. 석회암풍화토(적색토). 현무암의 투수성→콘크리트 수리시설(철원·평강).

식물	하록활엽수, 혼합림, 활엽수림, 침엽수림, 관목과 초본류, 낙엽수림, 원시림, 삼림지대, 1차삼림, 수직적 분포(수목한계선·수종), 2차 및 3차 식생군락, 산속, 대나무지대(영동), 적송지대, 신갈나무지대, 고유도, 상록수군락, 삼림파괴(인구조밀)→식목사업, 원시림의 잔재(능·사찰주변).	
동물	포유동물, 조류, 야생동물.	
농업	경지면적(관개면적), 답작(관개답·천수답: 벼·피·기장·왕골), 이모작답(보리·쌀보리·밀), 수리조합, 간척, 관개, 전작(피·조·수수·보리·밀·감자·고구마·콩 등), 밭벼, 뽕나무·과수·면화·담배, 간작·혼작·경재花壇, 화전(→熟田)경작(개마고원·평북: 조 팔 옥수수 감자 메밀 수수 콩 등), 화전유형, 경작한계선, 영구경작, 자급적 농업, 채소축성재배(대도시근교).	
임업	목재운반(뗏목·협궤철로), 제재소, 통나무집(구조·지붕), 불레방아, 통나무배, 나무다리.	
목축	소와 말.	
어업	어항, 어족(어종), 계절별어획어종, 겨울휴어기, 어유, 어선, 염전, 해산물(미역·해삼), 어망어업.	
광업	탄광(갈탄·무연탄), 이탄, 광상(금·동·철·명반석), 운천.	
공업	제철, 연탄, 시멘트, 제당, 양조, 담배, 제사, 양말, 고무신, 기와, 식료품, 섬유.	
전력	낙차, 수력발전(유역변경식)→화학공업·비료공업, 화력발전(석탄)→대도시.	
교통	도로, 철도, 항만(무역·군사), 주운(범선·보트), 연안항해, 전략요충, 해양관문.	
인구	인구분포, 인구밀도, 일본인비율, 벼농사의 집약도와 인구밀도.	
취락	한국식가옥(지붕), 鎭취락(국경방어·산간입지), 너와지붕, 취락분포(제주도), 의상, 민가.	
도시	주거분리, 일본식가옥, 공공건물, 한국식 가옥(초가·기와).	
소 지역	지역개관	지질(암석), 지형(분지·산맥·산), 농업(벼농사·화전·휴경지), 삼림(2차삼림·수종·관목·활엽수림), 하천, 평야, 해수면상승, 해식에, 해식대, 석호, 사주, 가항구간, 육계도, 어항, 구조곡, 교통(도로·철도), 지구대(지루), 주상절리, 단층애, 페디먼트, 원추형구, 만, 층적평야(삼각주), 내진해안, 반도, 운천, 침수해안, 군도, 갯벌, 구릉지, 방조제, 간척지, 주상절리.
	도읍	지리적 위치, 인구(일본인비중), 산지, 하천, 간만의 차(도크), 군사(산성·토루·조선군사령부), 피난성채, 유적, 시가지(한국인=구시가지·일본인=신시가지), 항구(항로), 군항, 무역(수출입품), 농산물(잠업·인삼), 생선집하장, 어항, 수산시장, 공업(제철·인조견·식품·통조림·어유·제지·방적·양조·도기·제분·정미·비누 등), 계획도시(나남·신의주·진남포), 가로망형태(직교·방사), 교통(철도)·행정·상업중심지와 그 시설, 일본식목조가옥, 한국식가옥, 시장도시, 풍수지리사상, 궁궐과 성과성문, 초가, 미로(한국인구역), 교회, 병원, 도로개수, 신사, 대학가, 사찰.

주) 백두산지역, 개마고원, 제주도, 울릉도는 위의 내용 요소와 공통적인 부분이 적다.

이 책에 나타난 지방지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지 기술에서 인과론적 설명을 사용하고 있다. 주로 기후와 지형 두 항목에 관한 것인데, 먼저 기후와 관련한 기술내용으로 북부 동해안 지역에 대한 기술을 보면, “여름 강수량이 적은 이유는 이 지역의 한 관측소인 성진에서 7월에 49.8%의 빈도를 갖는 해양계절풍이 대체로 비를 가져오지 않고, 오히려 이미 비를 거의 다 내린 채 이 雨陰에 도달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이 비를 가져오기 때문”(p.336)이라고 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 바람의 성질 때문에 여름 강수량이 적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서해안은 동위도상의 동해안보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추운 것을 대륙도로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서에서는 기후현상을 기술할 때 지지상관의 관점에서 인과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지형과 관련된 인과론적 설명의 한 예를 보면, “외금강의 계곡들은 아마도 주로 구조곡일 것이다. 온정리의 계곡은 확실히 구조곡인데, 그 이유는 온정리 부근의 곡저에서 일평균 12,000ℓ/h의 물이 공급되는 40~45℃의 수온을 갖는 라디움 성분을 포함하는 6개의 관천이 있기 때문이다.”(p.555)라고 하여 온정리의 계곡이 구조곡이라는 이유를 라디움 성분을 갖는 관천과 관련시켜 기술한 것이 이런 기술방법에 해당한다.

둘째 지인상관-인인상관의 관점에서 수력발전을 기술하고 있다. 개마고원과 동해안 사이의 큰 낙차가 수력발전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수력발전은 다시 화학·비료 등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공업이 발달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연계시켜 기술한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그러나 대동분지에서 관개경작은 비교적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평안남도의 경우 전체 경지면적 중에서 답의 비율은 16.9%로 평안북도보다는 훨씬 낮다. 그 이유는 기후와 사면경사도에서 답작농업에 유리

한 이 지역의 넓은 경지가 투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라고 한 점에서도 지인상관의 인과론적 설명기술이 나타난다.

셋째 각 항목에 대한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항목간의 지지 내용이 단절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전체가 하나의 스토리(story)처럼 느껴진다. 경계, 하천에서부터 도읍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기술되어 있다.

넷째 지역의 변화를 교통과 관련시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진이나 청진은 작은 어촌에 불과하였으나 만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만주로 연결되는 철도부설과 일본으로 연결되는 기선항로의 개통으로 급격하게 도시화된 곳임을 서술하고 있다. 또 간선철도를 따라 공업발달지역이 서울에서 영등포, 안양과 수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기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예이다.

다섯째 개마고원의 통나무 문화를 문화지리적인 확산 및 경관 개념으로 기술하고 있다. 즉 개마고원의 삼림지대에 기원을 둔 너와집이 그 남동쪽과 서쪽 저지대로 확산 분포하였다는 것과 물레방아로 곡물을 빻는 절구를 통나무와 관련한 문화경관의 요소로 간주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여섯째 식생의 수직적 분포와 그에 따른 수종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일곱째 본서가 연구지지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기술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추가령열곡을 기술하면서 일본 학자 고토분지로의 견해, 즉 추가령열곡이 구조적인 지구대라는 견해를 비판하고 오히려 대부분 현무암으로 채워져서 평탄한 기저부를 갖게 된 구조곡이라고 주장한데서 잘 나타난다.

여덟째 기후에 관해 기술할 때에는 16개 지역에 해당하는 관측소별 기온(1월·7월·연교차)과 강수량(1월·7월·연강수량)자료를 도표로 제시하여 서술하고 있다.

아홉째 고도에 따른 3개의 상이한 풍화 및 침식지형 지대로서 산지의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표 40). 그런 한편 꼭져에서 높은 해발고도에까지 ‘문화지리학적 연속’의 관점에서 규칙적인 경관상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남원분지에서 북동쪽으로 높은 산을 오르면, ① 논-보리밭-평야, ② 황색 풍화사면과 흑회색의 암석 돔, 부분적으로 완전히 헐벗고 부분적으로 왜소한 적송의 2차 삼림, ③ 2차 관목 사이에 직각의 화전, ④ 2차 또는 원시혼합림, ⑤ 거의 변화가 없는 원시 침엽수림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표 40. 산지고도에 따른 풍화 및 침식지형 지대

산지고도	풍화 및 침식지형 지대	형성원인
고	모가 난 암주, 탑, 뾰족한 봉우리와 針峰들이 있는 분리된 산릉과 급사면.	기후적인 성인으로 3개 지대 간의 경계고도는 화강암의 입도와 절리 및 대지형에 종속된 것. 절리가 잘 발달한 세립화강암과 절리가 발달하지 않은 조립화강암. 용식.
중	둥근 흑회색 사면을 가진 화강암 돔과 원추형구가 있는 지대.	
저	화학적 풍화작용이 지배적인 화강암 지대. 산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한 편마암 구릉지.	

열째 경관지리학적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특히 금강산을 기술하면서 지형·삼림·불교 경관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키가 큰 무성한 삼림, 에메랄드빛 푸른색을 지닌 沼, 흰 거품을 내는 폭포와 하천, 검은 암석 돔과 밝은 회색 또는 보라색을 띠는 갈색의 톱니 같은 능선, 이들이 금강산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sup>53)</sup> 저자는 이에 더불어 맑은 가을 하늘에 단풍까지 더해지면 가히 장관이 아닐 수 없다고 경탄하였다.

53) 김종규 외(역), 1998, <코레아 I>(라우텐자흐 저), 대우학술총서·번역 115, 민음사, pp.564.

## (2) 지방지지에 관한 통합 고찰

지방지지는 앞서 고찰한 계통지리의 기술내용을 반복해서 기술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인지 일부 조선지지의 지방지지는 도별로 그 도에 속한 도읍을 소개하는 정도에 머문 것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지지는 지역 구분된 단위지역의 특성을 지지의 내용 구성 요소에 따라 기술하고 있었다.

지방지지에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인의 조선지지에서 는 위치, 지형, 기후, 산업, 교통, 도읍, 일본인의 조선지지에서는 위치, 지형, 기후, 산업, 교통, 문화, 주민, 도읍, 서구인의 조선지지에서는 위치, 지형, 기후, 토양, 식생, 산업, 교통, 주민, 도읍에 관한 내용을 지방지지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토대하여 민족별 조선지지에 포함된 지방지지의 공통적인 내용을 압축해 내면, 위치·지형·기후 등의 자연지리 요소와 산업·교통 등의 인문지리 요소, 그리고 처지(도읍)이라는 지역지리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지방지지에 수록하면서 저자는 기본적으로, 계통지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지리적 현상이나 사실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방법을 위주로 기술하고 있었고, 부분적으로는 자연과 인문의 관계, 인문과 인문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방법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통지리에 나타난 기술방법과 차이가 있다면 대부분의 지방지지에서 도읍의 위치를 기술할 때 타 도읍과의 거리로서 표현하였다는 사실에 있다. 이는 지역체계 속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도읍, 즉 지방 중심지와의 거리나 방향으로서 위치를 파악했다는 사실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열거한 지방지지의 기술방법은 세 민족 모두에 나타난 공통된 기술방법이었다. 이에 비해 일부 조선지지에 나타난 기술방법으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기술방법이 있다. 애국심에 관하여 좀 더 언급하면, 조선인의 <최신조선지지>와 일본인의 <조선신지지>에서 나타난 기술방법으로서 전자는 만주사변 이전 간도 용정촌에서 발행된 것이고, 후자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에 일본에서 발행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기술방법은 둘 다 시대적 맥락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방지지에 응용된 주요 지리개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인의 경우에는 위치, 거리,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지역의 변화, 산업입지, 지리구, 중심지와 같은 개념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인의 경우에는 위치, 거리,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지리구, 지역의 변화, 취락입지, 중심지, 노동력의 계절적 이동과 같은 개념이 확인되었고, 서구인의 경우에는 위치, 거리, 분포, 자연과 인문과의 관계, 지역의 변화, 입지, 중심지 계층, 문화확산, 경관 등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방지지에 공통으로 나타난 지리개념은 위치, 거리, 분포, 입지, 자연과 인문의 관계, 지역의 변화, 중심지와 같은 것이었다.

이런 지리개념 중에 시대적·지지적 맥락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는 것으로 지방지지에서는 지역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인한 조선 공간의 급속한 변화를 지리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변화는 대부분 인문과 인문의 관계로서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기술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자연과 인문의 관계는 지리학의 전통적인 주제로서 일제강점기에도 빗겨갈 수 없었던 지리개념이다. 특히 자연에서 얻은 산물과 그로 인한 산업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식민지 조선의 경제는 자연과의 관련성을 궁구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 VII. 요약 및 결론

### 1. 조선지지의 발행 배경

제국주의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정보에 대한 시대적 요청은 관심 지역에 관한 탐험과 여행의 물결이 넘쳐나게 만들었다. 이것은 공간적 맥락에서 밝힌 시간거리를 단축시킨 교통수단의 발달과 이에 따른 식민제국의 영토팽창에 대한 탐욕이 결부되어 나타난 것이다. 동시에 지리지식을 세련되게 담은 지지서의 개발이 대학의 지리학 강좌 개설과 함께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노하우는 서구에서 일본으로, 그리고 서구나 일본(주로 일본)으로부터 조선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서구의 영향력은 쇠퇴하고 일제의 영향력이 강해져 조선의 지리학은 일본의 지리학을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됨으로써 자생력을 가진 조선지리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은 조선지지 발행의 외부적 환경이 민족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본인은 자국의 영토로 편입된 조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목적으로 조선 땅을 샅샅이 조사하여 일제강점기 이전보다 한층 정확도가 높아진 지지서를 착착 발행하게 되었고, 서구인은 지리정보의 수집이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못하고 다만 일시적인 여행객이나 기타 체류자들의 여행기와 일본인의 연구 자료에 의존해 조선에 대한 정보 갈증을 메우고 있었다. 조선인은 일제의 식민정책으로 운신의 폭이 너무 좁아 연구지지는커녕, 편찬지지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이렇듯 조선지지 발행 환경은 민족에 따라 큰 격차가 있었고, 이에 따른 지지서 발행 수도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일본인의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조선인과 서구인의 조선지지는 몇 권에 지나지 않았다.

또 한편으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은 조선인에게는 조선인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조선의 위치에 근거한 긍정적 국토관 정립에 힘을 쏟게 하며, 일본인에게는 일본인의 애국 열정을 느끼고 조선에 대한 일본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식민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목도하게 하고, 서구인에게는 닫힌 나라, 일본의 해외속령 등의 자구로서 조선이 열등하다는 표상을 심어주었다. 특히 조선의 지형형상에 대한 표현을 비교해 보면 조선인과 일본인 간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인의 지지에서는 조선의 지형을 호랑이<sup>54)</sup>로 표현하여 힘차게 도약하는 조국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인은 조선 지형을 토끼와 파리한 학과 같은 노인에 비유하여 호랑이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조선이라는 인상을 풍기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러시아는 조선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서 유사시 조선을 영토확장 정책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sup>55)</sup> 라우텐자흐는 중국, 일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단일국가로서 이웃나라와는 크게 상이한 조선 고유의 문화지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sup>56)</sup>

일제강점기에 기인한 각 민족의 조선지지 발행 환경과 조선 인식의 차이는 지지의 발행 목적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

54) 尹和洙(1924:10)의 <최신조선지리>에 보면, 조선의 지형과 지세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我朝鮮의 地形은 猛虎가 前足を 北으로 伸하고 西로 向하여 장차 雄飛코져 하난 形狀을 成하였고, 地勢는 疾風暴雨時에 怒濤巨浪이 起伏함과 如한지라”,

55) “러시아인들은 다른 서구인들이 접근하지 않았던 조선지역, 특히 북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북부와 동부 지역은 러시아 측을 위한 전쟁 수행의 경우에 있어서 점령지역으로서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곳이다.”(김종규 외, 1998, <코리아 I>, 대우학술총서·번역 115, 민음사, p.90)

56) 김종규 외(역), 1998, <코리아 I>, 대우학술총서·번역 115, 민음사, p.63.

각 민족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감춘 채 조선지리를 이해하여 조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조선에 관한 지리정보 수집에 열을 올렸다.

## 2. 조선지지의 체재와 수록 내용

조선지지의 지지체재는 사례지지를 선정할 때에 이미 정의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런 세 부분을 고려하고, 또 후술한 지지의 주요 내용 요소를 들여다보면,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체재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의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지지학의 전통을 잇는 것, 즉 헤트너의 지지체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체재에 기초하여 조선지지에 수록된 내용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자연지리에 관한 것으로서, 이것은 천문을 포함하는 지문지리보다 좁은 영역의 자연현상에 관한 것을 지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위치, 지형, 기후, 식생 등의 자연 현상에 관한 내용 요소를 중점으로 기술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발행된 지지에서는 지문지리를 포함한 지지가 많았으나 이후에는 자연지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여 나타났다.

사례 지지에서 살펴본 자연지리에 관한 내용 요소로서는 위치(면적, 경계), 지형(산지, 하천, 해안), 기후, 천산물(식물, 동물)을 들 수 있다. 기술 순서는 위치, 지형, 기후, 천산물 순이었다.

둘째 인문지리에 관한 내용은 자연지리와 비교하여 기술 내용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대부분의 사례지지에서 나타난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 교통, 문화, 인구가 주요 내용 요소인데, 이 중에 산업(농·임·어·공·광·상업)과 교통은 모든 지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었다. 이는 교통과 산업의 혁명에 기인한 서구 근대문명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조선 식민지에 이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일제강점기에는 교통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광업이나 임업, 공업 등 각종 산업이 급격히 발달하여 조선의 공간구조 또한 현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지지는 조선지지 내의 지역지리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을 지역구분한 결과로 정해진 각 지방에 대하여 다시금 자연지리·인문지리·處誌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방지지의 자연지리에 대한 내용 요소로는 위치(경계), 지형, 기후이며, 인문지리에 대한 것은 산업, 교통, 주민이었다. 조선의 지방지지 내의 소규모 지방지지인 처지에서는 도읍을 주로 다루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 자연지리에는 위치, 지형, 기후, 천산물이, 인문지리에는 산업, 교통, 문화, 인구가, 그리고 지방지지에는 지역구분, 자연지리(위치, 지형, 기후), 인문지리(산업, 교통, 주민), 처지(도읍)가 내용 요소로서 포함되어 있었다.

### 3. 조선지지 기술에 있어 지리개념의 응용

지지를 기술함에 있어 지리개념의 적용은 시대적·지지적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그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지리정보가 무엇인가에 따라 지지내용이 결정되고 난 다음, 기술에 필요한 지리개념과 지지기술방법을 적

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지지에 활용된 지리개념은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기본적인 지리개념들은 모든 지지에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것인즉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지역의 변화, 입지와 같은 개념들이었다.

위치 개념은 조선반도라는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활용된 것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방법으로도 기술되었다. 분포 개념은 지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조선지지 전반에 적용된 것이다. 지도와 함께 제시된 경우도 많았다. 자연과 인문의 관계는 인간의 삶이 자연에 토대하고 있는 한 외면하기 어려운 개념으로서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지학적 맥락에서 살펴본 바대로 서구의 근대 지리학 발달 초기부터 계속해서 지리학의 핵심내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던 개념이다. 지역의 변화는 어느 시대에나 있어왔던 것이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에서 일제의 지역계획에 의한 조선 공간의 급격한 변화는 그 시대의 지지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는 것을 반영한다. 지지의 제목에 ‘新’자가 많았던 것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된다. 입지는 고랭지와 도시근교의 농업입지, 관북지방의 공업입지, 침식분지의 취락입지와 같은 산업과 취락에 관한 입지조건을 기술하는 개념으로서 특히 경제와 관련한 입지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적 맥락과 관련이 깊다.

라우텐자흐의 경우, 점이지대(또는 경관의 형태변이)라는 개념을 통해 그의 지지 <코레아>를 연구하였고, 특히 기후지역과 식생지역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 일제강점기 후기에 일본에서 형성된 지리구라는 개념은 서구의 자연지역 개념과 거의 유사한 개념으로, 1930년대 이후 일본이나 조선인의 지지에도 이용되었다.

#### 4. 조선지지에 적용된 기술방법

지지 기술의 보편적인 방법은 지리적 현상이나 지역성을 개성 있게 기술하는 것이다.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정치·경제·문화의 시대적 맥락과 관련하여 조선지지를 기술하는 데도 가장 큰 줄기의 지지기술 방법이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열하여 기술하는 방법 외에 자연 현상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방법의 하나였던 인과원리를 지지기술방법으로 도입하여 적용하였는데, 조선지에서 이 방법은 자연과 인문의 관계<sup>57)</sup>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고 있었다. 여기에는 환경결정론과 가능론의 입장에서 서 있는 인과론적 기술도 포함되어 있다.

조선지지에 나타난 이와 같은 기술방법은 계통지리와 지방지지 양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방법이었다면, 다음의 지역간 비교기술방법은 주로 계통지리에 이용된 방법이었다. 조선의 자연지리 및 인문지리의 특성을 타 국가와 비교하여 조선의 지리적 특성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부각시키는 데 이용된 방법이다. 특히 조선의 위치·기후와 지형 형상, 그리고 조선인에 대한 표상을 기술하는데 응용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지지기술방법을 보충하는 것으로서 그림 자료가 이용되었는데, 도표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었고, 그 다음으로 지도와 사진이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지도와 사진은 분포와 경관의 측면에서 시각적으로 지역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림 자료의 활용도는 낮았다.

---

57) 자연과 인문 간의 상관론에는 4가지 관계가 있다. 즉 자연과 인문의 관계(지인상관), 인문과 자연의 관계(인지상관), 자연과 자연의 관계(지지상관), 인문과 인문의 관계(인인상관)이다.

## 5. 지역 구분의 지표

지역 구분은 기본적으로 자연지역<sup>58)</sup>에 의거해 이루어진다. 역사적으로 잦은 변경을 거쳐 확정된 국가나 지방의 경계선은 산악, 하천 등의 지형에 근거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프리카 식민지 분할에 의한 국경선과 같이 제국주의의 정치적 역학에 의해 그어진 구분선은 자연지역과 달리 인위적인 지역구분선에 해당한다.

조선이라는 국가 스케일을 연구단위로 삼은 조선지에서의 지역구분 지표는 기본적으로는 인위적인 요소보다는 자연지역에 근거한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구역도 자연지역을 기초로 하여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례 지지에 대한 고찰에서도 나타났듯이, 일제강점기 전기에는 13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후기에는 행정구역에다 자연지역을 결부시킨 것과 지리구와 같은 순수 자연지역을 기준으로 삼아 조선을 지역구분 하였다. 특히 자연지역에 기초한 지역구분도를 보면 숫자와 문자(알파벳)를 이용하여 지도에 표기하고, 자연지역명은 범례를 만들어 표기하거나 본문에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영국 허버트슨의 자연지역이나 일본 田中啓爾의 지리구<sup>59)</sup>에 나타난 지도의 특징인데, 조선지에서 이런 종류의 지역구분도는 1930년대 이후의 조선인과 일본인의 지지에 등장하였다(그림 1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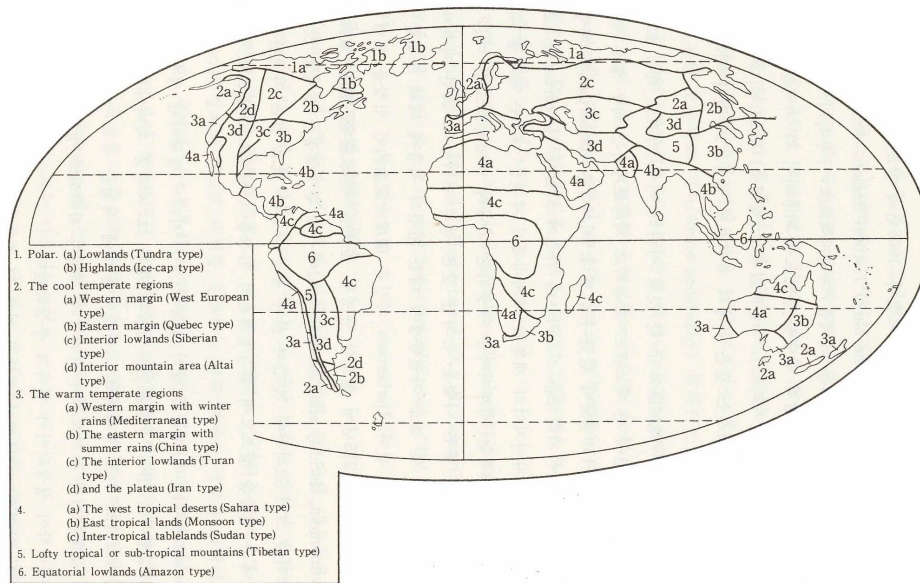
그림에서와 같이 서구인의 지역구분도 표기법이 시기를 달리하여 일본

---

58) 지역구분의 지표로서 자연지역은 영국의 허버트슨(Andrew J. Herbertson, 1865-1915)이 제안한 세계지역구분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연지역이란 지형, 기후, 식생 등을 연관시킨 자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는 지역구분이다. 주요 특성으로 기후분포를 이용하였다. 기후는 식생 및 농작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세계를 자연지역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세계의 지질구조도, 기온대지도와 계절적 강수량 분포도를 이용하여 각 지역들 간의 대응성을 고찰한 다음 15개의 자연지역으로 구분하였다(이회연, 1991:257~261).

59) 地理區는 1927년 다나카(田中啓爾)의 '일본의 지리구'라는 논문에서 시작된 개념이다.

인이나 조선인의 지역구분도에서도 나타난 것은 서구인의 지역구분방법이 일본인의 지역구분에 영향을 주었으며, 다시금 이들 두 민족의 지역구분방법은 조선인의 지역구분에 영향을 주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출처: Herbertson, A. J.(1905), p.307.

그림 11. 세계의 자연지역 구분(허버트슨, 1905)  
이희연, 1991:260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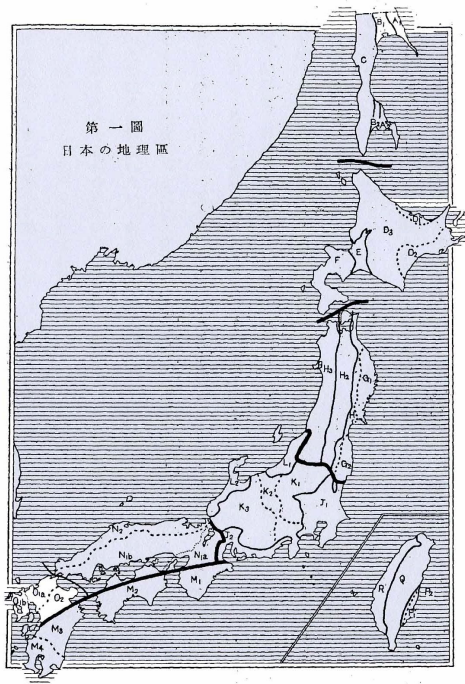


그림 12. 일본의 지리구  
(田中啓爾, 1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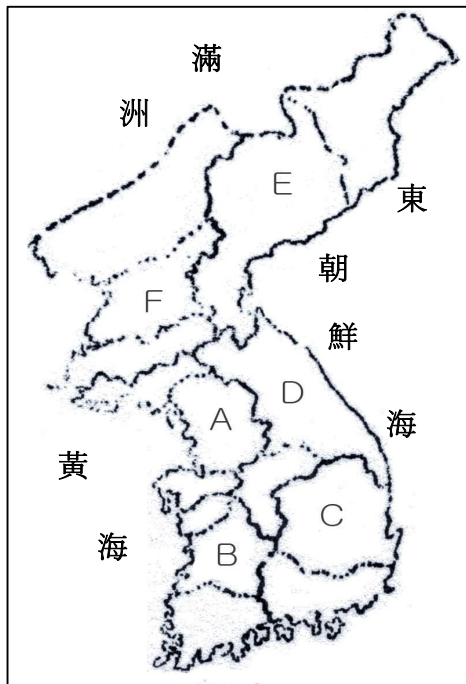


그림 13. 지리구(정홍헌 외, 1946)

점선은 도계

- A 京畿地方 B 湖南地方
- C 嶺南地方 D 關東地方
- E 關北地方 F 關西地方

## 6. 결론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맥락과 서구 및 일본의 근대지리학이라는 지지적 맥락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에 관한 지리서와 지리교과서, 즉 朝鮮地誌의 성격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조선지지 중 사례지지를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 또한 조선지지 문헌을 민족간 비교 연구

과 시기별 시간단면 분석을 적용하여 그것의 저술 목적을 고찰하고 밝히고, 또 더 나아가 그것의 체재와 내용을 정리하며, 지리개념과 기술방법을 도출하고, 그림 자료와 지역구분의 지표가 갖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성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조선지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맥락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강점과 동시에 지지적 맥락으로서 서세동점의 서구 근대지리학의 영향을 고스란히 담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일제의 조선식민지 강점에 대한 각 민족의 입장에 따라 조선지지의 저술 목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체재와 내용, 기술방법과 지역구분의 지표에서는 각 민족의 조선지지에서 공히 서구 근대지리학의 그것과 거의 유사한 특성이 나타났다.

둘째 ‘자연지리·인문지리·지방지리’라는 틀로 짜여 있는 조선지지의 수록 내용은 헤트너의 지지도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자연지리에는 위치·지형·기후·천산물이, 인문지리에는 산업·교통·문화·인구가, 지방지리에는 지역구분과 지방의 자연지리·인문지리, 하위지역에 관한 處誌(도읍)가 민족이나 시기, 사례지지에 상관없이 공통적인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셋째 조선지지의 지리개념으로는 위치, 분포, 자연과 인문의 관계, 입지, 지역의 변화와 같은 지리학의 기본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치는 조선반도의 지리적·수리적 위치를, 분포는 특히 지도화 작업과 병행하여 산물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리개념이었다. 자연과 인문의 관계는 인종이나 민족의 특성과 각종 산업경제활동과 관계하는 자연을 언급할 때, 입지는 발전소, 근교원예농업, 공업지역 등 산업 활동을 기술할 때에 주로 응용된 개념이며, 지역의 변화는 일제의 조선강점 전후의 지역 변화를 설명하는 지리개념이었다.

넷째 조선지지를 기술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서는 지리적 현상을 단순하게 記述하는 방법과 지리적 현상 간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계통지리를 기술할 때에는 특별히 지역 간의 지리적 현상을 비교하는 기술방법이 이용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의 기술 방법은 지리학적 맥락에서 밝힌 서구 지리학의 지지 기술 방법과 동일한 것이었다.

조선지지에서의 단순하게 기술하는 방법은 지리적 현상을 인과의 원리나 비교의 원리가 아닌 항목에 맞춰 내용을 나열하는 백과사전 체재의 지지 기술 방법이었다. 인과론적인 설명방법은 자연지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와 자연과 인문의 관계를 설명할 때, 그리고 인문지리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 비교하는 방법은 주로 조선의 위치나 기후와 관련하여 유럽이나 일본의 그것과 비교하는 사례에 활용되었다.

다섯째 지지의 백미는 지역구분에 있는 만큼, 필자는 이 부분에 대한 고찰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조선지지에 나타난 지역구분의 유형은 행정구역이나 자연지역에 근거하여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전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였다. 전기에 행정구역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던 지역구분이 1930년대 이후에는 자연지역(예, 지리구)에 의한 지역구분법으로 그 추세가 변화하였던 것이다.

여섯째 조선지지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림 자료의 활용도가 낮았다. 사진이나 지도, 통계표 등의 그림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한 지지는 윤화수의 <최신조선지리>(1924), 豊川善曄의 <조선향토지리>(1935), 라우텐자흐의 <코리아>(1945)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일제강점기의 조선지지 기술에서는 민족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그림 자료의 활용도가 낮았던 것이다.

결국 조선지지의 체재, 내용, 기술방법, 지역구분 등 지지의 내적인 측

면인 학문적인 요소는 민족에 상관없이 서구 근대지리학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었다. 그러나 저자들의 속내에 감춰진 조선지 지술목적이나 일부 내용에 대한 기술방법에 있어서는 민족 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이는 조선지지의 외적인 측면인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강점에서 파생된 것으로 조선이라는 동일지역을 두고서 민족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기초하여 조선지지를 기술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서 분할과 통합의 방법은, 첫째 민족간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지지에 암시적으로 담겨 있었던 지술목적의 민족간 차이를 고찰하는데 유용하였고, 둘째 시간단면을 통한 시기별 고찰을 통해 일제강점기 전기간에 걸쳐 일어난 조선지지의 미묘한 성격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남긴 과제로는, 첫째 지리서나 지리교과서에 관한 사례연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조선지 지 자료를 발굴하여 일제강점기 조선지지의 전체모습을 연구하는 일이며, 둘째 근대 지역지리와 현대 지역지리를 잇는 가교로서 일제강점기의 한국인에 의한 전통지역지리학을 고찰하는 일이다.

## 참고 문헌

### 1. 사례 조선지 지 자료

#### 1) 조선

南宮濬, 1912, <新朝鮮全誌(上下)>, 京城: 唯一書館, 231쪽

尹和洙, 1924(訂正再版), <最新朝鮮地理>, 間島龍井村: 永新中學校, 118쪽 (初版은 1923年)

申明均, 1931, <朝鮮地理>, 朝鮮青年常識叢書 4, 京城: 常識普及會, 78쪽

鄭洪憲·李箕燮·李富星, 1946, <中等朝鮮地理>, 서울: 正音社, 80쪽

#### 2) 일본

日韓書房編輯部, 1912, <最新朝鮮地誌>, 京城: 日韓書房, 545쪽(附錄 52쪽)

日高友四郎, 1924, <新編朝鮮地誌>, 京城: 朝鮮弘文社, 876쪽

豊川善擘, 1935, <朝鮮郷土地理>, 京城: 日韓書房, 78쪽

淺香幸雄, 1943, <朝鮮新地誌>, 大日本郷土地誌(日本地歴研究會) 48, 東京: 恆春閣, 43쪽

#### 3) 서구

崔璇·金炳璘 譯, 1984, <韓國誌(본문·부록)>, 서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러시아대장성, 1900, <КОРЕИ>, S-Peterburg, 1,256쪽)

김종규·강경원·손명철 역, 1998, <코리아 I·II>, 대우학술총서·번역 115-116, 서울: 민음사 (Hermann Lautensach, 1945, <KOREA-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 K.F.Koehler Verlag / Leipzig)

## 2. 국문 자료

### 1) 논문

- 강순돌, 2005, 애국계몽기 지식인의 지리학 이해: 1905~1910년의 학보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0-6, 대한지리학회, pp.595~612.
- 권정화, 2001, 부분과 전체-근대 지역지리 방법론의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한국지역지리학회, pp.81~92.
- 권혁재, 1976, 지리학, <한국현대문화사대계Ⅱ>,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193~235.
- \_\_\_\_\_, 1982,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지리학과 지리교육, <한국교육사연구와 새 방향>, 집문당, pp.248~262.
- 길승흠, 1985, 일본제국주의의 성격, <한국근대사회와 제국주의>, 한국사연구회(편), 삼지원
- 김재완, 2000a, 1920~1930년대 독일 지리학의 연구동향,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1, 한국지역지리학회, pp.69~89.
- \_\_\_\_\_, 2000b, 라우텐자흐의 사상과 방법론에 대한 고찰, <문화역사지리> 12-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15~35.
- 김경태, 1985, 일본제국주의의 형성과 대한제국, <한국근대사회와 제국주의>, 한국사연구회(편), 삼지원
- 김운태, 1990, 일제 식민통치체제의 확립, <한국의 사회와 문화>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1~57.
- 남상준, 1986, 일제의 대한 식민지 교육정책과 지리교육: 한국지리를 중심으로, <지리교육논집> 17-1,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pp.1~21.
- 박봉배, 1995, 일제침략기의 교과서, <교과서연구>, 한국교과서연구, pp.10~18.

- 박태준, 1999, 일본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 교육적 특징, <교육사학연구> 9, 서울대학교 교육사학회, pp.113~130.
- 박태화, 2002, 한국 전통지리 사상에서의 지역지리 연구방법론의 재조명,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한국지역지리학회, pp.161~169.
- 朴衡秉, 1926a, 近世植民政策의 起源과 由來(一), <開闢> 68-4, pp.46~58.
- \_\_\_\_\_, 1926b, 近世植民政策의 起源과 由來(二), <開闢> 69-5, pp.18~25.
- 변은진, 2004, 일제 식민통치의 성격과 조선인 군사동원,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강만길 외), 선인, pp.431~478.
- 서기재, 2002, 일본근대 「여행안내서」를 통해 본 조선과 조선관광, <일본어문학> 13, 한국일본어문학회, pp.423~440.
- 손명철, 2002, 근대 사회이론의 접합을 통한 지역지리학의 새로운 방법론, <한국지역지리학회지> 8-2, 한국지역지리학회, pp.150~160.
- 안영진·김상빈, 2004, 근대 독일 지역지리학의 성립과 발달과정,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3, 한국지역지리학회, pp.554~567.
- 양보경, 1991, 고산자 지지의 현대적 평가, <지리학> 26-2, 대한지리학회, pp.164~170.
- \_\_\_\_\_, 2000, 전통시대의 지리학,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한울, pp.15~96.
- 양보경·김경란, 2001, 일제 식민지 강점기 읍지의 편찬과 그 특징, <응용지리> 22,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pp.89~115.
- 유성희·박은경, 1998,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특징과 전개과정, <인문사회과학연구>,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pp.141~157.
- 윤화수, 1933, 간도의 문화건설과 기독교의 수동(殊動): 변영하든 황금시대를 추억함, <종교시보> 2-1, 장로회총회종교교육부
- 이옥순, 2002, 식민주의의 두 얼굴-일본과 영국 식민주의의 기초적 비교,

- <아시아 문화> 18,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27~43.
- 이은숙, 1996, 김교신의 지리사상과 지리학 방법론-조선지리소고를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8,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37~51.
- 이재하, 1993, 테일러의 세계체제론적 지리학, <현대지리학의 이론가들>, 민음사
- 이찬, 1968, 한국지리학사, <한국문화사대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p.681~734.
- 임덕순, 1999, 한국인의 전통적 지리관, <문화역사지리> 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pp.5~13.
- 임형택, 2000, 20세기 초 신·구학의 교체와 실학-근대계몽기에 대한 학술사적 인식,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 사상>, 민족문화연구소(편역), 소명출판, pp.415~436.
- 장보웅, 1971, 일본통치시대의 지리교육, <군산교대 논문집> 4, 군산교육대학, pp.83~118.
- 최정태, 2001,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지식정보정책과 간행물 분석, <한국민족문화> 17,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pp.121~287.

## 2) 단행본

- 강만길 외, 1994, <한국사> 13~14, 한길사
- 강유원, 2004, <책과 세계>, 살림지식총서(085), 살림출판사
- 권용우·안영진, 2001, <지리학사>, 한울
- 권정화, 2005, <지리사상사 강의노트>, 한울
- 김운태, 1999(중판),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민족문화연구소(편역), 2000, <근대계몽기의 학술·문예 사상>, 소명출판
- 박경식, 1986,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박선미, 2004, <한국의 지리교육과정론>, 문음사  
 박지향, 2000, <제국주의-신화와 현실>, 서울대학교출판부  
 신용하, 1998,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문학과 지성사  
 이이화, 2004, <우리 힘으로 나라를 찾겠다>, 한국사이야기 20, 한길사  
 이희연, 1991, <지리학사>, 범문사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나남  
 임지현 엮음,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최유리, 1997,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국학자료원  
 홍경희, 1994, <(일본에서 발행된)한국지리관계 문헌목록 : 1868~ 1991 >, 효림

### 3) 번역서

김동노·이교선·이진준·한기욱(역), 2001, 망국(제3장),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김종규 외(역), 1998, <코리아(I-II)>(라우텐자흐 저), 대우학술총서·번역 115- 116, 민음사  
 박성관(역), 2004,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1880-1918>(스티븐 킨 저), 휴머니스트  
 박홍규(역), 1999, <오리엔탈리즘>(에드워드 사이드 저), 현대사상신서6, 교보문고  
 석화정(역), 2001, <유럽 제국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앤드류 포터 저), 한양대학교 출판부  
 손명철(편역), 1994, <지역지리와 현대사회이론>, 명보문화사  
 안인희(역), 2005,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루츠 판 다이크 저), 웅진  
 윤정숙(역), 1994, <역사지리학방법론>(기꾸치 도시오 저), 이회  
 이대회·최연구(역), 1997, <지정학 입문-공간과 권력의 정치학>(필립

모로 드파르쥐 저), 새물결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2, <현대인문지리학사전>(존스톤·그레고리·스  
미스 저), 한울아카데미 49, 한울

#### 4) 학위논문

방효순, 2001, 일제시대 민간 서적발행활동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남상준, 1992, 한국 근대학교의 지리교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홍일표, 1999,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일문

#### 1) 논문

田中啓爾, 1927, 日本の地理區, <地理學評論> 3, 日本地理學會, 古今書院  
\_\_\_\_\_, 1933a, 朝鮮の人文地誌學的研究-東北・中央・西南日本との對比,  
<地理學論文集>, 古今書院, pp.639~694. 출처: <地理教育> 第  
13-15卷(1931年 11・12月, 1932年 1・9・10月, 1933年 1月)  
\_\_\_\_\_, 1933b, 最近地理學の進歩, <地理學論文集>, 古今書院,  
pp.923~926.  
\_\_\_\_\_, 1934a, 地誌記述の様式に就いて, <地理學> 2-3, 古今書院,  
pp.526~ 528.  
\_\_\_\_\_, 1934b, 地誌學的研究に就いて, <地理學> 2-3(臨時増刊), 古今

書院, pp.2347~2350.

田中啓爾, 1936, 地誌學的研究の分析と綜合, <地理學> 4-4, 古今書院,  
pp.677~ 678.

## 2) 단행본

菊地一郎・北畠潤一, 1992, <地理的認識と地域像-新しい人文地理學と地誌>, 大明堂

森川 洋, 2004, <人文地理學の發展-英語圏とドイツ語圏との比較研究>, 古今書院

村山祐司(編), 2003, <地域研究>, シリーズ人文地理學 2, 朝倉書店

## ABSTRACT

# A Study on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during the Japanese Rule

Kang, Soon-Dol  
Major in Historical Geography  
Department of Geography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is mainly concerned with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rule. It explores what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was written for, extracts the essential contents from it, and draws a basic geographical concept and a regional geographical description methods used to describe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For this study, I have analyzed both periodic and regional geographical contexts in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I have also examined the Korea's regional geography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rule with the comparative method between the three nations(the Korean people, the Japanese, and the Westerners) and the

analysis of time cross section. This literature was chosen as examples among resources for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Colonial occup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and its colonial policy influenced Korea's cultural environment for researchers of the Korean people to collect the resources of regional geography and publish the regional geography at that time. It led to a big gap between the numbers of published literature of the regional geography according to these three nations. This brought differentiated publishing of it, in other words, the authors' differentiated purposes of writing it. As regional contexts related to contemporary regional geography's development, we cannot cross out the influence by Western modern regional geography. It has been developed along with Western imperialism, and outstandingly accomplished a geographic understanding of certain regions through investigation. This regional geography as one of the western modern studies spread to Japan, and then Korea.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was categorized as physical geography, human geography, and regional geography. Each was composed similarly to the Hettner's regional geographical diagram. In other words, they consisted of essential contents: Location, landform, climate, and natural products in the physical geography. Industry, transportation, culture, and population in the

human geography. Regional division, physical geography, human geography, and small-scale regional geography in the regional geography.

It also contained not only these contents but also basic geographical concepts, e. g. geographical location, distribu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human beings, changes of the region, and location of industry throughout the regional geography. This was reported in the ways of description of geographical phenomenon as well as causational explaining of the relationship among them. To describe systematic geography, the method of comparing the geographical phenomenon among regions was used. These way of description were the same as the ones used in Western regional geography.

Thus this made the inside of the regional geography of Korea as system, content, geographical concept, and the method of description influenced by the West; the outside by the colonial occupation of Japanese imperialism causing the differentiated purposes of writing between the three nations. These were derived from a different interests of geography in the same place called Korea.

The method suggested in this study was useful to examine their different interests by the way of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three nations, and to analyze the distinct differences which occurred during the Japanese rule over 35 years through time cross section.

For further study, I suggest tha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rule be restored based on regional historical geography, and then the traditional Korean regional geography, considered as buried, be excavated so that the resources for Korea's traditional regional geography written by the Korean people.

## 감사의 글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감을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이 논문이 있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양보경 지도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과의 만남은 저의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아울러 좋은 강의로 만나게 해주시고 논문심사까지 맡아 주신 신중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강단을 떠나시는 교수님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기꺼이 맡아주시고 논문에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 형기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아들과 같이 자상하게 대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논문 심사를 맡아주시고 좋은 조언을 해주신 이원호 교수님과 홍석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 과정에 힘을 실어 주신 성신여대 지리학과의 최기엽 교수님, 권용우 교수님, 이금숙 교수님, 박경 교수님, 정재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리학 입문 당시 저를 이끌어주셨던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의 고 오건환 교수님, 고 최삼용 교수님, 이희열 교수님, 이성호 교수님, 김기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 학문의 좋은 모범이 되어주시고 애정을 쏟아주셨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의 박영한 교수님, 김인 교수님, 고 박동원 교수님, 허우궁 교수님, 유우익 교수님, 박삼옥 교수님, 유근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생의 좋은 안내자가 되시는 최창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자료 수집을 비롯한 제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성신여대 지리학과 대학원생 양윤정, 박선영, 이경미씨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리학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쉬고 있을 때 영혼의 교제를 통해 힘이 되어 주셨던 장명수 목사님과 허영자 사모님께 깊이 감사드

립니다. 또한 동부광성교회 중등부의 김성우 전도사님과 동료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논문은 이 분들의 기도의 산물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학생교육을 위해 애쓰고 또 저의 학문 활동을 배려해 주셨던 이언구 교장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잊을 수 없는 스승의 모범이셨습니다. 논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쳤던 구리여자고등학교 및 경기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이 지면을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아울러 따뜻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도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실 그 자체이신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 논문은 성사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외손자, 외손녀 양육에 큰 도움을 주시고 저희 가정의 힘이 되어 주신 장인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묵묵히 뒷바라지 해 준 아내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유현, 딸 유은이에게도 저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2006. 12. 19

강 순 돌 씀